

星武

2016. July



논단

북한 핵 보유와 대북정책(17기 송대성)
한국공군의 전략사령부 운영에 관한 연구(28기 홍성표)

그리운 사람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추모하며(37기 정규혁)
공사에 원자력계의 대부 한필순(57기) 기념관을(편집진)

공사인에게 바란다

사회에서 본 空士人(김문환 성신여대 석좌교수)
空士人에게 전하는 제언(이준희 한국일보 사장)

자랑스러운 동문

비행시험 조종사의 끝없는 도전(26기 기예호)

Vol. 45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http://www.kafaaa.or.kr>

ISSN 2508-3139

대한민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지난 30여년 간,
한국치공구는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꾸준히
역량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을 내다보고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국치공구공업(주)

KOREA JIG & FIXTURE IND CO., LTD



대한민국을 수출합니다.

국산 기본훈련기 KT-1

국산 경전투기 FA-50

6개국 133대 33억달러

(2015년 10월 현재 국산 항공기 누적 수출량)

KT-1, T-50의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이라크, 필리핀, 태국 수출로 국내 항공산업의 수출산업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 미국 T-X 시장 진출과 KF-X의 성공적인 개발 및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수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기업-금호아시아나

여행의 지혜 FLY SMART



A330 MRTT

한국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A330 MRTT는 비용 대비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에어버스의 공중급유기는 대한민국 공군의 한반도 수호 역량을 강화시켜 줄 것이며, 한국의 병력을 전 세계 어느곳으로든 더 빠르고 안전하게 수송함으로써 대한민국 공군의 UN 평화유지활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이 모든 역량은 보조탱크가 필요 없는 에어버스만의 유일한 형상 덕분입니다.

실전에서 입증된 A330 MRTT는 기술적 위험이 없고 적시인도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요구하는 공중급유와 수송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 공군 및 연합국들과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한국의 우주항공산업에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비용대비 높은 효율성, 완벽한 상호운용성, 제로 리스크 솔루션.

대한민국 공군을 위한 '준비된 공중급유기' A330 MRTT.

PIONEERING THE FUTURE TOGETHER

 **AIRBUS**
DEFENCE & SPACE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술, (주)한화가 완성합니다

40년 이상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힘이 되어 온 (주)한화, 이제 첨단 솔루션으로
이 땅을 책임지는 종합방위산업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지키는 에너지
(주)한화/방산



정밀유도무기사업



정밀지능탄약사업



감시정찰사업



우주사업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

록히드 마틴에서는
더 나은 내일을 연구합니다.

신형 전술 전투기는 군사력의 기초입니다.
F-16은 수 년간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으로,
다목적 전투기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이제 현존하는 가장 정교한 다목적 전투기인
F-35 Lightning II는 세계 각국의 군대에
완전히 새로운 작전 수행능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제공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lmaero.co.kr 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F-35 LIGHTNING II

NORTHROP GRUMMAN | BAE SYSTEMS | PRATT & WHITNEY

— LOCKHEED MARTIN —

(주)미르텍은

항공기 및 미사일·탄약 등 군 핵심 전력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 및 유지하고 장비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장비(제습기, 항온항습기, 공조기기 등)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 특허 제 10-1399924호 태양에너지 공급부를 포함하는 제습 장치
- 특허 제 10-1507524호 항공기용 이동형 제습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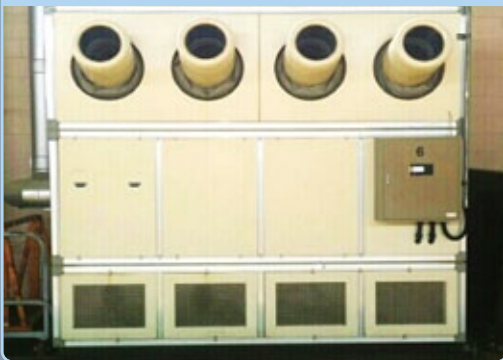
항공기 이동형 제습기



탄약고 건식제습기



대공간 공조기 (엄체호, 격납고)



공조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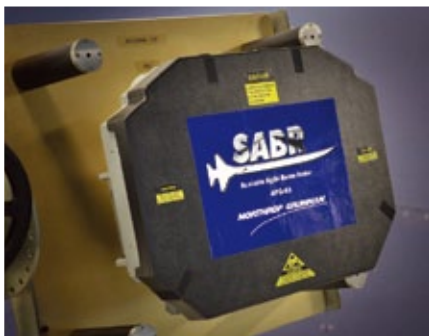
탄탄한 파트너십



RQ-4 Global Hawk / RQ-4글로벌호크

노스롭 그루만은 대한민국공군과의 탄탄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스롭 그루만은 전 세계 정부와 민간 기업에 무인시스템, 사이버, C4ISR, 전투기, 로지스틱스 및 현대화 부문에서 혁신적인 시스템,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보안 기업입니다.

노스롭 그루만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계속해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서 입지가 폭넓게 확대함에 따라, 한반도의 현재 그리고 미래 안보를 더욱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방위 솔루션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SABR Radar / SABR 레이더

대한민국에서 쌓아온 역량과 발자취

노스롭 그루만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대한민국 정부와의 관계에 큰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래 한국군과 미군은 긴밀한 공조하에 안보를 담당해 왔으며, 노스롭 그루만 또한 지상방위와 F-5 전투기로 시작해 오랜 기간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와 성공적인 방위 프로그램을 책임져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으로는 RQ-4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UAS), KF-16에 탑재된 APG-68 사격통제레이더(FCR), KF-16(APG-83 SABR 업그레이드), F-35 APG-81 레이더, 피스 아이(Peace Eye)에 탑재된 MESA 레이더, F-15K의 내부대응시스템(Internal Countermeasures System(ICS)), 개량형 C-130 계기에 탑재된 APN-241 전천후 레이더, F-5 전투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 지원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대한민국에서 입지를 넓혀 나가면서, 최근 임명된 브라이언 김 노스롭 그루만 코리아 사장은 한국간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노스롭 그루만을 대표할 것입니다. 노스롭 그루만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재향 군인과 가족을 위한 지원, 여성권익신장 및 STEM 교육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목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THE VALUE OF PERFORMANCE.

NORTHROP GRUMMAN

CONTENTS

2016 July Vol.45

60

회원 논문 및 제언

- 62 북한 핵 보유와 대북 정책 | 송대성
- 70 한국공군의 전략사령부 운영에 관한 연구 | 홍성표
- 78 「공군 태풍예보 적중이 가져온 기상청의 기상정보 독점」 | 변희룡
- 82 우리의 안전문화 고양을 위한 제언 | 윤차영
- 88 한국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제언 | 권영근
- 98 전역장교를 위한 실질적인 경제교육 | 신상용

星武

제호는 모교 성무탑에 새겨진 글자체이며,
이사회에서 사용확정하였습니다.

발행일 : 2016년 7월 (통권 45호) | 발행인 : 이계훈 | 발행처 : 공사총동창회
(전화 : 02-823-1091, 군 : 923-7570) | 편집·디자인·인쇄 : 씨앤틱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사총동창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12

소식

- 12 공군 소식
- 20 모교 소식
- 24 총동창회 소식
- 37 각 기별 동문 소식(활동)
- 50 이임사
- 52 취임사
- 54 축사

102

회원기고

자랑스러운 동문 및 화제의 인물

- 104 비행시험조종사의 끝없는 도전 | 기예호
- 110 최초 여생도에서 전투조종사로 | 박지연
- 114 Red Flag 한국군 최초 임무편대장의 의의 | 서재경
- 117 사법고시에 도전하면서 | 김민정

그리운 사람들

- 122 이만섭 국회의장을 추모하며 | 정규혁
- 125 공사에 원자력계의 대부 한필순(5기) 기념관을... | 편집진
- 131 故 오충현 공군대령과의 인연, 그리고 공군사랑 | 김덕수

소회, 추억 및 영광의 순간들

- 138 졸업 50주년 기념사 | 이억수
- 141 14기 사관 생도시절, 그 후 50년을 되돌아본다 | 김현
- 149 '7성회' 럭비부의 승전보 | 김석천
- 153 공사 옛터. 보라매공원의 鄉愁 | 이은봉

- 157 거레와 조국과 함께한 공사의 飛翔 | 편집진
161 빨간 마후라 출연진 초청 그림(10전비) | 편집진

단상(斷想)

- 163 서라벌에서 온 편지 6 | 이종학

‘공사인’에게 바란다

- 167 사회에서 본 ‘공사인’ | 김문환
170 공사인에게 전하는 제언 | 이준희
175 공사에 대한 이미지 | 김민정

수필 및 시(창작)

- 180 첫 눈 오던 날 | 신정식
183 밤하늘의 검투사 | 박종권
187 하늘의 사계, 다시 한 번 날고 싶다 | 최성열
191 나의 단소와 민요 사랑 | 문태일
195 겨울 사랑 이야기 | 이수남

건강관리 및 취미생활

- 197 중년의 건강관리 | 김철수
202 남성의 적, 전립선 | 이윤수
206 꿈은 이루어질 때까지 꾸어야 한다 | 윤학수
— 청춘 합창단 UN본부 공연 도전기

가족코너

- 212 64기로 졸업, 임관한 아들에게 | 한진수

218

복지혜택

- 218 예비역 관련 공지 사항

224

총동창회 알림

- 224 정기총회
229 회비 납부 안내
230 평생회비 납부 현황
234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현황
239 전역자 현황
242 각 기생회 임원 현황
243 편집후기/기고안내

공군사관학교 교가

작사 최용덕
작곡 김성태



1. 우 리_는 피 끓_는 배 달 의_아_ 들
2. 우 리_는 하 늘_을 배 우 는_젊은 이



높 고 빛 나 는 한 배 님 정 신 이 어_받 아 서
높 고 참 다 운 군 대 의 정 신 새 로_이 룯 해



누 리에 떨_ 치 고 자 하 늘 로 솟 나 니
나 라를 지_ 키 는 힘 하 늘 로 달 린 다



우 리들 영 혼 의 기 지 공 군 사 관 학 교
우 리들 충 성 의 원 천 공 군 사 관 학 교



하_ 늘 은 우 리 의 일 터 요 싸 움 터



하 늘 에 살 면_서 하 늘 에 목 숨 바 친 다

교훈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공사십훈

용의단정(容儀端正)하라
청렴결백(清廉潔白)하라
성심복종(誠心服從)하라
책임완수(責任完遂)하라
신의일관(信義一貫)하라
공평무사(公平無私)하라
침착과감(沈着果敢)하라
신상필벌(信賞必罰)하라
솔선수범(率先垂範)하라
은위겸비(恩威兼備)하라



지구 위성상황을 한눈에! 공군 '우주정보상황실' 개관

(2015.7.8)

국내 최초 국가 차원 '우주정보상황실' 개관... 실시간 우주정보 공유



공군, 제18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개최

(2015.7.14)



공군 군악대 스위스 바젤 제10회 '국제군악제' 참가

(2015.8.17-25)



2015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참가

(2015.8.4)

지난 4일 새벽 4시30분, 공군19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한 (K)F-16 전투기 편대가 태평양 상공에서 공중 급유를 받으며 미 아일슨 공군기지를 향해 비행하고 있다.



공군, 독립운동가 탔던 C-47 수송기 여의도공원 전시

(2015.8.18)

2015.8.18~2018.6 까지 3년간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탑승 C-47기 공개 행사에서 1945년에 C-47기를 타고 귀국했던 독립운동가 윤경빈 선생(96, 휠체어 앉은 이)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군 제35대 참모총장 정경두 대장 취임, 최차규 대장 이임·전역

(2015.9.17)

제35대 정경두(55) 공군참모총장 취임식과 제34대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이임 및 전역식이 한민구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군 주요 인사와 역대 공군참모총장, 가족, 친지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됐다.



국제 항공우주심포지엄 개최

(2015.10.19)

공군은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이주진 국제우주연맹 부회장, 미 전략사 우주합동기능구성군 사령관 데이비드 벡(David J. Buck) 공군중장 등 국내외 국방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제19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 ADEX 2015 개최, 다양한 행사 실시

(2015.10.20~25)



공군 기능사령부 개편·창설식거행 ; 공중전투사령부

(2015.12.29)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창설

공군은 기존에 지역별로 나뉘었던 전투사령부를 전투기를 전담하는 공중전투사령부와 기동·정찰기를 전담하는 공중기동정찰사령부 등 기능별 사령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2015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

(2016.2.1)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2015년 공군을 빛낸 인물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 공군의 '대부', 딘 헤스 美 대령 서거 1주기 추모 행사

(2016.3.4)

이번 행사는 6·25전쟁 영웅인 딘 헤스 대령의 업적을 기리고 한반도 방어의 핵심 전력인 한·미 연합 공군의 우의와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테런스 오셔너시 미 7공군사령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역대 공군참모총장, 6·25참전 출격조종사, 딘 헤스 대령의 유족 차남인 에드워드 헤스, 고인의 후원을 받았던 전쟁고아 출신 4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헤스대령 초상화 앞에서 단체인 기념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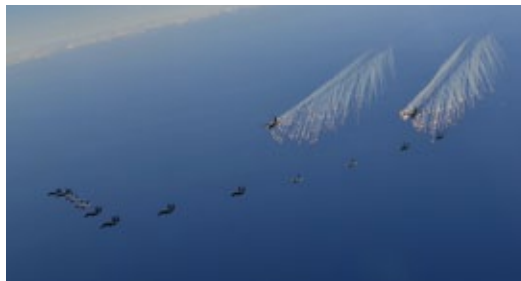


헤스대령이 고아와 함께한 사진

대규모 공격편대군 훈련 실시, 3개 기종 16대, C-130 수송기 2대 참가

(2016.3.21)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공군은 21일 F-15K와 F-16, FA-50 등 3개 기종 전투기 16대와 C-130H 수송기 2대 등 총 18대의 항공기를 대거 동원해 북한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대규모 공격편대군



훈련을 실시했다. 공군은 "적의 핵심 군사시설 타격 시나리오를 가정해 적의 작전에 혼란을 초래하고, 전쟁 수행 의지를 약화시키는 실전적인 공중작전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고아라, 공군 홍보 대사 위촉



(2016.4.11)

공군은 4월 11일 “고아라 씨의 경력과 이미지는 공군이 추구하는 4대 핵심 가치인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 가운데 도전과 전문성에 부합 한다.”며 고아라 씨를 공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고아라 씨는 앞으로 1년 동안 공군 홍보물에 모델로 등장하고 공군 에어쇼와 항공우주축제 ‘스페이스 챌린지’ 등 주요 행사에 참석해 공군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게 된다.

공군, KT-100 전력화 행사…‘한국형 비행교육체계’ 구축

(2016.5.11)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 영결식

(2016.5.21)



공군, 항안단 국가급 항공안전 주도 '선봉'

(2016.6.9)

공군은 9일 공군회관에서 공군참모총장주관으로 2016 민·관·군 항공안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선진화된 항공안전시스템을 갖춘 공군항공안전단(항안단)은 공군 조종사뿐만 아니라 육·해군 및 국민안전처, 산림청, 경찰청, 민간항공사 등이 입과 하는 연간 68개 차수의 안전전문 교육 과정을 운용, 매년 1,8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공군참모총장 6·25참전 한국 공군 조종사 초청행사

(2016.6.24)



제37회 Space Challenge 2015 본선대회 개최

(2015.9.19)



대표학생과 교장,贵宾들과 모형항공기 날리는 장면

공사 심포지엄 개최

(2015.10.27)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가안보’를 주제로 공사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NEWS

성무인 가을 축제

(2015.10.30)



INTERNATIONAL WEEK

(2015.10.31)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국제 사관생도간 우호 증진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INTERNATIONAL WEEK가 진행되었다.



NEWS

제48대 공사교장 이·취임식 ; 이건완 중장 취임, 박재복 중장 이임

(2015.11.3)



전국 시·도 교육감 방문

(2015.12.22)



68기 입학식

(2016. 2.19)



NEWS

64기 졸업식

(2016.2.25)



공사 생도, 16-1차 6일간 해외 장거리 항법훈련

(2016.5.31-6.5)

공사 4학년 생도 75명은 6일 동안 C-130J 수송기를 타고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거쳐 하와이 태평양양사령부까지 다녀오는 16-1차 해외 항법 훈련을 실시했다. 해외항법 훈련은 공사 생도들이 실제 항공기를 타고 장거리 항법 체험을 진행하며, 공군 항공작전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리더로서 갖춰야 할 안목과 자질을 기르는 훈련이다.



총동창회 정기총회

(2015.6.25)

제23차년도 공사총동창회 출범



제23차년도 이사회 및 간담회

(2015.7.23)

이사회 (15~43기 임원)



이사회를 마치고 29~43기
이사들과 평생회비 모금을 위한
간담회



NEWS

자문위원 간담회

(2015.9.2)

5~22기 역대회장 및 사무총장과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



임원 간담회

15~22기 선배기수 임원진과 성
남체력단련장(2015.9.16)에서,
24~30기 임원진과 수원체력단
련장(2015.9.23)에서 운동과 만
찬을 하며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 실시



NEWS

순조회 초청 위로행사

(2015.10.17)

이계훈 회장이 순조회 회원 18명을 초대해 대학로「유니플렉스」극장에서 연극 관람 후 만찬을 하고, 박이철 작가의「청소부가 된 어린왕자」책자, 기념타올, 호두과자 선물세트 등을 증정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참관

(2015.10.22)



NEWS

성무인 가을축제



(2015.10.30)

생도 방송장비와 모교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생도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면서 지난 생
도시절을 회고



친선 바둑대회

(2015.11.4)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 및 시상범위 확대로 참가자 만족도 증진



개인전 우승: A조 김종남 (5기), B조 김성규 (8기), C조 강영진 (8기)
D조 이부용 (12기), E조 최승관 (28기), F조 김수원 (24기)
단체전 우승: A조 김재윤 (4기), B조 이원천 (5기), C조 이규형 (11기)
A조 김상곤 (5기), B조 조희열 (9기), C조 신동열 (14기)
D조 명영남 (11기), E조 정윤태 (18기), F조 차선규 (17기)
D조 박진재 (14기), E조 김종식 (18기), F조 이웅상 (24기)

NEWS

제64기 생도 졸업 격려 방문 및 특강

(2016.1.25)

이계훈 회장이 제64기 졸업생도 163명에게 향후 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체유심조」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하고 졸업 선물로 휴대폰 보조배터리 증정



부대 및 방산업체 방문

(2015.7.7)

공군본부 예방



공군사관학교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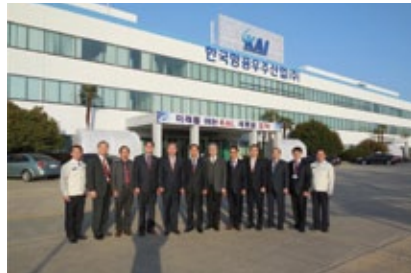
NEWS

(2016.3.22)

군수사, 공중전투사, 11전비를 방문하여 영공방위에 매진하는 지휘관 참모 노고치하 및 격려



(2016.3.22) 한국항공우주산업 (주)(KAI) 방문 및 견학



(2016.3.23) 제3훈련비행단 방문

61~63기 조종학생 장교 간담회 및 격려



NEWS

(2016.3.23)
교육사 방문



(2016.4.8)
작전사령부, 기동정찰사
령부, 방공유도탄사령부,
방공관제사령부 방문



총동창회 등산대회

(2016.4.20)
서울대공원에서 4~27기 총 270명의 동문이 참가하여 화합과 우애를 과시하면서 즐거운 시
간을 가졌다.



NEWS

졸업 및 임관 기념행사

(2016.5.21)

졸업 및 임관 50,40,30,20,10주년 동문(14,24,34,44,54기) 및 가족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특히 금년도에는 총동창회가 사관학교와 협조하여 24기의 임관 40주년 행사를 추가 포함하여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고 44기는 능률한 모습으로 단체분열에 참가하여 많은 갈채를 받았다.

14기 동문의 열병



생도 분열



44기 동문의 분열



NEWS

14기 동문



24기 동문



34기 동문



NEWS

44기 동문



54기 동문



하늘사랑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

(2016.6.15)



공사총동창회 정기총회

(2016.6.22)

공사 총동창회는 22일 공군회관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주요업무 및 결산보고와 '자랑스러운 공사인' 시상 후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제24차년도 회장으로선 박종헌 전 참모총장이 선임되었고 24기 사관이 총동창회 운영을 맡게 됨으로써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제24차년도 총동창회 운영임원

회장 박종헌

부회장 황원동(선임) 경인수 김득환 김상철 김영조 김영한 김익경 김태열 나용곤 나재남 박상묵 박승락 변현태 백영남 설종일 안인규 오연균 유지왕 이기용 이영종 이용길 이월중 이윤상 이재강 이태공 이해청 임호순 전복진 정남주 정진도 정필훈 조진경 주신호 천두봉 최재호 최재희 홍순화

감사 김동진 김수원

사무총장 이남진

후원 공사 24기 사관 일동

NEWS

‘자랑스러운 공사인’ 시상

(2016.6.22)



류홍규 (25기)

공사 25기로 졸업 후 전투조종사로 공군과 합참 그리고 전역 후에도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기업 등에서 군과 방산분야 발전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는 국내외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장애인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원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해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선행을 몸소 실천하여 공사인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다.



김진웅 (47기)

공사 47기로 졸업 후 전투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일본 방위대학교 석·박사과정에 유학하게 되었으며 외국군 학생 신분으로 어학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 방위대학교 최초로 석사 및 박사 과정 연속 2회 최고 연구자상을 수상하고, 이·공계 최 단기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탁월한 학업과 연구 성과를 거두어 공군사관학교의 명예와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47기 기별활동 참조)

모범 기수상 시상

(2016.6.22)

61기사관(157명)은 임관 3년만에 전원이 평생회비를 납부(2016.1.5)하여 금년도 평생회비 납부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61기생회에 모범 기수상을 수여하였다.



4기

임관 60주년에 즈음한 4기 사관의 正體性 (회장 조봉구)

청운의 꿈을 품고 사관학교에 입교(1952년 5월 5일, 134명)한지가 어제 같았는데 어언 임관 (1956년 4월 10일, 101명)의 甲日을 맞게 되니 歲月如流란 말을 실감하며 심적 충족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회상하면 졸업 1년 전 12명이 미 군사원조계획에 의거 도미, 2년간의 조종교육 끝에 영예로운 미 공군 조종훈장을 받았으나 그 중 2명은 훈련 도중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했다.

이런 난고를 걸어오면서 4기생(四鵬)회 운영의 기본 틀을 산악회(5개) 중심의 기풍조성으로 소통과 협의로 담론을 종합하는 것을 기강으로 삼았으며, 또 四鵬회관을 개관하여 만남의 전당이자 우정의 본산으로 꾸며 결속과 화목의 터전을 마련함과 더불어 서로 간의 위상을 다듬어 왔다. 본 회의 지향목표로 신의와 존경을 핵심가치로 하고 언행일치, 표리일체, 시종일관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하여, 합리성이 지배하고 법과 원칙이 존중되며 상식과 양식이 통하는 조직문화 창달을 위해 양심과 권위가 엄존하는 우정의 울타리를 넓혀가며 시대정신에 걸맞은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공군사관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면서 常理常度を 계명으로 하여 소통, 신뢰, 협력 등을 자산으로 키워 대화, 타협, 조정 등의 방법으로 화합과 상생의 정신을 드높이 함양해 나갈 것이다. 임관 갑일을 기념하는 화두로 물의 철학(노자의 도덕경)을 선택하여 여생의 길잡이로 정했다. 노자는 인생을 上善若水라 했으며 즉 바람직한 인생은 물의 원리대로 살라는 뜻이다. 물은 유연성이 좋아 어떤 그릇에도 담을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모든 파란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을 뜻하며, 물은 막강한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 경제적 능력, 생물학적 능력에 해당된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특성은 몸을 낮추는 겸손을 표하며 더러운 것을 수용하여 정화하는 기능은 반대자를 찬성자로 만드는 포용력이다. 어떤 생명체도 물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가정이나 사회(국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의미다.

그 밖에 물이 갖는 덕목으로 흐름이 막히면 저항하지 않고 돌아가는 지혜를 보인다.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돌아가는 지혜를 보인다.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순리로 풀라는 뜻이다. 물이 멈추어 수평을 유지하는 것은 공명정대함의 표시이며 바르고 정직하게 살라는 교훈이다. 낙수천공(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낸다는 것)은 인생의 끈기와 인내를 표시하며 겁 없이 내려치는 폭포는 험한 세파에 도전하는 개척정신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상징한다. 물은 모여서 시내나 강이 되어 바다에 도달하는 즉시 융합되고 만다. 국가와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대의정신에 비유된다.

NEWS

남은여생을 물처럼 살기를 바라며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라는 결의이기도 하다. 이제 연말을 기해 공식조직의 굴레를 벗을 때가 온 것이라 생각해 본다. 끝으로 총동창회(회장 이계훈)에서 베풀어준 각별한 배려(기념품 및 축하금)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6기

이윤우 동문이 2012년(77세)에 시인과 화가로 등단하여 시화집 제1집을 2013년에 제2집, 2016년에는 제3집을 발간하는 등 취미생활을 겸한 작품활동을 하여 동기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7기 칠성회

‘예바원’에서 우리 모두 함께

나이 먹어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인가? 갈 곳이 없는 외로움이라고 한다. 그래서 혹 어떤 이는 사람들 모이는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래 전부터 동기생(공사 7기사관) 십여 명이 모이는 곳이 있다. 바로 ‘예바원’이라는 모임인데 이 이름은 ‘예수 바로 알기를 원하는 친구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지어졌다.

이 모임은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동기생 한 명이 사무실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는데 그 곳에서 자주 만나 세상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주제를 가지고 정기적인 모임으로 하자고 한 것이 어느덧 오늘까지 30년 가까이 만나고 있다. 그리고 보니 만나는 동기생들이 전부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 성경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야기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다.

80을 넘긴 나이에 자기 삶을 돌아보고 나누며, 새로운 것을 그려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참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순수한 어린 아이 같은 모임이다.

NEWS

16기

이재기 동문 대한민국아카데미미술대전 입상(2015.7.28)

이재기 동문이 7월 (사)대한민국아카데미미술협회가 주관한 제13회 대한민국아카데미미술 대전에서 당당히 입상했다. 이재기 동문은 굴곡진 인간의 삶을 수산시장 좌판 위 새우등에 비유한 유화작품인 '가락시장-새우'로 특별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 작품은 새우라는 독특한 소재를 이용해 인생을 반추한 뛰어난 작품성으로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 동문은 9월 3일 서울시립 경희궁미술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아카데미미술대전 시상식에서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군인으로서 국민의 정서를 달래고 예술적 함양을 고취하는 작품으로 또 다른 봉사를 하고 싶다. 앞으로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7기

송대성 동문 동정



국제정치, 국가안보 분야 전문가인 송대성 박사는 대한민국 민간 최고 싱크탱크인 세종 연구소에서 19년간 근무 중 6년간 연구소장직을 마지막으로 소임을 다하고 건국대학교 정외과 초빙교수로 부임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송대성 동문은 공군사관학교 및 군 위탁 민간대학교육을 통해 공부한 학문적 경험과 군 정보기관에서 겪은 현실성 있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북한실체 및 한반도 안보상황을 신문기고, 방송해설, 논문발표와 강연 등을 통해 국내·외에 객관성 있고 설득력이 있게 전파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애국심 및 안보 의식 고취와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청춘을 함께한 동기들과 천렵을 하면서
즐거워 한때를 보내다

20기 골프회

20기사관은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에너지 충전을 위한 ‘靑翊會’ 친목골프 모임과 정기산행을 실시하고 있다. 매월 운영하는 기존의 동우회 골프는 지역별로 운영된다. 재경 및 중부지역 동기들이 다함께 참가할 수 있는 모임은 반기별로 1박2일 일정으로 추가 실



시하며 5월에는 서산에서 24명이 골프모임에 참가하여 뜻 깊은 자리를 함께 했다. ‘청익회’ 정기산행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동기 위주로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각종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기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부인도 함께 참여하여 만남을 통한 가족과 동기들의 화합과 단결을 더욱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21기

2015년 3월 1일부 과산의 중원대학교 항공대학 학장으로 승진한 “이호일”동기가 2015년도 4차 “여명(21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여명회’동기들을 1박2일(15.8.19~8.20) 일정으로 초청하였다. 첫날은 중원대학교를 견학한 후 골프와 테니스를 하고 만찬을 하면서 동기생간의 우애를 다졌다. 다음 날은 사계절이 아름답다는 “산막이 옛길”을 산책하고 이어서 하태용 동기의 초대로 공기 좋고 물 맑은 과산마을을 방문하여 오찬을 하면서 親睦과 和음을 다짐하였다.



22기

박영욱 동문 공군사관학교 명예졸업장 수여



박영욱 동문이 2016년 5월 10일 공군사관학교 명예졸업장을 공군사관학교 교장(이건완 중장)으로부터 수여받았다.

이 자리에는 22기 동기회장과 공사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30여명의 동기 및 가족과 선후배들이 참석하여 축하해주었다.

박영욱 동문은 3년 4개월 동안의 재학기간 동안 배운 지식과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항공 재직 시 F-5E/F '제공호'조립생산에 5년간 직접 참여하여 공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하였다.

이후 국내 항공 산업의 미개척 분야였던 치공구 사업분야에 과감히 도전하여 현재 항공 산업 분야 중견기업인 한국치공구공업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KT-1, T-50 조립생산을 위한 치공구, T-50 엔진 장.탈착용 트레일러 개발 등 국산 군용기를 비롯한 각종 항공기 부품 조립 및 정비에 필요한 치공구를 개발 납품하였다. 그리고 '나로호'발사 시 1단 및 2단 로켓을 정밀하게 조립하는데 요구되는 장비를 개발 납품하여 우주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K-2 전차의 포탄자동장전장치, 천궁(M-SAM) 레이더의 주요 구조물들을 개발 납품함으로써 지상전력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박 동문은 동기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공사총동창회 성무지 발간 시 협찬을 계속 하였고, 특히 이번 명예졸업장 수여식 때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공군사관학교에 기부하여 자리를 더욱 뜻 깊게 하였다.

24기

24기 동문은 다수가 KOICA 해외봉사단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유영홍 김완창 동문은 2016년 초에 남미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에 파견되어 정부의 건설, 교통 및 주택부에서 일하고 있다. 유영홍 동문은 물류분야를, 김완창 동문은 항공분야에서 정책자문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NEWS

볼리비아의 물류분야가 태평양, 대서양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항공분야가 남아메리카 대륙에서의 항공허브화의 초석을 다지는데 조금이나마 보람을 얻는다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원봉 동문은 2013년 10월부터 남미 파라과이에서 부인(송진영)



과 같이 파견되어 사진 봉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학교와 일반 가정, 국가적, 국제적 행사에 참석하여 사진을 찍어 Facebook에 올려주기도 하고, 결혼, 미사, 성년식 사진 같은 중요한 사진들은 USB같은 메모리에 담아 주는 봉사를 하고 있다. 이곳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하여 민간외교사절로서 작은 일이지만 보람을 느끼며 바쁘게 생활 하고 있다. 전병욱 동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전공분야인 전산분야 봉사활동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손동주 동문은 지난 2015년 1월초에 케냐의 항공분야 자문을 위하여 한국 국제협력단 자문관으로 케냐 공항청에 근무하였고 15개월 동안의 성공적인 임무를 마치고 지난 4월 10일 귀국하였다.

손동문은 공항청에 근무하면서 케냐 공항청 산하의 10여개 공항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 케냐 한국대사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한국과 관련된 케냐 공항청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였다.

26기

성일환 동문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임(2016.3.27)



성일환 사장은 취임사에서 “안전과 보안 등 공항의 핵심기능이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으며 승객들이나 항공기가 우리 공항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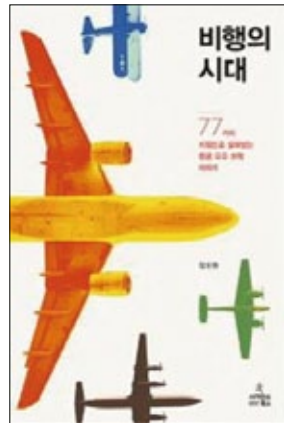
28기

공군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하태직 교수(표준화 평가과 시뮬레이터 비행교수) 항공조종 실무서 'Flight Master Guidebook'을 발간했다. 베테랑 조종사 출신인 하 교수가 방대한 전문자료를 바탕으로 4년에 걸쳐 완성한 이 책은 모든 조종사들을 위한 실무지침서로서 실제 비행준비 과정을 최대한 반영해 단계별로 구성했다.



30기

장조원의 '비행의, 비행에 의한, 비행을 위한 책'



항공우주공학자 장조원 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겸 공사 명예교수가 낸 신간 '비행의 시대'는 비행기와 항공과학에 관한 것을 총망라해서 지난 6월12일 출간 했다. 장 교수는 항공 우주 분야 키워드 77개를 통해 인류가 어떻게 하늘을 바꿔 왔는지를 탐구한다.

1부 '비행의 시대를 만든 11개의 사건'에서는 생체 모방에서 탄생한 비행기, 제2차 세계대전과 공군의 등장, 세계 최초의 후퇴익 항공기의 등장 등 흥미로운 사건들이 등장한다. 2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비행기 11대'도 흥미를 돋우기는 마찬가지. 비행기 개발의 원동력이었던 글라이더,

하늘을 나는 기차로 불린 DC-3 여객기, 세계 최초의 실용

제트 전투기 Me 262, 첫 초음속 제트 여객기 콩코드, 하늘의 지배자 스텔스 F-22 전투기는 물론 우주 여행이 가능한 화이트나이트까지 거론된다. 3, 4, 5부에서는 비행의 과학적 원리로 관심을 돌려 '비행기를 지배하는 11개의 자연법칙'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항공과학 11대 비밀"알수록 재미있는 비행 시 발생 현상 11개"를 소개한다. 6, 7부에서는 비행기 대신 사람이 주인공이다. 6부 '비행의 시대를 만든 사람들'에서는 비행체를 고안한 천재 과학자 레오 나르도 다빈치부터 비행 현상의 근본법칙을 알아낸 아이작 뉴턴을 거쳐 냉전시대 우주 경쟁의 맞수 폰 브라운과 코롤로프 등이 등장한다. 7부 질 베른과 생텍쥐페리, 최초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한 찰스 린드버그 등 '비행의 시대를 사랑한 사람들'을 소개한다.

32기

空士 현역 공군대령·교수, 세계 인명사전 등재(2015.8.31)



최재동 동기가 세계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6년판에 등재되었다. 최 대령은 '마르퀴즈 후즈 후 인 사이언스 앤드 엔지니어링(Marquis 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에 이름이 올라간다. 최 대령은 2004년 과학 분야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고 같은 해 신지식인·정보화 부문에서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됐다.

37기

순직조종사 故 김주일(37기) 소령 父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000만원 기부



임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공사 37기 故 김주일 소령의 부친 김낙환(76세) 씨가 2015년 7월 16일(목) 공군 순직 조종사 유자녀를 위해 조성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김 씨는 아들이 사고로 순직했던 지난 1994년 국가로부터 받은 조의금 1,000만원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되길 바라며 공사 37기

동기생회에 선뜻 기부했다. 37기 동기생회는 김 씨의 송고한 뜻을 이어받아 기부금을 순직한 37기 동기생들의 유자녀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정기예금에 예치했으며, 20여 년이 지나 예치금이 2,000만 원이 됐다. 김 씨는 원금 1,000만원을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하였고 37기 동기생회도 이자금 1,600만원을 순직조종사 유자녀들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46기

한 부대 부부 대대장, 15비 고일권 중령 임주미(학사110기) 소령

지난 5월 16일,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함께 근무하는 부부 대대장, 고일권 중령(항공기 정비대대장)과 임주미 소령(복지 대대장)이 바로 그들이다. 같은 군인이자 지휘관으

NEWS

로서, 그리고 부부로서 최고의 동반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꽃보다 아름다운 전우애와 부부애다.

고 중령과 임 소령 부부는 지난해 첫 대대장 보임과 동시에 15비에서 함께 근무하게 됐다. 최근 상시 동일근무 제도를 통해 부부 군인이 한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지만, 부부가 모두 지휘관으로서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임 소령은 함께 “생활하게 된 이후로 서로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게 됐으며 특히 초등학생 딸이 아빠와 함께 살게 된 것을 정말 좋아한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12월 28일에 만나서, 2008년 3월 2일에 결혼했다. 부부가 대위 중위 시절의 일이다. 교제를 시작한 지 단 3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한 것이다.



47기

김진웅 소령, 석사 이어 박사과정 ‘야마자키상’…방위대 사상 최초(2016.3.20)



일본 방위대 대학원 최우수 졸업

김진웅 소령이 일본의 자위대 정예장교 양성기관인 방위대학교에서 사상 처음으로 석·박사과정 졸업생 최우수상인 야마자키(山崎)상을 연거푸 받았다. 김 소령은 2013년 3월에는 방위대 석사과정을 마치면서 야마자키상을 받았고 이어서 2016년 3월 박사과정 졸업식에서도 가장 뛰어난 졸업생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일본 방위대에서 야마자키상을 2회 연속 수상한 학생은 김 소령이 처음이다. 일본인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을 한국인이 수립한 것이다. 방위대는 한국의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 석·박사과정을 합한 것과 같은 교육기관이다.

야마자키상은 초대 방위대 학술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인 야마자키 테이이치 씨의 업적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으로, 방위대 대학원 졸업생 가운데 학업 성적과 연구 성과가 가장 우수한 학생 1명에게 수여된다. 외국 유학생이 야마자키상을 받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만 3년 만에 석·박사과정을 모두 마친 김 소령은 방위대 대학원 이공학 과정에서 역대 최단 기간에 박사학위를 받는 기록도 세웠다.

김 소령은 레이더 안테나에 필요한 강유전체 재료인 ‘BZT 박막’을 개발해 전자공학·전자재료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토대로 김 소령은 BZT 박막을 이용해 차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위상배열안테나 소자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의 논문은 미국을 비롯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됐으며 국제학술대회에서도 발표됐다.

NEWS

방위사업청 김성환 소령, 세계인명사전에 등재(2015.10.2)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김성환 동기가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6년판(33rd Edition)에 등재가 되었다. 세계 3대 인명사전이란 미국의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와 인명정보기관(ABI) 및 영국의 국제인명센터(IBC)에서 매년 발간하는 인명록으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인 세계적 인물들이 매년 등재되고 있다.

51기



2015 탑건 선발 소감

안영환 소령은 "2015년도 최고의 전투 조종사라는 'TOP GUN' 칭호를 얻게 된 것을 무한한 영예로 생각하며, 가족, 대대원, 선후배, 친구, 지인들이 보내준 축하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하면서 "언제나 웃음과 활력을 주는 아들 석현이와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해 준 아내 이슬에게도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52기

스승의 날을 앞두고 최병욱 소령이 딸 최예서(9세)양이 다니는 대구 해서초등학교 1일 교사를 자청하여 조종사 선생님이로 깜짝 변신하여 진심이 담긴 교육으로 항공에 대한 꿈을 선물했다.



NEWS

53기

공군52전대, 2015년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 수료식

4월10일에 수료한 개발시험비행 조종사 이진욱 소령과 개발시험비행 기술사 김보경 소령은 지난 10개월 간 시험비행을 위한 414시간의 이론교육과 총 79소트의 비행훈련을 완벽히 소화했으며, 시험비행을 위한 이론평가와 과목별 발표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 중에는 미 해군 시험비행 학교와 상호교류를 통해 FA-18, C-12, T-6B 항공기 비행은 물론 미 해군 시험비행 조종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올해 6월부터 7개월간 캐나다 국제시험비행학교(ITPS 온타리오)에서 항공전자장비에 관한 보수교육을 통해 시험비행요원에게 필요한 전문기량도 향상시켰다. 두 명의 동기들은 앞으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시제기가 출시되는 2022년에 시험비행을 주도적으로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T-50 앞에서 이진욱(왼쪽) 소령과 기술사 김보경 소령

63기

공무원 홍보 공모 대상 수상

최우수상 공군 이민석 중위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 공군51항공통제비행전대에 근무하는 이민석 중위가 인사혁신처에서 주최한 '공무원 현장 대국민 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중위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라는 작품으로 "세련되고 높은 작품성이 있다"는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



으며, 27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당당히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중위는 공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지친 동기들을 격려하고자 영상동아리 활동을 시작했고, 지난 2014년 국방부 청소년 나라 사랑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제1회 공군역사 UCC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64기

성무 보라매상 수상 소감



홍용석 소위(64기)

홍용석 소위는 먼저 “함께 생활했던 훈육요원, 교수요원, 그리고 사랑하는 동기들 덕분에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었으며 성무보라매상은 종합성적을 중심으로 산출하는 다른 졸업 포상과는 달리 훈육요원의 추천과 동기들의 지지를 받아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4년 간 사관생도로 생활하며 해왔던 생각과 행동이 헛되지 않았구나 생각되어 매우 기쁘고 나에게 다른 상보다도 더 특별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LA 동문 소식



공사동창회 LA지회 정기모임



캘리포니아 하원의원(Young Kim)

LA지역에 거주하는 공사 동문 8명(1기 이경철/2기 정병철, 최장용/4기 온성철, 홍연용/5기 서응석/11기 남희수, 최권묵)과 고 김낙규(1기), 송태익(3기)전우의 사모님 두 분과 함께 6.23(목) 정기모임을 가졌다.

24일(금)에는 공군전우회가 주관한 66주년 6.25참전 공군전우 보은행사에 동문 9명(1기 이경철/2기 정병철, 최장용/3기 박병양/4기 온성철, 홍연용/5기 김동석, 서응석, 최병용)과 고 김낙규(1기), 송태익(3기)전우의 사모님 두 분께서 참석 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몬트레이에 거주하는 이경철(1기 참전무스탕34회 출격)전우가 안보의 중요성과 과거 공군의 활약상(첫 출격 소감, 비행훈련DVD)을 후배 공군전우들에게 들려주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NEWS

대한항공 공사 동문회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 기부



대한항공 재직 공군사관학교 동문회는 12월 8일(화) 공군 순직 조종사 유자녀를 돕기 위해 조성된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공군회관에서 열린 대한항공 재직 공사 동문 총회에서 유충렬 동문회장(공사 33기)은 원인철 공군참모차장에게 회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장학기금 1,000만원을

을 전달했으며, 원 차장은 동문회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유충렬 동문회장은 “빨간 마후라를 목에 걸고 대한민국 영공방위 일선에서 최선을 다했던 지난날들은 우리 가슴에 최고의 훈장으로 남아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산화한 순직 조종사의 유자녀를 돕는 일이야말로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이 임 사



이계훈
이임 총동창회장

존경하옵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저희 23기가 명예와 전통에 빛나는 공사 총동창회 운영을 맡은 지가 엇그제 같은 데 벌써 1년이 지나 24기에게 인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각 기생회 임원 및 회원과 가족분들께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취임사에서 최고가 아니면 최선을 다해 「신바람 나는 동창회, 보탬이 되는 동창회, 자랑스러운 동창회」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보람과 아쉬움이 남는 1년이었습니다.

보람된 일은 여러 회원 동문님들과 가족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어 모든 행사를 성황리에 끝낼 수 있었다는 점과 조직운영에는 무엇보다도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많은 회원님께서 평생회비를 납부해 주시어 우리가 미래를 열어 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총동창회 살림이 넉넉지 못해 많은 지원을 해드리지 못한 점과 현역 후배들에 대한 홍보와 격려를 더 많이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보람과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지만 우리가 공사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서 스스로가 매우 자랑스러웠으며,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존경하옵는 공사 총동창회 회원 및 가족 여러분!

「추억은 기억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23기는 기쁘고 행복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가슴에 담고 물리나고 뒤를 이어 박종현 회장을 포함한 24기가 총동창회 운영을 맡게 됩니다.

24차년도 총동창회 임원분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철저히 준비하셨기에 잘해 내리라 믿으며 기대가 큼니다만 더욱 신바람 나는 공사 총동창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각 기생회 회장을 포함한 회원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총동창회장직을 마치면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각 기생회 임원진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동창회 운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이정옥 사무총장과 동기생, 그리고 설민진 실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회원 및 가족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우리 모교와 공군,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이임 총동창회장 이계훈

취 임 사



박종현
신임 총동창회장

존경하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희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회원님들의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24기 동기생들은 자랑스러운 모교의 총동창회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총동창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님과 선배님들, 그리고 지극한 모교 사랑으로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회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참여와 고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저희 24기 사관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총동창회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및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동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기존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모든 동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는 동시에, 시스템을 통한 여러 가지 소규모 행사를 연계·활성화하여 총동창회에 재미요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역 및 타 유관 단체들과의 유대 및 소통을 강화하고, 연계체계를 적절히 수립하여 공군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총동창회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후배 현역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많은 협조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총동창회를 훌륭하게 운영해 오신 이계훈 회장님과 23기 선배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와 웅비 24기 동기생들에게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회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회원님들의 건안하심과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신임 총동창회장 박중현

축 사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존경하옵는 역대 참모총장님을 비롯한 원로 선배님!
그리고 공사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공군 전 장병을 대표해서 2016년도 공사 총동창회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공군을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공사 총동창회와 우리 공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이임
하시는 이제훈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신임회장
으로 선출되신 박종현 총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군은 올해로 창군 6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49년 10월, L-4 연락기 20대로 창설된 우리 공군은 오늘날 F-15K, KF-16,
피스아이 등 첨단 전력을 운용하는 가운데, F-35 스텔스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비롯한 최신예 전력의 도입을 눈앞에 둔 세계적인 강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은, 지난 67년간 공군을 거쳐간 많은 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혜안과
열정, 노고가 오늘의 결실을 이룬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군에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사회 발전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공군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의 요람인 공군사관학교
의 특성화된 경쟁력 확보와 미래지향적 발전 기틀 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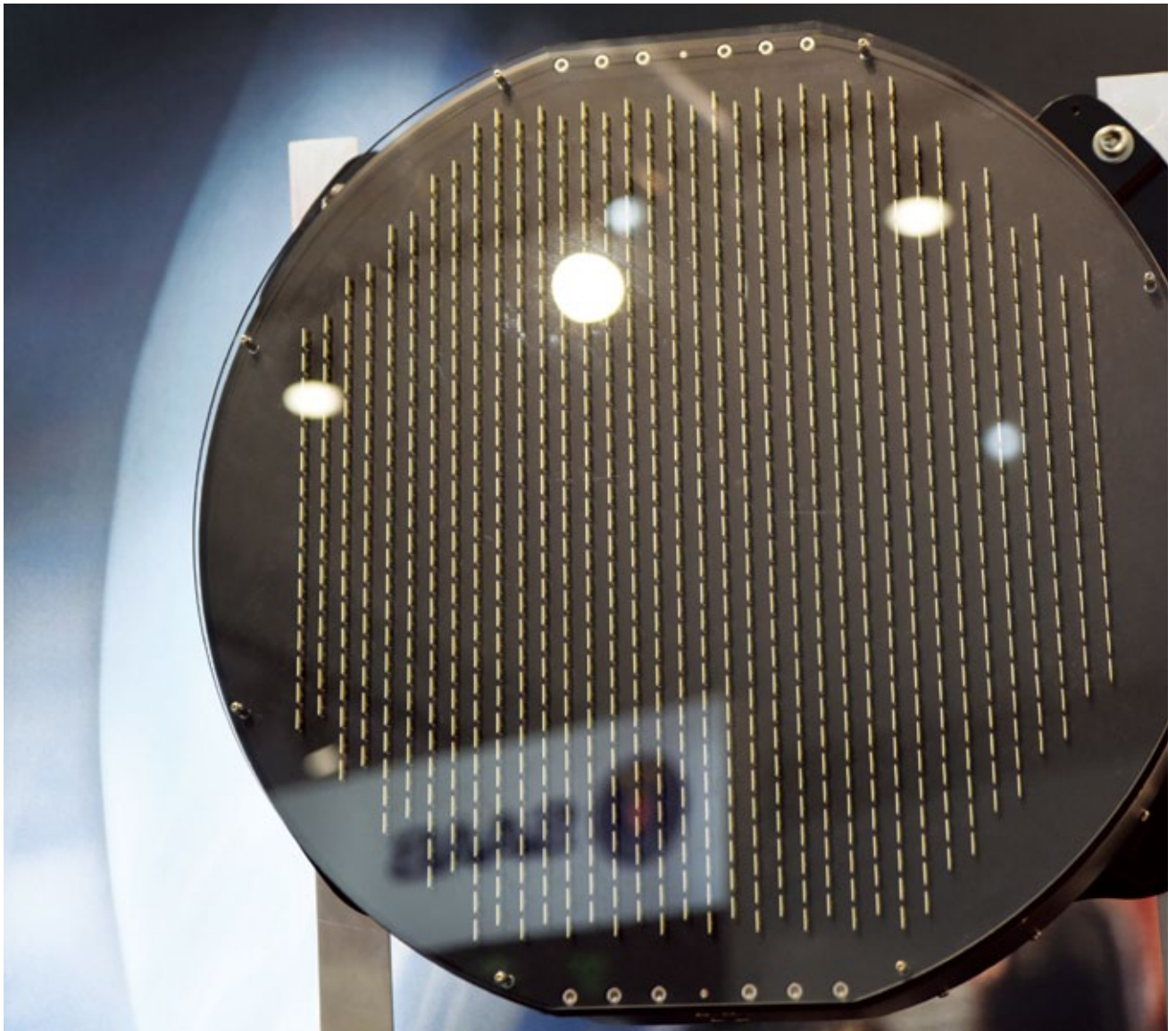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공군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사회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 위치를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며, 공군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더욱 계승·발전시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후배들은 앞으로도 공사 총동창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감은 물론, 전 장병과 군무원이 일치단결하여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는 북한의 각종 위협에 완벽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군과 공사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이임하시는 이계훈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안하심과 박종현 신임 회장님이 이끄시는 공사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2일
공군참모총장 대장 정경두



SAAB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AESA 레이더 및 전자전 체계

Saab는 첨단 레이더와 전자전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써 공중, 지상 및 해상 작전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장합니다.

파트너십은 Saab의 경영철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칙이며 한국 방위 산업과의 협력은 세계 최고의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것입니다.

www.saab.com



SAAB



한길씨앤씨주식회사는 **국방 M&S, 항공전자시스템, 교육훈련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최첨단 국방기술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신용인** (공사 337)





최고의 성능과 최저의 운용비용

KF-X에 고려되고 있는 GE F414엔진은 다양한 항공기에 장착되어 전 세계 전장에서의 운용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F-15K, FA-50 등 대한민국공군의 핵심전력에 장착되는 GE의 엔진들은 대한민국공군의 성공적인 미래 임무 수행에 핵심인 한-미 연합작전의 시너지, 최저의 정비비용 및 성능향상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Imagination at work.



기술

이 모든 요구에 신뢰로 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랫&휘트니의 힘.



준비태세



믿음



신뢰

전세계 31 개국의 군이 8,500 여 개의 프랫&휘트니 엔진을 사용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pw.utc.com 참조.



A generation ahead™

Connect with us



Pratt & Whitney
A United Technologies Company

회원 논문 및 제언

1. 북한 핵 보유와 대북 정책 | 송대성
2. 한국공군의 전략사령부 운영에 관한 연구 | 홍성표
3. 「공군 태풍예보 적중이 가져온 기상청의 기상정보 독점」 | 변희룡
4. 우리의 안전문화 고양을 위한 제언 | 윤차영
5. 한국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제언 | 권영근
6. 전역장교를 위한 실질적인 경제교육 | 신상용



°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 소견으로 총동창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護國飛天像

북한 핵 보유와 대북 정책



송대성 17기
국제정치학박사
(예)공군준장

북한 비핵화의 실패 원인

- 남북의 한반도 문제해결 방안의 극명한 차이
 - 핵무장의 강력한 군사력(북) vs 남북신뢰구축 및 국제공조의 비핵화(남)
- 북의 대남정책과 실체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
 - 북한 중심 무력 공산화 통일(북)
 - 일관성 없고 비효율적인 대북정책추진, 핵에 국민적 무관심(남)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북정책 추진

- 비핵화/비 실전배치
- 공포의 균형정책추구, 북한정권의 변화 및 제거



들어가는 말

북한은 지난 1월 6일 제4차 핵실험, 6월 22일 제6차 대륙간탄도탄 미사일(Rocket Missile) 실험을 단행했다. 본 실험들 결과 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하고 국제적 인정 여하에 관계없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북한 비핵화 실패는 대한민국이 생존 차원에서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적대국 간에 한쪽은 핵보유국이 되고 다른 한쪽은 비핵국인 경우 비핵국은 핵보유국의 인질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 그 극명한 예는 중동에서 핵보유국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 비핵국들과의 현실적인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그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핵보유국 이스라엘이 아랍 비핵국들을 상대로 “최종의 수단을 동원 하겠다.”며 은근히 핵무기로 협박하여 아랍 국가들을 전쟁 없이 굴복시킨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본 글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노력은 왜 실패를 하였으며, 대한민국은 생존 차원에서 어떠한 대북 정책들을 추진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를 논하려고 한다.

북한 비핵화 실패 원인

2016년 3월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실패한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원인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핵 보검(核寶劍)(북한) vs 남·북한 신뢰 구축(남한)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한 가장 주요한 원인은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을 두고 남·북한 간 극명한 견해차가 있다. 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강력한 군사력이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북한은 강한 군사력 보유라는 지상지고의 가치를 안고 70여 년의 남북분단사를 창출해오고 있다. 북한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국가정책 추진에 올인 하여 왔다.

그러나 남한의 역대 정부는 수번의 정권 교체에 따라 정부의 성격이 각기 다양하

“북한 비핵화의
실패 원인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고, 그 성격들이 다양한 만큼 대북 정책들도 일관성 없이 다양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오직 강한 군사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일관된 신념을 보유하고 3대에 걸쳐 “핵은 보검(寶劍)”이라는 생각 속에 줄기차게 만nan을 무릅쓰고 핵을 개발하여왔다. 남한은 “북한 핵은 문제가 없다.”는 정부에서부터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북한과는 정상적인 남북관계는 성립될 수가 없다.”는 정부까지 일관성 없는 대북 정책 및 북한 비핵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했다.

“하늘이 무너져도”(북한) vs. “국제 공조 용비어천가”(남한)

북한의 비핵화가 실패한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자세와 남한이 북한을 비핵화 시키려는 자세가 극명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유훈으로서 이어받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숙원 과제다. 김일성은 1950~53년 한국전쟁에서 무력통일을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미국의 남한 지원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미국의 남한 지원을 단절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핵무기 보유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김일성은 한국전쟁이 휴전된 후 1956년 북한의 과학자들을 구소련에 보내면서 본격적인 핵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김정일은 1990년대 초 동구 공산권들의 붕괴 도미노 현상을 보면서 “강력한 군사력이 정권을 철저히 옹호하면 절대로 정권은 붕괴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소위 ‘선군 정치(Military First Policy)’를 지상지고의 국가 경영 철학으로 선포하고 강력히 추진하였다. 강력한 군사력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은 핵무기요, 미사일이며, 생화학 무기라는 신념을 갖고 핵무기 개발에 올인 하였다. 북한은 “하늘이 무너져도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신념과 사생결단의 자세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기어코 실제적인 핵보유국이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핵 개발에 올인 하는 자세와는 달리 남한의 경우는 독자적인 대응책도 없고 일관성도 없이 막연하게 “국제 공조”, 6자 회담, “유엔 제재”, “한미 공조”, “한중 공조”등만 되뇌면서 세월을 보내왔다. 북한의 “하늘이 무너져도 포기할

수 없는 핵무기”에 남한의 “국제 공조에 의한 북한의 비핵화”는 그 구도 자체가 판정패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다.

선군 정치/병진 노선(북한) vs 통일 대박/평화 체제 구축(남한)

북한의 비핵화를 실패케 한 또 하나의 원인은 남한이 북한의 실체와 북한의 대남 정책 및 한반도 정책을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고 계속 헛발질하는 대북정책을 구사한 것이다.

북한의 정확한 실체는 (1) 지구촌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잔혹한 독재 병영국가이며 (2) 지상지고의 국가 경영 철학은 선군 정치/병진 노선이며 (3) 3대에 걸친 불변의 대남 정책은 북한 중심 한반도 공산화/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실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김일성 때는 무력으로 공산화통일, 김정일 때는 선군 정치, 김정은에 와서는 병진 노선을 지상지고(至上至高)의 국정 과제로 삼고 군사력 증강에 몰두하고 있다.

북한의 선군 정치/병진 노선의 핵심 내용은 ① 북한 군사력=한반도 통일 원천력 ② 북한 군사력=북한 체제 옹호력 ③ 북한 군사력=대남·대외 협상력이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핵무기는 군사력의 요체 중 요체이며, 북한은 “북한 핵무기=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The Magic Mallet of Goblin)”라는 개념을 보유하고 있다.

남한의 역대 정부는 북한의 정확한 실체와 북한의 대남 정책 인식에 오류를 범하면서 대북 정책에 대한 허상적인 로드맵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역대 남한정부의 대북 정책 로드맵은 (1) 남·북한 교류·협력 증대 → (2) 남·북한 신뢰 구축 → (3) 남·북한 평화 체제 구축 → (4) 남·북한 통일식의 로드맵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였다. 역대 남한 정부들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달성기 위해 일관성 없고 비실효적인 대북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했다.

우리 사회 분위기 역시 비슷했다. 북한의 객관적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

는 것은 물론 북한의 핵 보유 등에 대해 무관심했다. 일부에서는 “개성공단 운영은 남북 교류·협력의 심장”, “인도적 지원은 동족 차원에서 계속 확대해야”, “금강산 관광 조속 재개”, “5·24 대북 제재 조치 조속 철회”, “동족 갈등을 부추기는 대북 심리전 금지”등을 외치면서 북한 핵 개발에 필요한 자금 유입에 기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일부 돈줄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폐쇄를 이야기하면 ‘반통일 세력’, ‘극우보수’등으로 몰기도 했다. 이러한 우리 사회 분위기가 북한의 비핵화를 실패케 했다.

합리적인 대북 정책

북한 정권의 속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오직 북한의 핵 앞에 생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핵 보유와 관련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는 (1) 북한의 비핵화/비 실전 배치 (2)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3) 북한 정권 질적 변화 (4) 북한 정권 제거 등 4가지로 설정하여야만 한다.

북한의 비핵화/비 실전 배치

우리는 대북 정책을 오직 북한의 비핵화 혹은 비 실전 배치에 올인 하여야만 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100% 완성이 됐다면 포기하도록 하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면 완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국가 안보 전략이다.

북한을 비핵화 혹은 비 실전 배치를 하게하는 방안은 (1) 대화·협상 (2) 제재 (3) 선제공격 (4) 극비 군사작전 (5) 북한 정권 질적 변화 (6) 남북통일 (7) 북한 몸통 흔들기 등이 있을 것이다. 각 방안들은 모두 다 유용한 방안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실효성을 고려하면서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어 사생결단 북한의 비핵화/비 실전 배치를 위한 대북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공포의 균형

북한이 이미 100% 핵 개발을 완료했거나 실제 실전 배치 중이라면 대한민국은 생존 차원에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정책을 대북 정책으로서 구사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흥기를 들고 위협했을 때, 그 북한을 제압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제압할 수 없다며 그 북한이 덤벼드는 순간 엄청난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겁을 주는 것이 차선책일 것이다. 이렇듯 공포의 균형 정책은 북한이 완성한 핵무기를 절대로 남한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포를 놓는 정책이다.

공포의 균형으로서는 (1) 미국의 핵우산 남한에 환원 재배치 (2) 국제적 핵무기 대여 (3) 국제적 핵무기 구매 (4) 대한민국 자체 핵 생산/보유 등의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을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경우 동맹국 및 다른 국가들의 엄청난 반발과 갈등이 야기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국제적인 반발이나 갈등도 ‘대한민국 생존’이라는 가치 앞에서는 하위의 개념이다. 우리는 ‘생존’보다 고귀한 지상 지고의 가치는 있을 수 없음을 절감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돌파하는 대북 정책을 구사하여야만 한다.

북한 정권 질적 변화

북한 정권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면 비핵화 문제 혹은 실전 배치 문제 등은 자동 해결이 될 수 있다. 북한 정권의 질적 변화는 현 상황하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북한 정권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1) 대화 (2) 제재 (3) 극비 군사작전 (4) 북한 몸통 흔들기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북한 정권 질적 변화에 실효성이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대북 정책을 전개하여야만 한다.

북한 정권 제거

문제를 안고 있는 주체가 없어지면 그 문제는 자동 해결될 수 있다. ‘잔혹한 독재 병영국가’인 북한 체제가 없어지면 북핵 문제는 자동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 인민들은 생존할 수 있다. 국가 안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추구하는 것이다. 국가 안보는 ‘평화·안전·생존’이라는 과

제를 지상지고의 목표로 설정해 놓고 합법·비합법·평화적·비평화적 수단 등 모든 가능성 있는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사생결단의 자세로 결행하여야만 하는 국가적 근본 과제다.

결어

북한은 금년 들어서 제4차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으며, 조속한 시간 내에 그 핵무기들을 실전 배치하려고 꾸준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 및 실전 배치는 대한민국 생존차원에서 대단히 심각한 과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추구할 대북 정책으로써 사생결단하는 자세로 (1) 북한 핵 비핵화/비 실전 배치 추구 (2) 공포의 균형 (3) 북한 정권 질적 변화 (4) 북한 정권 제거 등을 추구하는 대북 정책을 구사하여야만 한다. 대한민국 생존이라는 가치는 대한민국에게 지상지고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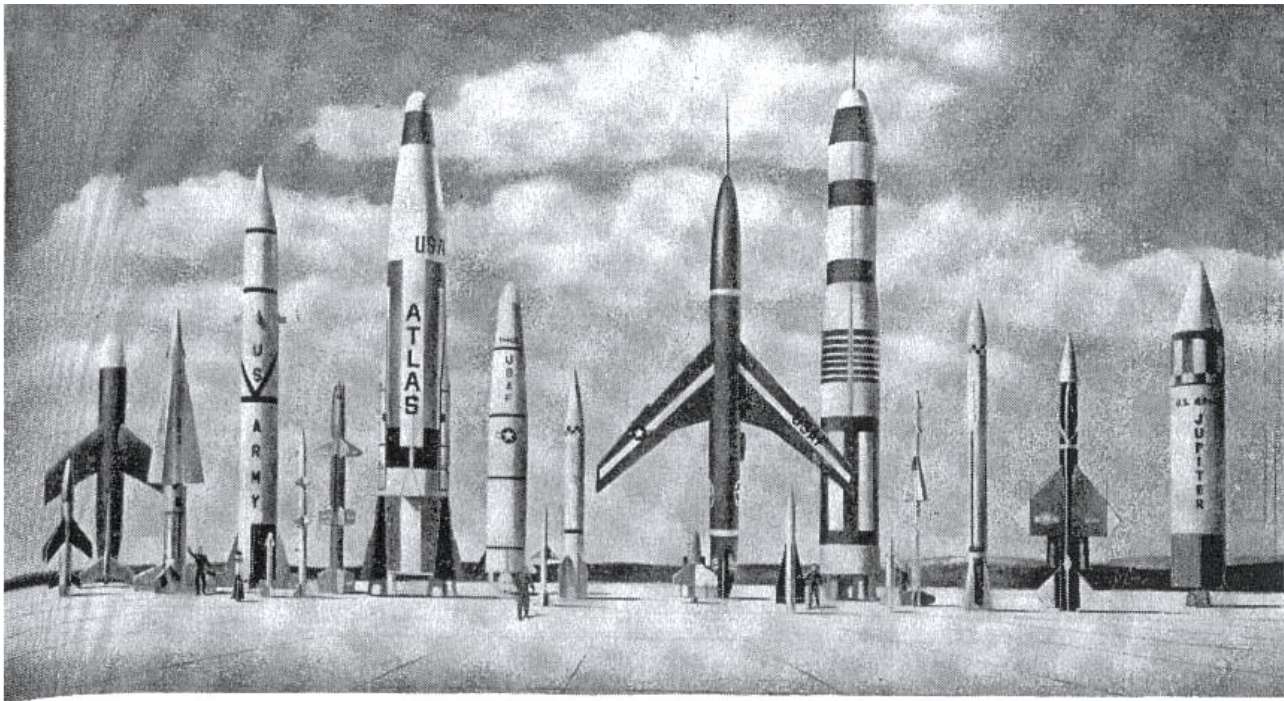


한국공군의 전략사령부 운영에 관한 연구



홍성표 26기
국제정치학 박사
현 아주대학교
NCW학과 교수

- 북한의 대남위협 증대와 대북정책의 한계
- 북, 핵과 대륙간탄도탄의 비대칭 전력의 강화
- 군 선진국의 위협 제거 전략개념 적극 검토
- 고도의 정밀유도무기의 군사작전 수립
- 전략적 선택을 위한 공군 전략사령부 창설 필요



RAYTHEON COMPANY

Scale drawing of 21 major missiles in United States arsenal shows (left to right): Lacrosse, Mace, Nike-Hercules, Redstone (large rocket behind small Falcon and Sidewinder), Terrier, Talos, Atlas, Thor, Sparrow III, Sergeant, Quail, Snark, Hawk, Titan, Bullpup, Nike-Ajax, Corporal, Bomarc, and Jupiter. The Atlas became the nation's first operational ICBM in September.

I. 서언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무수단(화성-10호) 발사로 인하여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의 논란이 뜨겁게 펼쳐졌다. 논지를 요약하면, “김정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침수 작전으로 김정은을 제거해야 한다.”, “북한의 비대칭무기들을 사용하기 전에 선제 제압해야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특수작전 부대를 창설해야 한다.”는 등등의 논리들을 다채롭게 펼치고 있다.

국가적 안보 위협 상황에서 과연 북한의 비대칭 위협들을 제거 또는 선제 제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전문가들 사이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제시된 해법들은 그리 썩 명쾌하지 못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의 대응 방안이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선뜻 “이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제시할 대안이 마땅치 않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응 전략 개념 자체에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의 군사작전 개념이 방어 중심 개념인 데다가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한다는 정책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수세적인 전략 개념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수행하고 있는 선제 제압 작전 및 침수 작전과 같은 공세적 작전 개념들을 서슴없이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군사 선진국들의 위협 제거 작전 개념들을 살펴보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우리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 개념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북한 비대칭 위협 실체

북한은 4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 기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무수단(화성-10호) 발사를 통하여 대륙간탄도탄 기술도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핵 소형화와 미사일을 결합하는 기술만

확보하면 원하는 군사 표적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겪어온 경제난을 생각하면, 주민들의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온 김정은 정권의 행태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실로 대단한 성과를 이뤄낸 것은 틀림없다. 이는 곧 우리 한국의 안보 위협이 그만큼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와 같은 비대칭 위협 증대를 놓고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해왔다. 1990년대 초부터 온갖 회유와 압박을 지속해왔지만 김씨 정권은 공갈과 협박을 일삼으며 핵 포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크나큰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6차례에 걸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4차 핵실험에 대하여는 한층 더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하였지만 그 성과는 미약했다. 북한이 워낙 고립된 나라이다 보니 그만큼 외부의 영향도 크게 받지 않는다. 또 김일성 일가 3대에 걸친 씨족 통치 압제에 시달리다 보니 주민들이 웬만하면 그저 참고 인내하며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니 외부에서 그 내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실로 어렵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가 그다지 팔목할 만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실험과는 별개로, 국제 인권 단체들은 앞 다투어 북한정권의 압제와 인권 유린 상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은을 권좌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도 많은 이들이 이제 북한의 비대칭 위협들을 제거하고 주민들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을 축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요지의 주장들을 피력하고 있다.

III. 군사 선진국들의 위협 제거 전략 개념

미국을 비롯한 군사선진국들은 사담 후세인과 무함마드 카다피와 같은 압제자와



이슬람국가(Islam State: IS)의 테러조직 책임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참수 작전을 수행해왔다. 참수 작전은 법규와 국제 규범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국제범죄 주모지들을 무력 수단으로 제거하는 군사작전을 의미한다. 최근에 수행한 IS 테러 조직의 지하드 존(Mohammed Emwazi) 참수 작전이 좋은 사례이다. 이 작전을 간략히 살펴보면, 2015년 11월 12일, 지하드 존은 시리아 북부 도시 '라카'의 시계탑 광장에서 차에 타려는 순간 미국의 리퍼 드론에서 발사한 유도폭탄을 맞고 가루가 되었다. 라카 광장은 IS 테러 조직이 많은 무고한 인질들을 무참하게 참수한 바로 그 자리였다.

이 작전을 위해 미 공군은 네바다의 크리치 공군기지에서 무인기 MQ-9 리퍼를 출격시켜 7,270여 마일 떨어진 라카의 도심 한복판에서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하여 테러범 지하드 존을 정확하게 폭격하여 제거하였다. 지구 반대편에서 조이스틱으로 무인기를 조종하여 표적을 정확하게 파괴시킨 참수 작전이었다.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던 10여 년 전의 이라크 전 때만 해도 이처럼 정밀한 참수 작전은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이제 첨단 무인기와 정밀 유도폭탄을 이용하여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선정된 군사 표적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파괴, 무력화시키는 고도의 정밀 유도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보다 3일 후인 12월 2일, 영국 공군은 시리아에 있는 IS 본부 건물을 6일 동안 무인기 리퍼를 투입하여 폭격함으로써 완파시켰다.¹ 이에 앞서 영국은 이라크에 있는 테러 조직 시설들도 무인기로 폭격하여 효과적으로 파괴시켰다. 이처럼 군사 선진국들은 첨단 무인기들을 이용하여 테러 조직들의 본거지를 파괴하고 테러 조직원들을 제거하는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1 'Britain takes the fight to ISIS ahead of Syria vote: Moment RAF drone destroys a terrorist safehouse during one of 13 deadly British missile strikes in the past six days,' in Daily Mail, 2 Dec 2015. Read more: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3342966/Britain-takes-fight-ISIS-ahead-Syria-vote-Moment-RAF-drone-destroys-terrorist-safehouse-one-13-deadly-British-missile-strikes-past-six-days.html#ixzz41036FjzA>.

IV. 한국의 대응 전략 개념 및 대안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은 사실은 그리 쉽지 않다. 북한사회가 워낙 통제된 사회이다 보니 한민족이라고는 하지만 분단 70여 년 동안 너무도 이질적인 정치 문화 속에서 살았다. 그렇다 보니 남북한 사람들의 정서와 의식구조도 판이하게 달라져 있어 특수부대 요원들이 침투하기도 쉽지 않고 지상에서의 군사작전을 수행하기도 매우 어렵다. 다행인 것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 표적들에 대한 분석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 우리가 결심만 하면 첨단 무기 장비를 이용하여 파괴 및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 중에는 핵무기 앞에 재래식 무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재래식 무기가 마치 무용지물인 양 간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1981년 6월, 전투폭격기로 구성된 공격 편대군을 출격시켜 선제기습공격으로 사담 후세인이 바그다드 인근에 건설했던 ‘오시락’원자로를 폭파시켰다. 재래식 전력으로 핵 위협을 선제 제압한 것이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 같은 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 표적이 핵무기를 포함한 비대칭 전력이든지, 아니면 김정은 참수든지 국가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전략적 군사표적을 성공적으로 파괴,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외교정책은 국가 지도부의 다양하고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거부 및 무시되어 왔다. 북한 정권은 오히려 이 같은 선의의 정책을 악용하여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였다. 이제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 중에서 김정은 참수 작전을 수행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과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악행을 지속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사담 후세인이나 카다피처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악한 독재 정권으로 보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북핵 및 비대칭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김정은 정권을 권좌에서 축출 내지는 제거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 위협 제거를 위해 킬 체인에 특수전 부대를 운운하며 주로 작전적 수준의 대응책 마련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작전적 수준의 대응책은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핵 포기는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김정은 참수와 같은 결정적인 군사작전을 통하여 김정은을 권좌로부터 제거해야 한다. 한국의 첨단 군사력으로 이 같은 군사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또 보장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과 훈련을 평시에 갖춰두어야 한다.

V. 공군 전략사령부 창설 필요성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한국공군 전략사령부의 창설이다. 김정권의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을 포함하여 비대칭 위협 무력화를 위한 전략적 기밀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 선진국들처럼 이를 전담할 전략사령부를 설치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는 1992년부터 네브라스카의 오폿 공군기지에 전략사령부를 설치하여 전략적 수준의 군사작전들을 전담하게 했다. 미 전략사령부는 군사위성을 운용하는 우주 작전, 정보전, 미사일 방어, 글로벌 지휘 통제 정보 감시정찰(C4ISR), 글로벌 타격 및 전략적 핵 억제 전략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대응 작전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임무는 전면전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요구되는 전략적 수준의 군사작전이므로 이러한 임무에 숙달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전략사령부에서 작전의 기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비대칭 위협이
상존하는 한
한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군사선진국의
위협제거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경우는 전략 환경이 미국과는 많이 다르지만, 60만 대군을 운용하고 있는 군사강국으로서 평소에 전략적 수준의 군사작전만을 총괄하여 전담하는 전략사령부를 설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략사령부는 우주 작전은 물론 북한의 비대칭 위협들을 관리, 제거하고 김정은 정권의 참수 작전과 같은 전략적 수준의 군사작전들을 비밀리에 주 임무로 수행하는 부대이다. 즉, 적지 중심에 위치한 전략 표적들을 정밀유도무기들을 운용하여 정확하게 파괴,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전담하는 부대이다. 이 같은 전략 임무는 일상적인 군사 업무와는 구별하여 전문성 있게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전략사령부의 전력 구성은 군사위성을 포함하여 첨단 스텔스 전투기, 장거리 정밀 유도탄, 미사일 방어 전력, 전략 C4ISR, 사이버 전력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대응



전력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들 전력들은 각각 소속 부대에 산재해 있지만, 전략사령부의 지휘통제 하에서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다만 유도탄 전력은 중심 작전을 주도하는 공군으로 이관하여 중심 작전 전력을 통합 운용토록 해야 한다. 동일 목적의 전력을 육군과 공군이 분할 운용하는 것은 작전 효과, 비용 등 여러 면에서 불필요한 중복과 과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VI. 결론

급속도로 변화하는 21세기 안보 전략 환경 하에서 군사 선진국들은 국가 방위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결사적인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데, 이는 제한된 국방 자원 하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한국군은 이제까지의 재래식 전략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첨단 군사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그 같은 군사적 패러다임 변화야말로 창조 국방 시대의 창조적 전략 개념 창출이 아니겠는가. 북핵을 포함한 비대칭 위협들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전략적 수준의 특수 기밀 전략 임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한국공군 전략사령부의 창설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

공군 태풍 예보 적중이 가져온 기상청의 기상 정보 독점



변희룡 21기
부경대 명예교수

- 기상이 작전 성패결정
 - 공군 기상 예보적중률이 기상청 정보 독점이 됨
- 기상 정보 독점은
 - 기상 정보의 수집과 생산 기회 없애고
 - 군의 대민지원 기회, 예보기술 발표기회 원천 차단
 - 국내 예보전문가 일자리 잃고 외국 예보기관만 이익 챙겨



C일보는 태풍의 예상 진로에 대해 공군기상전대와 중앙기상대의 발표를 비교하는 기사를 내곤 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공군의 예보가 우월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런 상황은 2년에 한 번 정도로 발생했는데 공군에서는 이를 ‘C일보 사건’이라 불렀다. 사건 후에 대통령이 중앙기상대장을 불러 ‘공군에 가서 한 수 배우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있었다. ‘중앙기상대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극언을 한 대통령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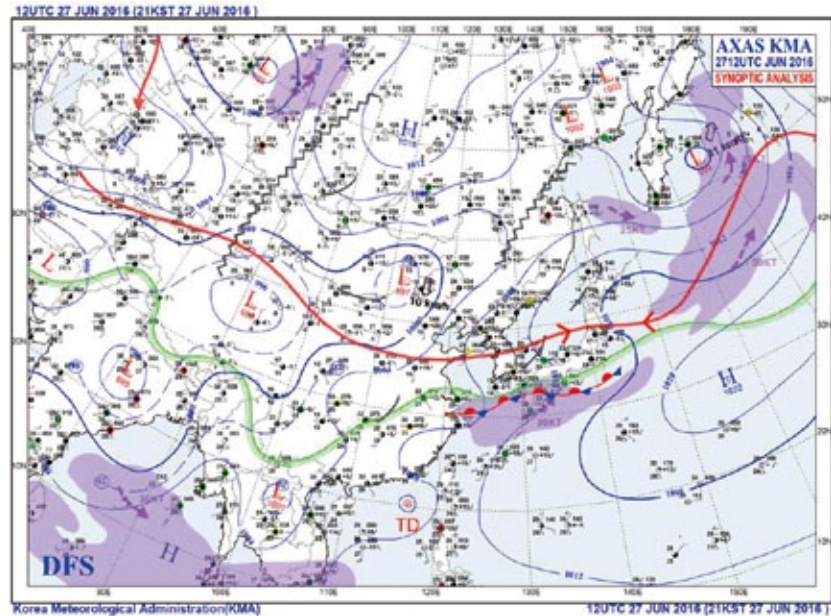
인력과 장비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군이 더 좋은 예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모든 단체 행사를 할 때 기상 브리핑부터 시작하는 공군의 오랜 관습 때문일 것이다. 예보가 틀린 뒤 다음 행사에 브리핑을 하러 나서는 기상대장의 마음은 무척 무겁다. 대중 앞에서 웃음을 팔아야 하는 무거운 마음이 예보에 집중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했으리라.

조종사들과의 잦은 소통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조종사들은 날씨에 민감하다. 그래서 일기도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하는 예보를 모두 비교하는 경우가 잦다. 비교한 뒤 하늘에 올라가서 날씨를 직접 관찰하고 결과를 piprep으로 기상대에 알려 준다. ‘커피 내기할까?’하는 전투비행단의 작전장교와 기상대장 사이의 ‘잔인한 농담’은 그래서 생겼다. 작전장교는 그 지역에서 십여 년 이상 조종사 생활을 한 사람이다. 기상학적 지식은 조금 모자라지만 예보 감각은 예민해서 내기에서 기상대장이 진 사례도 없지 않았다.

태풍 외에 안개 예보에서도 공군기상대는 인기가 좋았다. 지금도 공군기상대의 예보를 더 신임하는 민항기 조종사가 많고, 전역 후에도 공군예보만 찾는 공군 장병 출신 인사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공군기상예보가 성장함에 따라 중앙기상대의 경쟁심이 필요 이상으로 커졌던 모양이다. 특히 5.16 직후 중앙기상대를 공군이 장악한 시절의 기억을 가진 이들은 공군기상대에 악감정을 가지기도 했다.

전문성 갖춘
인력과 사명감이
작전성공률 높여



그런 상황에서 C일보 사건이 자주 발생했으니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1987년이다. 기상업무법이란 것이 제정되면서 ‘기상청장외의 사람은 기상예보와 특보를 할 수 없다’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법이 만들어졌다. ‘군기상대는 대민 기상지원을 하면 안 된다’, ‘민간의 기상사업자도 기상청의 발표를 그대로 중계만 해야 하며 내용을 바꾸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국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였다.

여러 가지 비판이 뒤따랐지만 법 제정은 강행되었고, 이 법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아래와 같은 많은 폐단과 후유증의 원인이 되었다.

국가는 재해 대책을 세우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렸다. 기상청이 다루는 11개의 재해 특보에 해당되더라도 산이나 강을 따라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국지적 재해들을 기상청에서 전부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뭄, 침수, 산사태, 어는 비, 토사, 동해, 냉해, 설해 등 기상특보의 생산에 규정되지 않은 재해, 아직 이름이 붙여

예편 후 우수한
예보능력 국민과
국가경제에 활용을...

지지 않은 재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재해 등이 그렇다. 이런 예보 특보에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놓은 것이다.

누군가 날씨 연구와 예보를 하다가 그 기술이 인정되면 정부로 흡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그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공군기지 주변에 재해 발생의 염려가 있어도 대민지원을 할 수 없다. 예보 기술을 연구해도 발표할 수가 없으니 기상예보를 연구하는 학자가 자꾸 줄어들었다. 사업자들도 재해를 예측하는 업무를 포기하고 기상관측기계의 중계무역에 집중했다.

이러니 국가의 기술적,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공군에서 갈고닦은 예보 기술을 사용할 곳이 없어져 예보 베테랑들의 능력이 전역과 동시에 폐기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의 수많은 기상예보기관은 마음대로 한반도에 기상예보와 특보를 발표하고 돈을 벌어간다. 결국 이 법은 외국 사업자들을 위한 법이 되고 말았다.

국가개혁위원회가 최근 30년간의 적폐를 검토하기 시작한 모양이다. 그들이 종교의 자유가 헌법의 보장 사항이듯 믿고 싶은 예보 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적폐와 후유증을 모두 해소해줄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공군기상단 장병들이 다시 옛날처럼 예보와 특보에 열정을 쏟고 대민지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변희룡 교수는 한국기상학회 명예회장, 전 한국지구관련학회연합회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의 안전 문화 고양을 위한 제언



윤차영 23기
(예)공군 준장, 전 서울
에어쇼 전시운영본부장,
현 항공대학교 교수

- 우리의 안전의식 속엔 적당, 낙관, 예외주의가 존재
- 안전문화수준과 국가의 품격은 국가 재난 시 표출
- 안전은 예방 못지않게 수습대책이 중요하며
- 국민 안전의식 교육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우리는 안전에 대한 문화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성장한 세대였다. 1950년대 초에 태어난 우리 세대는 부모로부터 들은 안전에 대한 당부는 불조심, 물 조심이 전부였다. 자동차가 마을에 오는 날은 대단한 구경거리였던 시절이었다.

사실 인간 사회에 안전 의식이 생겨난 것은 본격적인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이 시작된 1875년경이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대량 고용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단체 교육 및 표준 교육의 필요성으로 교육체계가 생겨났다. 또한 사고의 대형화가 불가피하게 됨으로서 본격적인 안전 절차가 만들어지고 안전 교육이 생겨났다.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물질적, 정신적으로 진보한 상태에서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어 습관화된 행동 및 생활양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안전 문화란 어떤 수단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그 수단과 연관된 인원들이 절차와 방법을 습득, 공유하고 습관화된 행동 및 생활양식일 것이다.

인간의 안전 의식에는 치명적 한계 속성 존재

첫째,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안전 절차를 귀찮은 절차로 인식하고 있으며 안전에 투자하는 것은 비용 낭비로 인식한다. 이러한 의식은 현대사회에 와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상존한다.

둘째, 간접 경험으로 안전 의식 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강제적인 제도, 규정, 법에 의해 의식화하는 수밖에 없다.

셋째,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절차를 지키는데 필요한 작은 불편함과 자기희생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제도, 절차, 법이 철저히 집행되어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안전의식,
안전문화에는
지름길이 없다
모두가 기본으로
돌아가 합심해야”

우리나라의 안전 의식 구조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월남전 이후 연계된 중동 건설 특수는 산업화 시대를 급속도로 이루어 냈다. 그때 우리 경제는 “한 달이 다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으며 국민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다. 그러나 의식의 성장은 경제 성장을 따라 잡지 못하면서 한국 사회는 독특한 안전 의식 구조를 갖게 되었다.

첫째, ‘괜찮겠지, 이쯤이야, 잘되겠지.’하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다.

둘째, 위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겁쟁이’라는 대책 없는 모험주의다.

셋째, ‘난 괜찮겠지’하는 자기 예외주의다.

넷째, ‘다 운이야’하는 자조적인 팔자(八字)주의다.

당시 중동에 간 우리 젊은이들은 열정이 넘쳤다. 뜨거운 날씨를 365일 밤낮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으며 힘들고 위험한 일도 절대 피하거나 멈칫거리지 않았다. 그러나 단기간의 돌진형 압축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안전 절차는 생략되기 일쑤였다. 대충 처리하는 인식이 습관화되고 만연해지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전 의식은 국가, 국민의 문화 수준

산업화를 일찍 달성한 선진국들도 우리와 같은 수없는 재난과 환난, 시행착오를 거쳤다. 선구자로 시작한 그들은 간접경험이 없었으니 우리보다 더 절망적인 경험을 해야 했다. 그렇게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안전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었다. 그들도 성장 지상주의 경쟁 사회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룬 동시에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그들이 이루어낸 안전 시스템의 패턴은 이러했다.

첫째,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안전 체계를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보완해 왔다. 여기서 안전 체계라 함은 사고 대응 및 수습 체계가 포함된다.

둘째, 국민 각자는 안전 절차 수행을 위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기희생을 감내했다.

셋째, 안전 의식이 문화로 정착되기까지 국가와 국민의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인

내와 실천, 희생, 노력이 있었다. 일본은 1923년 관동 대지진을 겪은 후 그날을 방재의 날로 정하고 국가적 재난 대비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매뉴얼을 만들고 학교,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했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방재 시스템을 보완해 갔다. 10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준비했으며 훈련한 축적의 결과로 지진 발생 시,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Accident Will Happen!(사고는 일어나는 것이다)

미국 해안경비대(Cost Guard) 재난 본부에 걸려있던 표어였다. 사고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다. 사고는 면역력이 없으며 그 수단이 계속 존재하는 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안전 대책, 예방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수습 대책이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분야가 바로 수습 대책이다. 수습 대책은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된다. 수습 대책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장기간의 집중투자가 보장되어야 안정된 시스템이 갖춰지는 분야다. 하지만 안전에 투자하는 것을 비용 낭비로 인식하여 우선순위가 밀리기 쉬운 분야이기도 하다. '사고는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고가 발생 시 차분하게 대응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 국가의 품격, 국민성은 국가적 재난에서 발휘된다.

일본의 고베 대지진에서 6,000여 명이 사망했지만 어디에서도 오열, 절규는 없었다. 참혹한 상황, 집단적 PANIC 상태에서도 결코 자기감정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처참한 비극 앞에서도 어김없이 절제와 인내의 국민성과 문화가 작동한다. 일본인은 잠재의식 속에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유전자가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에게 침묵의 인내를 강요하는 일본식 문화 때문에 무책임한 나라가 되

었다고 비판도 받는다. 하지만 국가적 비극 앞에서 국민들은 극도로 말을 아껴야 한다. 제어되지 않은 말은 총칼보다도 무섭다. 난도질, 냉소, 빈정거림 같은 저주는 환난 극복의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더욱 우울증에 빠지게 한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 편을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남 탓하는 분파성(分派性)은 지금도 우리의 치명적 약점이다.

Life Goes On!(일상생활은 지속되어야 한다!)

어떠한 극심한 절망 상황에서도 국민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지켜져야 하고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 국가의 리더십은 항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2001년 9.11테러는 2,978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미국 국민을 극도의 절망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미국 전역에 생중계 되는 가운데 미국의 상징과도 같았던 무역센터가 납치된 자국 여객기에 의해 공격당해 붕괴되자 큰 충격에 휩싸였다.

9.11 테러 1주기 추모사에서 부시 대통령은 “Life Goes On”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미국 국민이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은 테러 집단이 바라는 바이기에 미국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를 누리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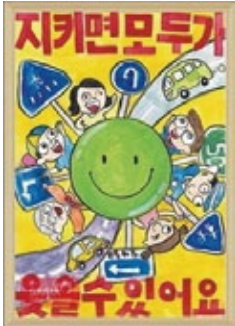
이렇게 국가의 리더십은 국가적 난국에서 요구되고 빛이 난다. 물론 국가의 리더십이 빛나기 위해서는 국민이 지도자를 따르고 지지하는 Followership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불편함과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안전이
습관화될 때까지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국민의 안전 의식 교육이 우선되어야…….

안전 의식은 간접경험으로 습관화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렵더라도 기본 질서 지키기와 안전에 대한 성찰적 교육을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요즘 자동차 안전벨트 매는 것은 습관화되어 자동차 문화화 되었다. 그러나 My Car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한 30여 년 전만 해도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이 드물었



다. 그것은 오직 운전자 자신의 안전 문제인데도 말이다. 그러다가 수없는 직, 간접 경험과 교육, 범칙금과 같은 제도의 보완으로 정착되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정착된 안전 절차도 있다. 바로 우측통행이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잘 정착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우측통행의 필요성을 방송 매체를 통해 계몽을 했다. 또한 사람들이 다니는 모든 통로와 건물 계단 등에 우측보행 표시를 하는 등의 노력으로 짧은 시간 내에 우측통행은 정착됐다.

시행 초기에 계단이나 지하철을 지나갈 때 어린이에게 지적받는 좌측통행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짓던 생각이 난다.

성숙된 안전 문화는 국민 각자의 책임 의식에서

세월호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다. 그 엄청난 사고도 단지 제반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인재였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대충 처리하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해졌기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대형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최소한 1/N의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 나부터 기본 질서 지키기, 기본으로 돌아가기 같은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러한 책임 의식이 안전 문화 고양의 바른길이 될 것이다.

안전 의식, 안전 문화 증진에는 지름길이 없다. 모두가 기본으로 돌아가기에 합심해야 한다. 정부는 시스템을 갖추고 규정, 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국민들은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과 자기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

한국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제언



권영근 26기
정치학 박사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합동성 강화는 미래 한국군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 타군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우선되고,
- 각 군의 중복 전력은 과감히 통폐합하며
- 합동조직은 각 군 균형보직이 보장되어야...



합동작전을 추구하며



1. 서언

오늘날 한국군은 장교 합동 임관식과, 3군 사관학교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3군 합동작전을 원활하게 할 목적인 것이다. 3군 합동작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미국은 합동성(Jointness)이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합동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 1986년에 제정된 골드워터-니콜스 법안에서는 합동성을 각 군의 권한과 경쟁의식을 줄이는 문제로 생각하였다. 반면에 미 상원군사위원장이던 샘넌(Sam Nunn)은 합동성을 각 군이 중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기 체계를 통폐합하는 문제로, 임무와 역할 측면에서 각 군의 중복을 제거하는 문제로 인식하였다. 미 합참의장을 역임한 콜린 파월(Colin Powell)은 합동성을 팀워크와 상호협조 측면에서 생각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합동성이란 국가가 직면하게 될 위기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고 이들 군사력을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용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오늘날 합동성 강화를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의 연구 결과에 입각하여 한국군군의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합동성에 관한 미국의 시각

이미 언급한 바처럼 미국은 합동성을 각 군의 경쟁의식을 완화하는 문제로, 각 군이 중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력을 통폐합하는 문제로, 각 군간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가. 각 군의 권한 삭감과 경쟁의식 완화: 1986년의 골드워터-니콜스 법안의 시각

각 군 간의 경쟁의식은 각 군의 작전 환경인 공중, 지상 및 해상이 상이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 결과 전쟁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상대방 국가의 중심(重心: Center of Gravity)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눈앞의 적군과 대적하고 있는 육군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 적군은 온갖 노력을 경주해 격멸해야 할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눈앞에 적을 갖고 있지 않은 공군의 경우는 상대방 국가의 지도자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 핵심 산업 시설과 같은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해군은 해상 통제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공군은 적진 깊숙한 곳에 있는 적의 심장부를 강타하기 위한 고성능 항공기를, 육군은 지상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를, 해군은 해상 통제를 위한 무기를 우선적으로 구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이처럼 군사력 건설 측면에서의 각 군의 경쟁의식은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도 그대로 목격된다. 육군은 군의 자산 중에서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지상 작전 목적으로, 공군은 적의 심장부를 강타할 목적으로, 해군은 해상 통제를 목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이처럼 각 군이 자군의 시각에서 군사력을 건설 및 운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완화할 목적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동군을 지구상 도처에 설치하였으며, 이들 합동군의 전력 중에서 지상, 해상 및 공중 전력을 각각 단일 지휘관이 지휘하도록 하였다.

미군이 합동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2년 당시의 미 합참의장 공군대장 존스(David C. Johns)는 미 합참체제를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미 하원에서 증언하였다. 이 같은 존스의 증언이 발단이 되어 1986년 미국은 골드워터-니콜스 법안을 제정하였다. 법안에서는 합동성을 각 군 간의 경쟁의식 완화와 각 군 권한의 삭감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법안에서는 각 군의 상호 협조 증진을 목적으로 군의 교육 체제를 바꾸었다. 또한 장교들의 보직과 진급에 대한 각 군의 통제 정도를 줄이고, 장교들이 합동 부서에 보다 많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각 군의 권한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각 군 대학의 교과 과정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장교의 승진 자격을 구체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무기 체계의 획득 권한과 책임을 국방장관실로 이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각 군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각 군의 노력을 통일할 수 있도록 합참의장과 합동참모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합동 차원에서의 군사력 운용을 위해 합동기획과 합동 교육을 강조하고, 합동 교리 발간을 지시하였다. 또한 국방부, 합참과 같은 합동 부서에 근무하는 각 군 장교들이 숫자와 직위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정보화시대 합동작전 사례

나. 타군에 대한 신뢰(상호 협조와 팀워크) 구축: 콜린 파월의 시각

“합동전은 팀 차원의 전쟁이다”고 파월은 말했다. 합동성은 타군의 능력을 이해하고 이들 군이 이 같은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라 믿는 일을 신뢰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 보면, 합동군 예하 개개 구성군은 합동군사령관과 여타 구성군이 최상의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 믿는 것을 신뢰해야 할 것이다.

전시 육군과 해군은 공군이 최선을 다해 자신을 지원해줄 것임을 신뢰해야 한다. 미군의 경우를 보면 해군과 해병대가 항공력을 보유하게 된 주요 이유는 상대방 군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미 육군이 헬리콥터를 대거 보유하게 된 것은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으로부터 근접항공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한국군의 경우를 보면 육군과 달리 해군과 공군, 특히 공군은 자군이 수행해야 할 다수 임무 중에서 일부분만을 수행하는 전력과 조직을 구비하고 있다. 육군 입장에서 보면 해군과 공군, 특히 현행 작전 중심의 조직인 공군을 신뢰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군의 지원을 받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항공력을 직접 건설하겠다는 충동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하는 경우 임무와 역할이 중복된다는 점이다. 국방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아니고 한국 공군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강해야 할 것이다. 육군 및 해군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육군, 해군 및 공군은 자군의 작전 환경이 아닌 타군의 작전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획득하면 안 될 것이며, 이들 능력과 관련해서는 타군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즉 상대방 군을 신뢰해야 할 것이다.

다. 각 군의 중복 전력 통폐합: 샘년 상원위원의 시각

전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의 각 군은 타군의 지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태평양에서의 해전을 고려해 미 해군은 미 공군에 못지않은 막강한 항공력을 건설하였다. 미 해병대와 육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각 군은 막강한 항공력과 정보(Intelligence)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1992년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던 샘년은 12개 영역에서의 중복 전력 통폐합이 합동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들 중 8개 영역이 항공력과 관련이 있었다. 이 같은 샘년의 주장에 클린턴 대통령이 동조하였다. 각 군의 중복 전력을 제거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같은 의견이 보다 설득력이 있게 되었다.

3. 한국군의 합동성 강화 관련 제언

가. 각 군의 임무, 역할 및 기능 정립

합동성에 관한 미군의 시각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되는 부분은 임무, 역할 및 기능이란 부분이다.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미국은 각 군의 임무, 역할 및 기능을 대통령과 의회의 관심 아래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4년에 한 번 각 군의 임무,

역할 및 기능을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인즉 임무, 역할 및 기능에 따라 각 군의 조직, 인력, 무기 체계, 예산 등 모든 사항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조직, 인력, 무기 체계에 근거해 합동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각 군의 임무, 역할 및 기능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이들에 근거해 군사력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자군의 주요 임무와 역할의 수행에 필수적인 체계가 아니고 여타 군의 작전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획득하면 곤란할 것이다. 한국군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각 군 교리에 임무, 역할 및 기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공군 기본교리에는 전략공격(Strategic Attack), 근접항공지원 등 공군의 기능을 상세 언급하고 있는데, 이처럼 각 군 교리에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군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군은 각 군의 역할을 국군조직법에 개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의로는 군사력을 제대로 건설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각 군의 임무, 역할 및 기능이 불분명한 결과로 인해 오늘날 한국군이 체계 건설과 관련해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나. 중복 전력 통합

한국군은 분명히 정의되어 있는 임무, 역할 및 기능에 근거해 군사력을 건설해 운용해야 할 것이며, 각 군이 전력을 중복적으로 보유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군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각 군은 항공기, 미사일 등을 보유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각 군이 항공력과 정보 능력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 각 군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 해군이 항공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태평양에서의 해전이 주로 항공전이기 때문이다. 미 해병대가 항공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상륙작전 당시 근접항공지원과 같은 항공작전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전시 우군 살상을 방지할 목적에서 평시 공중 전력과 지상 전력이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훈련해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미 육군이 헬리콥터와 지대지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프간에서처럼 육군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991년의 걸프전 이후 미군은 한반도와 같은 전구(Theater) 차원의 전쟁에서 군의

대부분 화력(1991년 걸프전의 경우는 500피트 이상 비행하는 헬리콥터를 포함한 대부분 항공력)을 합동군공군구성군사령관 중심으로 통합 운용하고 있다. 나토군의 경우도 소속에 무관하게 모든 항공력을 공군구성군 휘하로 통폐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군은 전 세계 도처에서가 아니고 한반도에서 합동으로 전쟁을 수행할 목적의 조직이다. 한국의 각 군이 항공력을 별도 건설해 운용해야 할 이유는 있는가?

한편 화력지원협조선(FSCL) 너머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한 화력을 단일지휘관이 통합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면 고가(高價) 무기를 낭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군 살상이 벌어질 수 있다.

다. 전문 군사교육 기관 교관의 전문화

각 군의 임무, 역할 및 기능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중복 전력을 제거하며, 이들 임무, 역할 및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군의 장교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구비해야 한다.

한국군은 2015년 12월에 예정되어 있던 전작권 전환을 조건부 전환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 전환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전환 이후에는 한반도 전쟁과 관련해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지원하는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에서는 미군이 회의를 주관하고 한국군이 고개를 끄덕이면 되었던 반면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회의를 주관하고 미군이 끄덕이는 상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국군은 고도의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각 군 대학은 공중, 지상 및 해상에서 자군 전력을 통합 및 동시 통합하는 문제를, 합동참모대학¹은 지상, 해상 및 공중 전력을 통합 및 동시 통합하는 문제를, 국방대학 안보 과정은 정치, 경제, 군사 등 국력의 제반 수단을 통합 및 동시 통합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할 조직이다.

육군대학에서 가르치는 대대 및 연대 전술의 문제는 야전 경험이 있는 장교들이 가르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전술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는 학문적

1 한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으로 통합했다.

인 사고(思考)가 요구되며, 외국의 자료를 습득해야만 하는 성격의 것이다. 한국군은 실무 부서 경험이 많은 작전 장교가 이들 문제를 보다 잘 교육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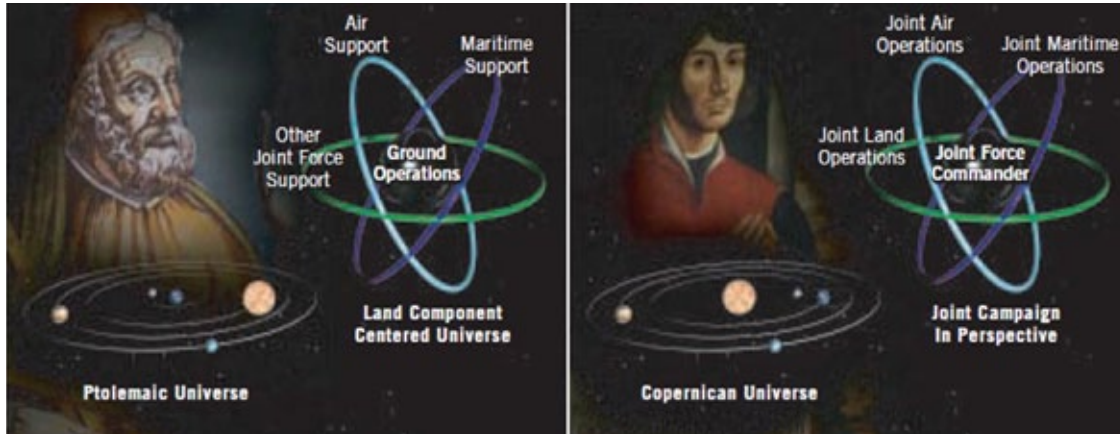
미군은 육군대학, 공군대학, 해군대학을 수료한 장교 중에서 매우 우수한 장교를 일부 선발해 1~2년의 추가 교육을 시킨 후 전구 작전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전쟁의 천재'를 양성하는 미국의 전문 군사교육 기관, 예를 들면 미 육군의 SAMS와 미 공군의 SAAS 교관 중에 실무 경험이 많은 작전 장교는 거의 없다. 한국군은 각 군 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의 교수진 중 많은 부분을 전문화(박사급)해야 할 것이다.

라. 합동조직에 근무하는 각 군 요원 간의 균형 유지

합동은 본질적으로 작전적 수준에서의 통합의 문제다. 공중에서 독수리, 지상에서 사자, 바다에서 돌고래처럼 기능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고(국방부 각 군 본부의 임무임), 이들 군사력이 독수리, 사자 및 돌고래처럼 기능하도록 하며(구성군사령부 및 합동군사령부의 임무임), 이들 군사력이 동일 목표를 겨냥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도록 하려면(이는 합동군사령부의 임무임) 국방부, 합참, 합동군사령부 등 합동 부서에 육군, 해군 및 공군 간에 적정 인력과 계급 구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각 군 간에 균형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동성 관련 방안을 강구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 군이 거의 전적으로 진급 권한을 행사하던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군은 각 군 간에 열띤 논쟁을 전개하였는데, 통합군 논쟁은 대표적인 경우다. 그런데 각 군 장교의 진급과 관련된 합참 및 국방부의 권한 강화 등 소위 말하는 합동성을 강화한 결과 각 군, 특히 해군과 공군이 국방 정책과 관련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육군 장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에 국방개혁 2020에 명시되어 있는 육군의 사단 및 군단 작전지역 확장의 문제가 있다. 문제는 이처럼 확장하면 육군 작전지역이 공군 작전지역과 중복된다는 점이다. 공군과 국방 차원에서 보면, 이는 통합군 논쟁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공군은 침묵을 지켰다. 육군 작전지역 확장에 따른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한 곳은 공군이 아니고 동아일보 논설위원인 이정훈이



지상군 중심 사고(천동설)과
합동 차원의 사고(지동설) 비교

다. 공군의 관련 요원들이 침묵을 지킨 이유에 육군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국방부 및 합참에 잘못 보이는 경우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인식이 있었다.

합동 조직에 근무하는 각 군 간에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에 군사력 건설의 문제가 있다. 오늘날 한국군은 각 군별로 예산을 나누어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면 국방 차원에서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각 군 차원에서의 우선순위에 근거해 군사력을 건설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한국군은 나눠먹기 방식의 군사력 건설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이처럼 하고자 하는 경우 합동 조직에 근무하는 각 군 장교가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고에서는 합동 차원에서의 군사력 건설 및 운용과 관련해 몇몇 사항을 언급하였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 군의 임무, 역할 및 기능을 올바르게 정립해 법으로 정하는 일이다. 이들이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각 군이 타군의 임무,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처럼 자신의 임무가 아님에도 수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로 공중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지상 및 해상에는 겹치지 않지만 공중은 지상 및 해상과 겹치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항공력, 정

각 군이 타군의 임무,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지상 및 해상은 겹치지 않지만
공중은 지상 및 해상과 겹치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항공력, 정보 전력 등
중복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전력들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보 전력 등 중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력들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즉 타군의
작전 환경에서가 아니고 자군 작전 환경에서의 작전에 필요한 체계만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합참의장 및 합동군사령관의 권한 강화 등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든 사안은 합동 조직에 육군, 해군 및 공군 요원이 숫자와 계급 측면에서 균
형을 이룰 때만이 가능한 사항이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합동조직의 권한을 강화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육군 작전지
역 확대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군은 각 군 대학 및 합동참모대학과 같은 전문 군사교육 기관을 전문화시켜야
할 것이며, 국방의 주요 사안과 관련해 관련 요원들이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분
위기와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전역장교를 위한 실질적인 경제 교육



신상용 37기

Fhikorea 대표이사

스닉스전자 대표이사

전 타코벨코리아 대표이사

미국 Beautymax社 경영총괄(COO)

삼성그룹 구조본부 근무

- 전역장병을 위한 미시경제 교육
 - 생활 속의 실제적인 경제교육이 효과 커
 -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아주 작은 것에서 부터 출발해
 - 너무 큰 그림만 그리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아
 - 실질 경제의 간접경험으로 실수와 판단착오 줄이는데 도움 돼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 중 하나는 문 앞에 놓인 신문을 주워 소파에 앉아 읽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것이다. 어떤 이는 정치나 경제 뉴스에 먼저 눈이 갈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국제 뉴스 혹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먼저 확인할 것이다.

전역을 앞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해 경제 뉴스에 눈길이 많이 갈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 살고 있지만 과연 이 정보들이 내게 유익하고 필요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 국제 원유 값의 등락, 영국의 브렉시트, 중국 경제의 경착륙,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조선 업종 불황에 따른 인원 감축 등 잠시만 훑어봐도 굵직굵직한 주제의 비슷한 기사들이 차고 넘친다.

그런데 이 정보들은 실제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기사를 보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슬픈 일이지만, 알면 도움은 될지 몰라도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여기서 전역장교에 대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거시적인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실증 사례를 경험하자

본인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경험이 있다. 공사를 졸업하고 5년차에 공군본부 공보과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뒤 삼성에 들어가 12년 정도를 근무하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퇴직했을 때였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근무하다 창업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회사에서 항상 마케팅이나 영업에 대한 지식을 접해 경험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부서와 일선 영업 조직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전역 전 장미 빛 꿈은 짧게!

대기업은 모든 것이 시스템화 되어서 조직 간에 협력과 뒷받침이 잘 이루어지지만 창업은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군 생활을 마치고 일반 사회 속에서 크고 작은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그 당혹스러움이 더 크리라 생각한다.

여기서 경제 활동이란 창업을 하거나 회사 같은 조직에 속하는 것, 가게를 사서 세를 주는 것 또는 연금만으로 가정 경제를 꾸리는 등 모든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전역자가 창업을 하는 것은 말리고 싶다. 창업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보는 것은 실제 경제를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전역 교육을 할 때 일주일 정도 가상 체험과 분석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 부대 인근 지역 도시의 중심가에 있는 제과점을 경영자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것이다. 이때 임대료와 원가가 얼마인지, 종업원의 투여 노동력은 몇 시간이고 총매출과 영업 이익률은 어떤지, 제품의 손실율과 재고율, 회전율이 어떤지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하루에 몇 명이 방문하고 고객의 인당 구매 금액 평균이 얼마인지, 주변의 인구 구성이 어떤지, 주변 점포와의 경쟁 관계, 가게의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은 어떤지 등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보고 분석해야 한다. 이런 여러 사항을 팀을 만들어 분석해보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가게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인도 국내에서 가전 제조, 미국에서 유통 사업을 하다가 미국 거대 외식기업인 ‘타코벨’이 한국에 진출할 의사가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요식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국내 시장을 분석한 적이 있다. 직접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미국 본사에 가서 설명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한 끝에 국내 몇몇 경쟁 대기업을 물리치고 2년 만에 국내 전체 권리를 받아 강남역과 홍대, 이태원 등 10여 곳의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했다.

그 당시 점포 위치에 대해 미국 본사와 협의할 때, 우리는 대부분 ‘여기가 상권이

냉혹한 사회 적응을
위한 일정기간
가상 체험과
분석을 통한
실질적 경제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좋은 곳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등 일반적인 분석을 했지만 미국 본사는 철저 수치적인 분석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저 수치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의심스러웠지만 결과를 보고 그들의 의견이 맞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은 본사 직원이 직접 일주일간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고 성별, 나이 등을 측정하고 유사 업종의 가게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등 수십 가지의 분석 차트를 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데이터로 조사한 후에야 위치를 결정한다.

실제로 본인도 이태원과 신촌 점포를 열기 위해 백여 군대를 비교, 검토하고 모의 평가도 해보는 등 정말 많은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정말 많은 것이 건널목의 위치, 현관의 방향, 계단의 층수, 길의 중앙분리대 여부 같은 미시적인 것들에 의해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거시적인 경제 정보가 차고 넘치는 것에 비해 미시적인 분석과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것은 누가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전역 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미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집을 장만하거나 오피스텔을 사서 노후 대비를 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의 테마를 정해 철저한 분석과 추후 평가를 하면 '업종과 경제적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경쟁력과 승패 요인, 객관적 사고력,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소비자의 트렌드'등을 다룬 수십 권의 경영 관련 서적을 읽은 것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역자 교육을 할 때 실질 미시 경제를 한번쯤 경험하는 것은 의사 결정이 필요한 다양한 경제 활동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판단 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이러한 경제 교육이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회원기고

자랑스러운 동문 및 화제의 인물

1. 비행시험조종사의 끝없는 도전 | 기예호
2. 최초 여생도에서 전투조종사로 | 박지연
3. Red Flag 한국군 최초 임무편대장의 의의 | 서재경
4. 사법고시에 도전하면서 | 김민정

그리운 사람들

1. 이만섭 국회의장을 추모하며 | 정규혁
2. 공사에 원자력계의 대부 한필순(5기) 기념관을 | 편집진
- 3.故 오충현 공군대령과의 인연, 그리고 공군사랑 | 김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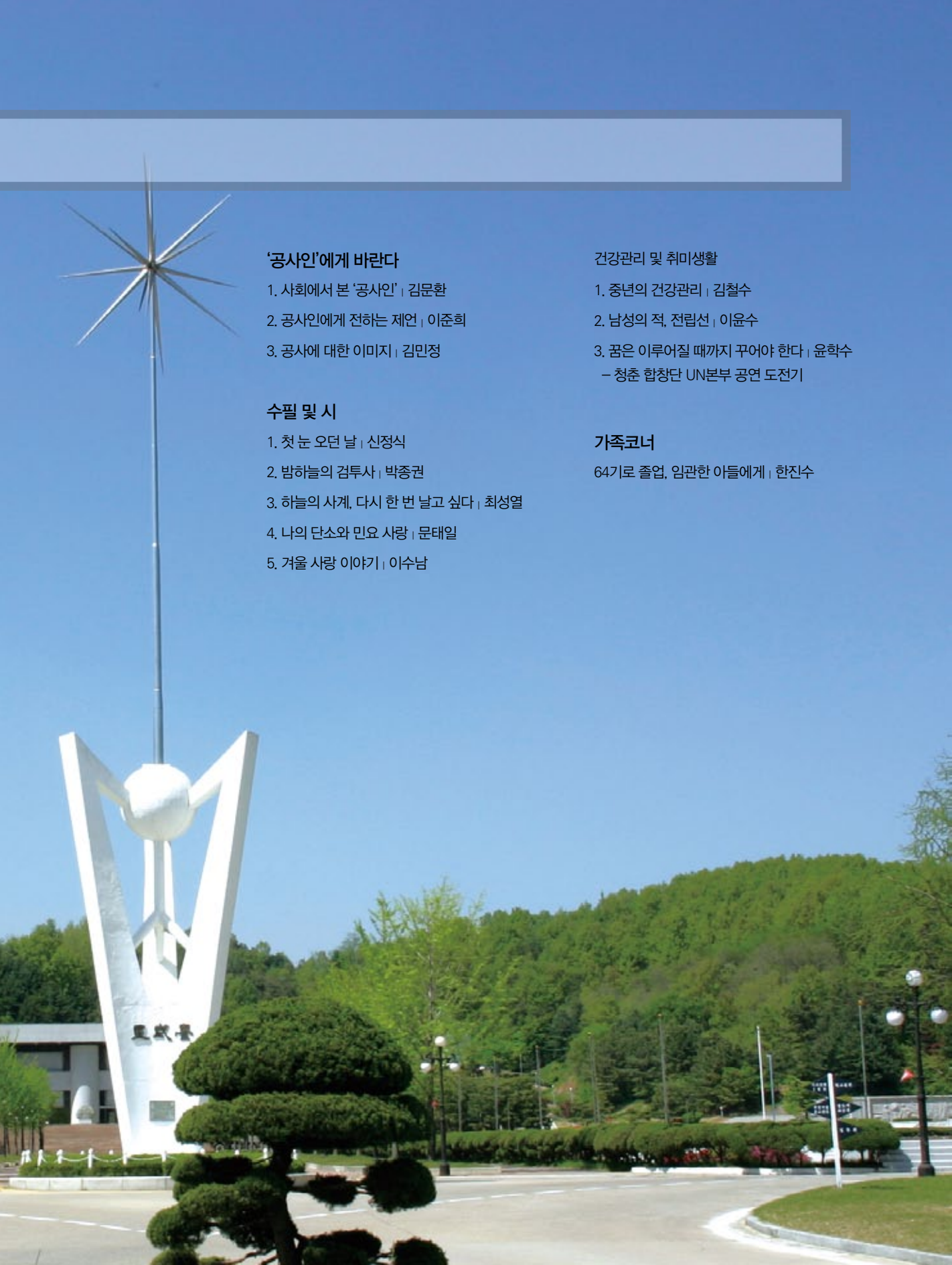
소회, 추억 및 영광의 순간들

1. 졸업 50주년 기념사 | 이억수
2. 14기 사관 생도시절, 그 후 50년을 되돌아본다 | 김현
3. '7성회' 럭비부의 승전보 | 김석천
4. 공사 옛터. 보라매공원의 鄉愁 | 이은봉
5. 거례와 조국과 함께한 공사의 飛翔 |
6. 빨간 마후라 출연진 초청 그림(10전비) |

단상(斷想)

서라벌에서 온 편지 6 | 이종학





‘공사인’에게 바란다

1. 사회에서 본 ‘공사인’ | 김문환
2. 공사인에게 전하는 제언 | 이준희
3. 공사에 대한 이미지 | 김민정

수필 및 시

1. 첫 눈 오던 날 | 신정식
2. 밤하늘의 검투사 | 박종권
3. 하늘의 사계, 다시 한 번 날고 싶다 | 최성열
4. 나의 단소와 민요 사랑 | 문태일
5. 겨울 사랑 이야기 | 이수남

건강관리 및 취미생활

1. 종년의 건강관리 | 김철수
2. 남성의 적, 전립선 | 이윤수
3. 꿈은 이루어질 때까지 꾸어야 한다 | 윤학수
– 청춘 합창단 UN본부 공연 도전기

가족코너

- 64기로 졸업, 임관한 아들에게 | 한진수



기예호

26기, 항공우주 연구원 선임 비행시험조종사

비행시험조종사의 끝없는 도전

비행시험¹ 도전의 시작

우리나라 비행시험의 역사는 ‘부활호’로부터 시작된다. ‘부활호’는 공군 기술학교 교관인 이원복 소령을 중심으로 설계/제작되어, 그 초도 비행은 제작된 바로 다음 날인 1953년 10월 11일, 비행교육대장 민영락 소령이 전방석에서 조종하고 이원복 소령이 후방석에 동승하여 2시간 동안 비행 시험을 하였다.

‘부활호’이후에도 여러 비행기가 만들어졌지만 대부

분의 노력이 대량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모두 비행 사고가 나서 기체 자체가 없어지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비행이 제한되는 등의 이유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후 KTX-1 기본 훈련기, T/A-50 고등 훈련기 겸 정공격기 그리고 KC-100 일반 항공기가 개발에 성공하고 양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외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함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항공기의 개발 과정에는 반드시 비행시험이 얹혀 있다. 그리고 다들 그 비행시험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나는 그 위험한 항공기 개발

1 비행시험 :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 중에 비행을 하면서 수행하는 시험.
시험비행 : 여러 가지 종류의 비행 중에 시험을 목적으로 한 비행.
전자는 항공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 후자는 항공기를 운영하는 사용 군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

과 비행시험 분야에 25년 넘게 몸담고 있다. 남들이 보면 매우 헌신적이거나 스틸 있는 것을 즐겨하는 성격이어서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여길지 모른다. 정말 그럴까?

내가 비행시험에 대해 정작 제대로 눈을 뜨게 된 것은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항공공학 석사과정의 한 과목인 비행시험 실습 과정을 공부할 때였다. 여기에서 개발 비행시험 기법과 절차를 공부했는데,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공교롭게 우리나라에서 KTX-1 탐색 개발기가 개발이 진행되고 있던 터였다. 개발 비행시험 조종사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있었고 사관생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비전도 같았기에 인생의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당시 전투발전단의 시험 평가 처장이던 신보현 대령께 비행대장과 대대장 보직을 포기하고 비행시험 학교를 가겠노라는 포부를 밝혔고, 그분은 내 뜻을 가상하게 여겨서 참모총장께 보고하여 허락을 얻어냈다. 이것이 나의 오랜 비행시험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리하여 1992년 1월, 영국의 국제시험비행학교(International Test Pilot School)의 비행시험 조종사 정규 1년 과정을 수학하게 되었다.

KTX-1 기본 훈련기 비행시험

나의 비행시험 경력의 시작은 KTX-1 기본 훈련기 개발 사업이었다. 노후 된 T-37 중등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KTX-1 탐색 개발기의 성능을 대폭 보완하여 국내에서 개발하는 프로젝트였다. 나는 시험비행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KTX-1



개발 비행시험에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임 비행시험 조종사(Chief Test Pilot)의 책임을 부여받았다. 비행시험 조종사는 고난의 시작이었다. 비행시험의 위험을 피하거나 극복해야 하는 노력은 말할 것도 없이, 비행시험의 개념이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 커뮤니티 속에서 비행시험의 입지를 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와중에 1995년 3월, 950마력의 KTX-1 기본 훈련기 시제기 초도 비행을 했다. 1시간가량 최초 비행 영역 확인 비행시험을 끝내고 활주로에 착륙하였을 때는 준비하던 과정의 피곤함이 모두 씻은 듯 사라졌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의 시작에 불과했다. 흔히 비행시험은 첫 비행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초도 비행의 신비는 콜럼버스의 달걀과 비교된다. 하고 나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처음으로 해내기에는 그리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가장 어려운 것은 아니다. 초도 비행이 안전하게 끝났다고 해서 다음 번 시험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초도 비행은 가장 안전한 비행 영역만을 비행하도록 계획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부분이다. 이후에 따르는 비행시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전투기 조종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비행 영역의 가장자리에서 비행하는 것이 위험도가 높다. 하물며 그 가장자리가 확실하게 어딘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도 모르면서 해보는 비행시험 조종사의 심정은 어떨까?

KTX-1 개발 과정에서 내가 직접 수행한 비행시험 과목 중, 초도 비행을 제외하고 가장 위험도가 높은 시험을 꼽으라면 플러터 시험(최대 속도 확인)과 스핀 시험이다. 플러터 시험은 스릴을 즐기는 사람에게 최적의 게임일 것이다.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최대 속도로 접근해 가면서 날개에 진동을 가하여 항공기가 파단을 일으키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인데, 파단이 일어나는 순간의 증상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노련한 비행시험 조종사도 꺼려하는 시험이다. 초기에는 10노트 간격으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5노트 단위로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수십 소트에 걸쳐 수많은 모드의 진동을 주입(주 날개)에 반응시켜 가며 항공기의 기체 구조가 안전한지를 확인해야 했다.

날개에 진동을 가한다고 날개만 진동이 발생하는 게 아니었다. 조종간, 동체, 미익(뒷날개), 시트 등 모든 부위가 교대로 떨어져 나갈 만큼의 큰 진동이 느껴졌다. 공부한 대로 반응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 기분은 표현할 수 없이 기분 나쁜 종류의 진동이었다. 한 소티가 끝나고 나면 극도의 긴장으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렇게 해서 설계 최대 속도 범위 내에서는 어떤 종류의 비행을 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실제로 시범했다. 그만큼 시험을 완료했을 때 누구도 해보지 못한 것을 해냈다는 보람과 긍지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스핀 시험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좌측 배면 스핀의 진행 중에 항공기의 움직임에 많은 진동(Oscillation)이 발생했다. 공군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함이 발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기의 외형(Configuration)을 바꾸어 가면서 스핀 시험을 했다. 한 소티의 비행에서 배면스핀으로 10회를 하면서 한 회의 스핀 시험은 6회전을 돌면서 급강하 하는 일들을 50소티 이상이나 반복하였다. 수개월에 걸친 집중적인 노력 끝에 결국 배면스핀 중의 진동 문제가 해결되어 병목을 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투용 사용 가’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도 가끔 사천 비행장 주변을 지나다 KT-1 항공기가 열심히 비행 훈련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옛날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들었던 기억들과 아찔했던 순간이 떠오르고 또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끼곤 한다.

T/A-50 비행시험

T-50의 개발 과정에서 나는 초음속 제트기를 안전하고도 효율적으로 비행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군의 비행시험 조직과 한국항공의 비행시험 조직이 합쳐진 통합 시험 평가단(CTF; Combined Test Force)의 시험 책임자(Test Director)를 맡았다. T-50 비행시험 준비는 여러 방면으로 나뉘어 수행되었다. T-50 개발 초기에는 비행시험 수행 조직 및 지원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가 설계되고 시제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잘 훈련된 비행시험 조직이 덩벼들어도 쉽지 않은데, 초도 비행이 진행되기 6개월 전에 겨우 시험을 주관하는 CTF를 꾸려서 그 CTF에 부랴사랴 비행시험 수행 조직 및 지원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이 움직여야 할 규정까지도 만들어 가면서 비행시험 준비를 해야 했었다. 무엇보다도 비행시험 조종사와 시험 지휘자(Test Conductor)를 제외하고 임무 통제실(Mission Control Room)에서 근무하는 시험지원 요원들이 전혀 훈련된 적이 없는 엔지니어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던 점도 큰 문제였다. 그래서 수없이 사전 훈련을 수행해야 했다.

초도 비행에 대비하여 비행시험 조종사인 조광제 중령은 HILS(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시스템으로 Fly-By-Wire 조종 시스템을 가능한 한 실제와 비슷한 상황으로 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시험 지휘자(Test Conductor)인 임상수 중령도 임무 통제실의 근무자들과 함께 정상 및 비정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실전과 같이 수행하였다. 나 역시 전체적인 훈련 진행을 감독하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훈련을 했다. 여차하면 시험 지휘자가 판단하지 못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훈련을 하면서 '차라리 시험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이 쉽겠다.'는 생각을 했다.

2002년 8월 20일, 초도 비행은 사전에 훈련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시험 요원들만이 알 수 있는 오류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었다. 그때마다 해당 시스템 엔지니어, 시험 지휘자 그리고 시험 책임자 간에 수도 없이 많은 질문들이 오갔다. 물론 조종사가 눈치 채지 못하게 내부 마이크를 통해 진행했다. 해당 엔지니어와 시험 요원들이 결함 원인 및 치명성을 판단하여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시그널을 보내면 시험



지휘자와 시험 책임자가 비행시험 계속 여부를 판단하여 조종사에게 무선신호를 보냈다.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또 다시 고난의 연속인 T-50의 비행시험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 비행시험은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성공적으로 이어졌다.

T/A-50 항공기의 비행시험이 성공적으로 종료되고 난 후인 2005년 9월말, 당시 항공사업단의 고등훈련기 사업처장이던 내가 기계화된 시한 내에 T/A-50 고등 훈련기/경공격기 체계 개발이 '성공'하였음을 확인하는 실무 책임자의 서명을 함으로써 T/A-50 항공기의 양산이 승인되었다. 대한민국 사상 가장 큰 예산을 투입한 항공기 연구 개발 사업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지금 T/A-50 개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잘 훈련된 팀이 이제는 한국형 전투기(KF-X)의 비행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KC-100 항공기 인증 비행시험과 항공우주연구원의 선임 비행시험 조종사

공군사관학교에서 비행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2011년, 항공우주연구원의 한국 인증 기관(KCA; Korea



Certification Agency)에서 다급하게 국내 개발 민간 항공기의 인증을 위해 일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나는 이에 응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인증비행시험 조종사 자격을 얻었다. 후에 들은 얘기로 만약 내가 없었다면 외국의 비행시험 조종사를 한국의 인증 기관에서 영입해야 할 판이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국토교통부의 프로젝트로 한국항공이 KC-100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항공기는 일반 항공기(General Aviation)급으로 KCA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데 우리가 인증하는 과정을 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이 감독을 받아야 했다. 일반 항공기의 인증에 대해서는 한국 KCA가 인증한 것을 미국 FAA도 인정하는 상호항공안전협정(BASA;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을 체결하도록 계획한 사업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비행시험 조종사의 자질(Quality)이 요구되었다.

원래 인증 비행시험이란 개발자가 인증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 시험 포인트(Test Point)를 모두 시험하고 난 이후에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시험이라서 소위 쉽다고 여겨지는 시험이다. 물론 어떤 비행시험도 간단하게 넘어가는 시험

은 없다. 성능 시험, 비행 특성 시험, 기체 구조 시험, 시스템 시험 등 전 분야에 걸쳐 판단이 어려운 부분,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되는 부분, 확실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하는 부분의 시험들을 모두 직접 시험했다. 그 중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는 스핀 회복 시험이었다. 군용 훈련기의 곡예비행이 가능한 비행기에서도 위험성에 대해 초조해하지 않았던 나였지만 일반 항공기의 스핀 시험은 매우 강도가 높은 비행시험을 해야 했기에 힘겨웠다. 누군가 잘 훈련되지 않은 민간 조종사가 비행하기에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성공 확률이 높은 스핀 시험 회복 방법을 적용해야만 했던 것이다.

2013년 3월, 국내에서 최초로 KC-100 항공기에 대한 인증비행시험을 완료하여 인증서가 부여되었으며, 나아가 2014년 10월, KCA가 FAA와 상호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우리 항공기 개발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나는 지금 25년째 비행시험 조종사로서 항공우주연구원의 미래비행체 팀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비행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NASA에서 미래의 비행체들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비행시험 인프라 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항공우주 연구원에서 개발했던 '보라호'이후 침체되었던 비행시험 체계를 다시금 일으키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테스트 베드(Test Bed) 항공기를 비행하면서 기초적 탑재장비 비행시험에서부터 난이도 높은 비행시험에까지 대비하고 있다.

생사를 넘나드는 시험비행 조종사

비행시험 조종사의 길은 처절하다. 스핀 시험 도중에 일러론이 고정되어 비행기 조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했었다. 다행히 실날같은 비행 가능 영역을 찾아내어 활주로에 간신히 돌아올 수 있었다. 이진호 중령은 비행 도중 캐노피가 떨어져 날아가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언제 목을 찢을지 모르는 캐노피 조각과 강한 풍압을 견디며 그는 안전하게 착륙했다. 이동규 소령과 박병구 대령은 T-50 항공기 초음속 시험을 하던 중 바다 한가운데에서 엔진이 꺼져서 바다에 추락하기 직전 구사일생으로 공중시동에 성공하여 살아 돌아왔다. 당시 고등 훈련기 사업처장이던 나는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살아 돌아와 주어 고맙다고 전하기도 했다. 모두 무사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KTX-1의 '웅비호'명명식을 위해 준비 차 01호기를 비행하던 정영식 소령과 백현영 대위는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출(Ejection)되어 척추 부상을 당했다. 나와 함께 일하던 조기만 중령은 KTX-1 비행시험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지인의 초정량 항공기 비행시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돕다가 시험 도중 추락하여 유명을 달리했다. 김치곤 소령은 미국에서 비행시험 학교에서 난이도 높은 단발 엔진 비행 시험 훈련을 하던 중 스핀에 진입하고 추락하여 사망했다. 개발에 참여했던 비행시험 조종사와 비행시험 기술사들은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에 52시험평가전대에서 비행시험 조종사와 비행시험 기술사의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학생 2명을 위하여 30여 명의 강사진이 1년 동안 노력한 결과 두 사람의 비행시험 전문가가 탄생된 것이다. 그들을 존경한다. 길이 잘 닦여진 민간항공 조종사의 길을 택하지 않고 험난한, 아니 처절한 비행시험 조종사의 길을 택한 것을 존경한다. 그들도 안다. 누군가 이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등산가들이 말한다. 산이 거기에 있어 오른다고. 우리 비행시험 조종사들은 말한다. 누군가 가야 하는 길을 우리가 간다고. 우리는 비행시험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항공 산업 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저버리고 쉽사리 편안한 길을 택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행시험 학교에서는 그 피할 수 없는 위험에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철저하게 가르친다. 선불리 사명감 때문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방법 대신 지름길을 택하지 않도록. 비행시험 세계에서 25년을 살아온 나는 지금도 늘 안전한 길과 지름길을 놓고 씨름하고 있다.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조국의 하늘과 항공 산업발전을 위해 비행시험 도중 유명을 달리한 동료들의 명복을 빈다. ✕

약력 현재 항공우주연구원 선임비행시험조종사, 2012-2014 항공우주연구원 인증비행시험조종사, 2006-2011 공사 비행교수, 2004-2005 고등훈련기사업처장(대령 예편), 2002-2003 전투기사업처장, 2001-2002 고등훈련기 비행시험책임자, 1999-2000 52시험평가전대 근무, 1993-1998 KTX-1 개발비행시험책임자



박지연
49기

최초 여생도에서 전투조종사로

1997년 3군 사관학교 최초로 공군에서 여자 생도를 받아 금녀의 벽을 허물었다. 최초라는 수식어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49기 여자 생도들에게 부여되었고 때로는 보람된 그러나 대부분 그 수식어가 주는 무게로 인해 무겁기만 했던 어깨를 의식하며 지나온 시간이 어느덧 19년에 접어들었다. 19년에 접어든 지금,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

비행훈련을 받을 때 교관님들이 매번 물었던 질문은 “비행이 재미있니?”였고, 나는 항상 “네 재미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매번 힘들고 어려웠지만 계획한 대로 임무가 진행되었을 때, 잘 안 되던 조작을 이루어냈을 때 성취감을 느꼈

고 뿌듯했다. 전투대대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생사의 갈림길을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들에 의해 간접 경험하게 되었다. 후에는 매 비행 시 더욱 집중하고 안전 취약 요소에 대해 민감해진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비행에 대한 나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고등교관을 마치고 FA-50 전환을 하려고 했을 때는 T-50 기종 자격이 있는데 굳이 기종 전환을 또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변의 시선도 있었다. 사실 그 이전 사관학교 근무 중 F-15K 기종 전환에 지원한 적이 있었고 비록 선발되지는 못하였지만 최신의 전투 기종으로 전환하고픈 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기에

주변의 시선은 별로 상관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매번 막차였다. T-50기종 전환할 때나, F-15K에 도전할 때도 49기를 선발하는 마지막 기회였고 FA-50 선발도 아마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다. 고등교관을 할 때 나는 이미 선임편대장이었다. 다시 요기부터 시작해야 하는 험난한 길. 기수는 높고 자격은 없는, 임관 15년차의 나이 많은 소령 요기를 환영할 대대가 있을까? 거기에 더해 내가 여성이라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이전에는 미처 하지 못했다.

나는 전투조종사로 자랐고 성별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단언컨대 내가 막내 시절부터 나를 보아온 선·후배·동료 조종사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군을 떠났고 그렇기에 어떤 이들에게는 여성 조종사인 내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나를 받아준 지금의 대대에서 곧 4기의 리더 복귀 훈련을 앞두고 있다.

FA-50 전환훈련은 전투대대를 떠난 지 거의 8년 만에 이루어졌고 다양한 전술 임무와 변화되고 향상된 COCKPIT(조종석)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예상했던 것만큼 힘들고 어려웠다. 하지만 나 혼자 만끽했던 감격의 시간들, 낙동사격장에서 8년 만에 BDU-33(훈련용 연습 폭탄)를 다시 투하하던 작년 초여름 어느 날의 BOMB BTN 촉감이 지금도 생생하다. FA-50 조종사로 첫 Alert 근무를 마치고 나와 전체 디브리

핑 시간에 프리시트도 걸었다. 후배들은 선배가 오버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전투조종사로 존재하는 이유가 비상대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매우 감격스러웠다.

2기 리더 복귀 후 거의 매일 2소티씩 탑승하며 비행하고 있지만 매 소티가 소중하고 새롭다. 나보다 주 기종 비행시간이 많은 후배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교범과 전술에 대해 대대원이 서로 소통하며 임무 난이도를 높이지만 안전 팩터를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비행에 집중하게 된 원동력은 아마도 한참 비행해야 할 때 임신과 출산이란 과정을 거치면서 공백기가 생기게 되었고 그 공백기를 채우고자 하는 바람에서 발현된 게 아닌가 싶다.

빨리 비행을 하고 싶어서 첫 아이 출산 후 규정에 명시된 회복기를 지나자마자 항생 훈련을 받고 유지 비행을 하였다. 전투조종사는 출산 후 저압실 훈련과 중력가속도기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에 매우 부담 되었지만 막상 받고 나니 어렵지 않았다. 물론 그 전에 헬스장을 열심히 다니며 없어진 근력을 다시 만드려고 노력한 시간이 도움이 되었다.

그때 나는 대학원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친정어머니께서 봐줄 테니 지금 조금 여유 있을 때 한 명 더 낳으라는 말씀에 덜컥 둘째 아이를 임신하였다. 아마도 유지 비행할 때 임신 확인 전 둘째가 뱃속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지금 생각하면 유지 비행 한 번 하고 바로 다시 비행

휴가가 되었으니 굳이 그렇게 빨리 첫 아이 출산 후
항생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당시 내 맘은 그
게 아니었다. 여하튼 그래서 그런지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 두 번째 항생 훈련을
받을 때는 이미 경험이 있었기에 긴장도 별로 없이
훈련을 금방 끝냈다. 비행단에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3개월을 합쳐 한 학기만
휴학하고 출산으로 인한 비행 휴가도 종료하였다. 전
투력이 저하된 조종사 맘(mom)의 복귀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관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조종사가 사관학교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생도대 훈육요원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
지만 나는 교수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조종사
가 왜 교수부에?”라는 놀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은근
히 재미있었다. 내가 졸업한 모교에서 대학에서 배운
전공을 후배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
로 영광스러우면서 큰 축복이었다. 모교에서 나에게
비행훈련을 받았던 당시 3, 4학년 후배들이 약복 차
림에 부드러운 말투를 썼던 나를 기억했다가 비행대
대에서 조종복에 날카로운 말투로 변한 내 모습을 보
고 당황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사관학교에서도 조종사로서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
한 노력을 쉬지 않았다. 트랙을 뛰고 성무봉을 오르
고 매일 아침 산길로 걸어서 출근하였다. 고요한 아
침 사슴과 고라니와 인사하며 걷던 그 길에 소복하
게 쌓인 나뭇잎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수업 준비
를 마치고 밤중에 걸어들 때는 수영장 길로 걸어오곤

했는데 그 길에도 고라니가 종종 나와 눈을 마주치곤
하였다.

공사 교수부 각처 대항 축구 대회에서 전투조종사
의 기질을 발휘한다고 중형무진하면서 한 골을 넣고
는 다리가 풀려 넘어져서 그동안 몇 가닥 간신히 붙
어 있던 좌측 무릎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고 말았
다. 이런 둔한 몸 같으니라고……. 다행히 어느 정도
일상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고 비행도 가능하게 되어
고등교관 비행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
년차에 비행단 작전과 작전계획장교로 근무할 때 시
간을 내어 인대 재건수술을 받아 정상적 활동을 하
게 되었으며 지금은 좋아하는 뽀박질과 운동을 하고
있다.

길지도 짧지도 않았던 지난날 동안 쉬운 건 단 하나
도 없었다. 바라 마지않았던 대학원 생활도 그랬다.
친정어머니가 육아를 거의 맡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녹록치 않았다. 논
문을 완성해야 하는 마지막 학기의 어느 날 새벽, 도
서관에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소리
내어 울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도저히 학업을 끝낼
수 있을 자신이 없었고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았다.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아무에
게도 읽히지 않길 바라는 나의 논문이 드디어 완성되
고 비행단으로 돌아갔을 때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하
는 곳이구나’하는 안도감이 들었다.

요즘 WAO 주파수에서는 여 조종사의 목소리를
자주 듣는다. 리더의 RT이다. 복좌기인 F-4와

F-15K를 제외하고 모든 전투 기종에서 여 조종사들이 임무를 맡고 있다. 요기 시절 원주에만 있던 여성 전투조종사들은 이제 모든 비행단에서 근무 중이다. 후배들은 고등훈련을 마치고 바로 F-16 비행단으로 가거나 LIFT(전투기 입문 과정)를 거쳐 F-16으로 기종 전환을 하여 전투대대원이 된다. 나로서는 뿌듯하고 흐뭇하나 때로는 부럽기도 하다.

13년 전 CRT를 수료하던 때, 49기 여 조종사들은 단계별 적응을 위해 A-37과 F-5에 한정 배치되었다. 이후 리더 승급 후 F-16으로 기종 전환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당시 편대장(지금의 4기 리더) 승급을 앞두고 있던 나는 가족계획 등 여러 고려 요소로 인해 그 기회를 포기하였다. 편대장 승급을 포기하였지만 주원리와 주희, 두 남매를 얻어 아쉬움은 전혀 없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 기종으로 전투조종사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전투조종사 개인에게는 매우 큰 기회이며 영광스러운 일이다. 특히 여성 전투조종사라면 더욱 그러하다. F-16 기종으로 전투조종사 생활을 시작하는 전투조종사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더

적극적인 대대생활을 했으면 한다.

공군인으로서 그리고 조종사로서 나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들이 있다. 기회는 권리이기도 하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 권리들은 누군가가 치열하게 시간을 보내 얻어진 것들이 많다. 그들의 치열한 시간을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도 치열하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그것이 먼저 치열하게 시간을 보냈던 누군가에 대한 작은 예의인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예천비행단 202전투비행대대에서 신나게 비행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 험해 보여서 가지 않는다면 그 길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일단 가 보고 위험을 살피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그 길은 또 다른 길로써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내일 일은 그 누구도 모르지만 오늘도 나는 비행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항공기에 오른다. 뭉치자! 쌍 도끼! ✂

박지연 소령은 현재 16전비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재경
49기

Red Flag 한국군 최초 임무편대장의 의의

2015년 8월 15일(현지 날짜 8월 14일), 대한민국이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이날에 필자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개최되는 Red Flag-Alaska훈련(이하 RF-A)에서 한국군 최초로 다국적 연합공격편대군을 지휘하는 임무편대장(MC: Mission Commander)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해외 원조로 인수된 L-4 연락기로 창설된 대한민국 공군이 이제는 연합 공군을 지휘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필자가 최초로 임무편대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행운임과 동시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본 기고문을 통하여 그 당시의 기억을 반추해 보며, 독자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RF-A훈련과 연합공격편대군 임무편대장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더불어 대한민국 공군 전투조종사가 RF-A 현장에서 최초로 임무편대장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

레드플래그(Red Flag) 훈련은 美 공군에 의해 개최되는 다국적 연합·합동전술 공중전투훈련으로써 현재는 네바다 주에서 개최되는 훈련과 미태평양사령부가 주최하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이다. 베트남전 공중전의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75년에 시작된 본 훈련은 다국적 공군

의 최신 전술과 대규모 전력이 동원되는 지상 최대의 실전적 공중전투훈련으로써 美 육·해·공을 비롯한 한국·영국·호주 등 다수의 우방국 공군이 참가한다. 대한민국 공군은 F-4, F-16PB, F-15K 등 신예 기종 도입 훈련의 일환으로 레드플래그 훈련에 참가하였으며, 또한 2001년부터 일곱 차례 C-130 수송기가 RF-A 훈련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2013년부터는 본국에서 운영 중인 전투기가 직접 공중급유를 통하여 태평양을 건너 훈련에 참가하였으며, 올해가 그 세 번째 되는 해이며, 이 중 레드플래그 훈련의 연합 공격편대군에 대한 Mission Commander(임무편대장)의 임무를 수행한 것은 2015년이 최초였다.

임무편대장(Mission Commander)은 레드플래그 훈련 중 다국적 연합공격편대군을 총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임무로는 정보 판단에 따른 임무 계획, 작전 계획 승인 및 전체 브리핑/디 브리핑 주관 등이 있으며 실제 공중 전투 훈련 시 공중에서 현장 지휘관 역할을 한다.

RF-A에서 임무편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비행 기량, 정신력,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美 공군이 제시하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행 기량에 있어서는 해 기종의 편대장 이상의 자격자로서 MC 자격과 공중급유 자격 등을 별도로 구비해야 하며, 영어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ECL(English Comprehension Level Test) 85점 이상 및 고난도의 영어 구사능력 시험인 OPI(Oral Proficiency Interview) 2+(듣기), 2+(말하기) 이상 수준이 요구된다.

최초 연합 임무편대장(Mission Commander)의 의의는

한마디로 ‘연합 공군을 지휘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능력을 구현시킨 것이다.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언급했듯이 70년 전 외세의 도움으로 조국의 독립을 이뤘던 한국군이 이제는 당당히 다국적 연합군을 지휘할 정도로 발전하였음을 증명한 사건”이었으며, 이를 통해서 몇 대의 연락기로 미비하게 시작했던 우리 공군의 성장 정도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는데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 공군의 성장 정도가 하드웨어(전투기, 정밀 무장, C4I 등의 무기 체계)적인 보강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조종사 기량, 정비력, 작전 계획 능력 등 인적요소)적인 부분에서도 한층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군 선배들에 의해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 공중급유기 및 각종 무장 획득 등과 같은 무기 체계 증가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발맞추어 공군력의 창끝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전투조종사의 기량, 작전 계획 및 전장 지휘 능력이 이제는 연합군을 리드하여 지휘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금번 훈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 RF-A 최초 임무편대장 임무 수행은 고독한 자신과의 싸움이였다. 그때를 생각하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두려움, 금번 훈련에 참가한 7개국 70여 항공기를 내 의지와 결심에 따라 지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전율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최초로 임무편대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등 정말 만감이 교차했던 시기였다. 개인적으로는 전투조종사로서 다시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평생에 걸



미국 태평양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된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연합 훈련에서 미션 커맨더(임무편대장)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공군 서재경 소령이 공격편대군 훈련을 마치고 연합 공군 조종사들과 함께 기지로 돌아가고 있다. 국외 연합 훈련에서 임무편대장을 수행하는 것은 서 소령이 최초이다.

이 날을 멋진 추억이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이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과업이었음을 안다. 이제까지 공군의 선배님들이 일구어 놓은 기반 아래 공군이 이만큼 성장하였으며, 그 시점에서 다국적 연합군 임무편대장이라는 것은 우리 공군의 저력을 보여주고 인정받는 하나의 Trigger Event가 아니었나 싶다.

마지막으로 본 훈련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열정을 보여준 공군의 지휘관 참모 및 2015 대한민국 RFA Team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향후에도 많은 후배 조종사들이 다국적 연합편대군 임무편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해 본다. ✈

서재경 소령은 현재 19전비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민정
55기

사법고시에 도전하면서

법무장교가 될 수 있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06년 공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법시험 합격자(46기 신기훈 중령)가 배출되고 나서 공군에서는 장기 법무장교 양성을 위하여 위탁 교육자를 선발하게 되었다. 이때 기성 장교 중 위탁 교육자를 선발하던 것과는 달리 졸업 예정자(4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법학 분야 위탁자 1명을 선발하였다. 당시 4학년 생도였던 나는 위탁 교육 공고에 무심코 지원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사관학교 시절에 있었던 많은 기회들에 도전조차 해보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후회하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무턱대고 지원했던 것 같다.(사실 졸업 후 사관학교 교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임관 후였다면 아마 지원하지 않

았을 것이다.)

나는 당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도 잘 몰랐던 터라 막상 위탁 교육에 선발되고 나서 덜컥 겁이 났다. 장기 법무장교 양성을 위해서 위탁 교육을 보내는 것이라면 ‘사법시험’을 합격해야 하는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심지어 사관학교에서도 ‘전산통계학’을 전공해서 법은 교양으로 들었던 법학개론, 전쟁법 과목을 수강한 것이 전부인데 법학을 공부해서 시험을 보아야 한다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법정학과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학부 편입 준비를 하면서 법학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분야라는 생

각을 하게 되고 공부에 점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는 어려우니 3년 동안 즐겁게 공부하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함께 법대에서 위탁 교육을 하고 있던 육·해군 선배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것 자체에 재미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함께 위탁 교육을 받고 있던 1년차에 함께 공부하던 선배가 합격을 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목격하고 나니 ‘시험 합격 불가능→ 열심히 노력하면 가능’으로 바뀌게 되었다. 학부 수업 시간에도 더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하고, 모르는 부분은 잠을 줄여서라도 반복해서 읽어 보고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했다. 결국에는 공부를 시작한지 2년 만에 1차 시험에 합격했고, 같은 해에 치른 2차 시험¹(초시)은 불합격하였고 학부 위탁 교육 기간이 종료되었다.

이때, 나는 굉장한 패닉에 빠졌었다. 육군은 1차 시험을 합격하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위탁을 연계해주었기 때문에 나도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2차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위탁을 연장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군 규정상 학부에서 대학원을 연계하여 나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2차 시험은 3일 동안 7과목을 치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기 전에 잠자는 시간도 쪼개어 공부에 매진하는데, 부대에 복

귀하여 업무와 함께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시험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이때도 우연히 나의 이러한 사정이 공군본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병과(정보통신)의 배려로 재경근무지원단에서 근무하며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중대원들의 응원과 도움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2010년 10월 26일, 나는 6.25전쟁 60주년 기념 공군 작전행사에 참석하시는 전역 선배님들을 모시고 수송기를 타고 18비에 출장을 가는 임무를 맡았다. 그때 기억으로는 합격자 발표가 16시에 나기로 되어 있어서 출장을 다녀오면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18비에서 수송기로 돌아오는 중에 합격자 발표가 났다. 수송기에서 내리자마자 휴대폰으로 합격 축하 연락을 받았는데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해서 그랬는지 너무나도 기쁘고 놀라왔다. 이 때 함께 버스에 타고 계시던 전역하신 선배님들께서 훌륭한 후배라며 칭찬을 해주시고 함께 기뻐해주셔서 그 기쁨이 배가되었던 기억이 난다.

처음 사법시험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을 때 가장 많이 생각났던 것은 ‘그 힘든 공군사관학교 생도 생활 4년도 무사히 마치고 졸업했는데, 이것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였다. 생도 생활은 평범한 여고생이었던 나의 정신적·육체적 한계를 경험하고 이를 이겨내는 연습을 했던 시간들이었고, 이를 무사히 마친 나라면 웬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지치고 힘들 때 내 자신이 계속해서

1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하면 2회 2차 시험을 치를 수 있음.

힘을 내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고,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영광을 얻게 한 힘이였다.

이렇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이 6년 전이었고,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법무장교로 근무한지도 벌써 4년이 되었다. 시험에 합격하였을 때 ‘공군의 소음 문제 해결과 군 인권 보장에 힘쓰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해서 그랬는지 법무장교가 되어 처음 2년간 맡았던 일이 공군의 ‘소음 소송’을 총괄하는 일이었고, 지금은 군사법원에서 군판사로 ‘군 기강 확립’,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그동안은 막연하게만 공군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군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장교가 된 이후 선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군‘법무관’이 되지 말고 ‘군’법무관이 되라는 것이다. 내 생각에 이는 법무장교의 역할은 법률적으로 따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군에 도움이



되는 법률적인 업무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다. 이러한 충고를 가슴에 깊이 새겨 공군에서의 ‘군’법무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법무장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김민정 소령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으로는 2번째로 사법시험에 합격, 지금은 공군 군사법원에서 군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SG생활안전(주)은 1950년에 설립, 1973년 방위산업체(제1호)로 지정된 이래
주요 방산제품 개발 및 생산을 통해 국가 방위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생방용품과 산업안전용품 전문업체로서 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K-1방독면



고무보트



화생방 보호의



일반방독면



전면형 방독마스크



방진 마스크

APEX

Defense Translation Inc.

Quality that matters-
Accuracy, punctuality, and
excellence in the defense industry

예비역 통역장교로 구성된 APEX의 통번역 팀은
최상의 영한 · 한영 통번역 서비스로
대한민국 국방사업에 기여합니다.

 **APEX**
Accuracy, Punctuality and Excellence in Defense Industry

 www.apextranlation.co.kr
 www.apextranlation.com



정규혁
3기, 동기생 회장

이만섭 국회의장을 추모하며

동기생인 이만섭은 대구 대륜중학교(6년제)를 졸업했는데, 1950년 6.25전쟁 발발 당시 연세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나자 육군통역장교 중위(종신중위 제도)로 복무하던 중 창공의 보라매의 꿈을 안고 공군사관학교 제3기로 입교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큰 사건이 벌어졌으니 3학년 마지막 비행훈련 및 특기훈련에 나가기 전 대전 항공병학교로 이동해 지상훈련을 할 때 일어난 학도간부후보생과의 충돌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그때는 내무반이 퀘셋(quonset)이었다. 취침 소등 시간에 주변사관의 인솔 하에 유성 온천에 갔다 온 학

도간부후보생들이 술김에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다. 이에 불침번이 가서 주의를 주었으나 여전했고, '군기강이 엉망인 것이 아닌가. 취침 소등 시간에 떠들다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혈기에 울컥한 우리는 모두 기상해 옆 퀘셋으로 몰려가 그들을 두들겨 패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그때 주모자 열 명은 폭동죄로 대구 공군본부(대구 칠성국민학교 자리)로 이송되어 영창 생활을 했다. 이중에 여섯 명은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네 명은 기소유예로 풀려나와 사관학교로 복귀했다. 악몽 같던 영창 생활이 지금도 생생하다.

결국 여섯 명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고, 참모 총장의 명으로 면 징역, 퇴교 및 일등병으로 제대 조치되었다. 그들은 2004년이 되어서야 명예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이만섭은 ‘오성회(생도 자치회)’ 회장으로서 정의를 위해 그 충돌의 책임을 졌다.

이만섭은 임관 50주년 기념행사와 명예졸업장 수여식 때 제일 먼저 사관학교에 도착해 자리에 앉아있었다. 김동호 동문이 그에게 농담 삼아 “아니, 높은 분이 이렇게 빨리 와있어?”라고 했더니 “내가 일등병 출신인데 뭘 그래”라고 대답해 웃음이 터졌던 기억이 난다.

결국 그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학년으로 복학했다. 연세대학교 재학 시절 응원단장을 했던 그는 당시 얼굴에 수염을 길러 털보 응원단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이만섭은 1957년 동화통신 기자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해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주일특파원, 주미특파원 등을 지냈다.

또 그는 1960년 4.19 직후, 총선이 새로 치러지지 않아 여전히 국회 다수당이었던 자유당이 부정선거 관련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모습을 의사당 기자회견에서 내려다보다 “이 자유당 도둑X들아!”라고 소리쳐 국회 속기록에 올랐던 일화로도 유명했다.

이만섭은 5.16 직후에 윤보선 전 대통령이 “군사정부는 민간인에게 조속히 정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

한 것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육군형무소에서 옥고(獄苦)를 치르는 필화(筆禍)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국가 재건최고회의 의장이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단독 인터뷰한 것을 계기로 대통령과 친분을 맺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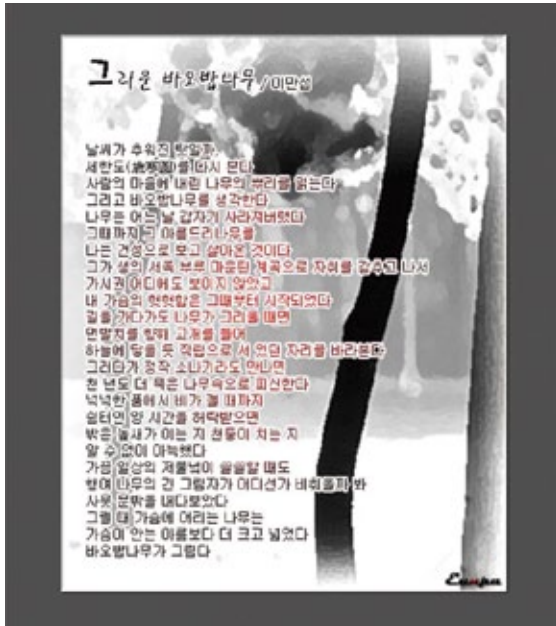
그는 1963년 6대 공화당 전국구로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 이후 7대, 10대, 11대, 12대, 14대, 15대, 16대 국회에 각각 당선돼 8선을 기록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이만섭은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3선개헌에 반대하며 당시 실력자이던 이후락 비서실장과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강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김형욱 정보부장의 방해공작으로 대구에 출마한 이만섭은 낙선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더부살이로 팔시(忽視)를 당하며 인고(忍苦)의 세월을 지내다가 재기(再起)했다.

그는 14대, 16대 국회 때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정당인으로서의 국민당 총재 및 국민신당 총재 등을 지냈다. 그 밖에 국제의회연맹 회장, 한·인도의원 친선협회 회장 등으로도 활동했다.

돌이켜보면 고 이만섭 동문은 참으로 파란만장하고 바른말 잘하는, 강직하고 정의로운 인생을 살았다. 이만섭 동문은 83세(실은 84세)로 을미년(2015년 12월 14일)에 생을 마감했다. 공군사관학교 3기생 동기생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만날 때마다 같이 고생했던



일(추위, 배고픔과 고난의 행군, 명령 아래 추운 12월의 진해 앞바다에 옷을 입은 채 돌진했던 일)들을 되뇌며 꺾꺾대며 웃던 그의 씩씩한 모습이 몹시 그림다.

다음은 이현동 동문의 작사를 음미하면서

이: 이를 수 없는 보라매의 꿈(전투조종사)을 뒤로하고

만: 만성(대기만성)을 이루어 두 차례 국회의장이 되었으니

섭: 섭섭하더라도 대신 삼권분립의 국회 수장으로 만족하고

을: 을미년에 운명을 달리한 그를 생각하며

추: 추모하면서 그리움이 쌓이고

모: 모두가 그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하: 하늘에 있는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

며: 며칠 동안 생각이 안 나 끔끔대다 이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

편집진

공사에 원자력계의 대부 한필순(5기) 기념관을...

성무지 편집진은 공사인으로 군문의 길을 걷기 위해 성무대를 들어왔던 동문들 중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분을 찾기로 했다.

한 분은 앞에서 소개되었던 故 이만섭 동문(3기)이고 또 한 분은 공사를 졸업하고 국방과학 분야에 진출했다가 국방과 전혀 다른 분야인 원자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원자력의 대부로 칭송을 받은 故 한필순(5기) 동문이다. 아래 글은 일간지에 한필순 동문 타계를 전한 기사와 칼럼 그리고 타계하기 전 그에 대한 기사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원자력 독립 위해 미쳐보자”외쳤던 한국 원전 대부

한필순 원자력연구 고문 별세...매일경제 2015.01.25 원호섭 기자

한국 원자력계의 대부(代父) 한필순 한국원자력연구원 고문이 25일 오전 10시 30분께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故(故)



한필순 고문은 1933년 평남 강서 출신으로,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물리학 학사,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물리학 석사,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연구원 생활을 시작한 군출신 과학자다.

1970년대 황무지와 다름없던 한국 방위산업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킨 주인공으로 낙하산, 방탄헬멧, 한국형 수류탄 등의 개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군에서는 “한국 방위산업 현장에는 한필순이 있다”는 말이 퍼져 있을 정도였다. 고인은 애국심이 남다른 과학자였다. 1970년대 미국의 한 대학에서 조교수 자리를 제의받았지만 “무기를 만드는 데 당선이 필요하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한마디에 꿈을 접고 한국에 남았다. 신군부가 들어서고 정치 혼란기였던 1982년, 고인은 에너지 연구소 부소장 겸 대덕공학센터장에 취임하면서 원자력과 인연을 맺었다.

—중략—

고인은 ‘기술이 없으면 노예가 된다’는 확고한 철학으로 원전 기술 자립화를 추진했다. ‘필(必) 설계 기술 자립’이라는 액자를 들고 연구원들과 만세 삼창도 외쳤다. 연구원들이 머뭇거리자 “우리 한번 미치자!”며 먼저 만세를 외쳤다. 이후 연구원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설득해 마침내 한국형 연구용 원자로와 핵연료, 한국형 경수로 원전 개발을 시작했다. 고인은 1984년부터 7년 동안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이 모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당시 개발된 한국형 경수로는 영광원전 3·4호기에 적용됐으며 이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모델인 ‘APR1400’의 모태가 됐다.

고인은 원전 연료가 되는 핵연료 국산화에도 큰 공을 세웠다. 고인은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함께 연구할 외국 회사를 모집할 때 미국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사를 탈락시켰다. 기술 제공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후 고인은 핵연료 전량 국산화에 성공해 “유전 개발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원자력계는 고인이 없었다면 한국 원자력 기술 자립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고인은 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원자력 기술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진 한국 원자력계의 대부”라며 “이분이 아니었다면 원자력 수출도, 연구용 원자로 개발도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억시]

원전기술 국산화 성공시킨 '원자력 산업의 代父'

한필순 한국원자력연구원 고문
조선경제 2015.01.26 박건형 기자

한 고문은 취임과 동시에 ‘원자력 기술 자립’을 선언했다. 연구소 내부에서는 “원자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무리한 일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당시 일본의 원전 기술력을 100점이라고 하면 한국은 ‘10점’수준에 불과했다. 한 고문은 “기술이 없으면 노예가 된다”면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경수로 원전 개발 사업을 꾸준히 추진했다. 1984년부터는 7년간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을 맡으며 원전 설계 기술과 핵연료 제조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EE칼럼]

한국형 원전 개발의 대부, 故 한필순 박사

에너지 경제 2015.9.21 함철훈 한양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

UAE에 수출된 한국형 원전 개발의 대부는 누구일

까,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당시 원자로의 기술 개발에 재원을 조달한 한국 전력의 유력 인사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올 1월 26일자 모 신문은 하루 전 타계하신(1월 25일) 한필순 박사에 대해 '원전 기술 국산화 성공시킨 원자력 산업의 대부'라는 제목의 추모 기사를 실었다. 필자 역시 故 한필순 박사가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원자력 기술 자립의 대부'라는 데 이견이 없다. 고인은 엄청난 반대와 고초를 견디고 한국형 원자로를 독자 개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으며, 첨단 독자 기술의 개발 및 대규모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자립사에 눈부신 업적을 남겼다. 故 한필순 박사께서 이러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저력은 방위산업 육성의 주역으로서 무수한 위기와 고난을 극복한 실천적 경험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일본을 앞선 것이 있다면 바로 종합산업이자 국력산업인 원전이다. 원전 턴키 수출로 인해 당시 일본 사회가 받은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도였다. 물론 故 한필순 박사가 자기 주머니의 돈을 털어 원자력 기술 자립을 이룬 것도 아니고 혼자 힘만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故 한필순 박사를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자립의 대부로 자타가 공인하는 것은 고인께서 한정된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했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케 하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명지휘자인 원자력기술 자립의 '마에스트로'였기 때문이다.

늦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 자립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故 한필순 박사의 업적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 사회와 원자력계는 故 한필순 박사를 각별히 기억하고 '한필순 기념관의 건립'등 이분의 업적을 전시할 기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손현덕의 是是非非]

UAE 원전 수주 진짜 영웅 '한필순 사단'

매경이코노미 제1539호(2010.01.13)

고리 1호기가 건설된 후 4년 뒤인 82년 3월, 대덕 공학센터장에 물리학자인 한필순 씨(77)가 임명되었다. 당시 대덕공학센터는 '미운 오리 새끼'였다. 과학기술처는 공공연하게 폐지론을 들먹였고 용역비를 제공하는 한국전력으로부터는 서자 취급을 받았다. "도대체 그동안 한 일이 뭐야? 고작 감자에 방사선 쏘여 식품 개량한 것밖에 더 있어?"라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졌다. 연구원들의 사기는 바닥이었다. 비전이 없다면서 박사들이 하나둘씩 떠났다. 5시만 되면 어김없이 퇴근.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연구를 하겠는가. 한필순 씨는 취임하자마자 군기를 잡는다. "이제부터 나에게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라. 우리가 국가를 위해 할 일은 분명히 있다.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으나, 우리에게 66만㎡(20만평)의 땅이 있고 300명의 고급 인력이 있고, 좋은 건물이 있지 않은가." 그는 오후 8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통근 버스를 배정했다. 당시만 해도 대덕은 오지였다. 밤늦게까지 연구원들을 붙잡아두려면 교통수단이 필요했다. 그래도 야근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경비원들에게 야근자를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연말 통계

를 내서 이 중 10명을 특진시키는 방법으로 몰아붙였다.

다음으로 새롭게 할 일은 바로 핵연료 국산화 작업이었다. 핵연료는 핵연료봉의 집합체다. 원자력 발전을 하려면 우라늄을 담배 필터 모양으로 만든 펠릿(Pellet)을 다발로 묶어야 한다. 이것을 담을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핵연료다. 원자력 발전의 기초 중 기초인 핵연료를 국산화하자고 한 것이다. 그다음은 터빈을 만드는 것, 더 나아가면 원자로를 설계하는 것이었다. 한필순 씨는 목이 아프도록 “기술이 없으면 노예가 된다”는 신념을 주입시켰다. 안팎으로 술한 반대가 있었고, 연구비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독심과 고집으로 밀고 나갔다. 한전에서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며 턱도 없는 소리라고 할 때 그는 자리를 걸고 싸웠다.

역사와 신화를 창조한 한국의 원자력기술

코나스(konas) 2010,2,4 이현오 기자

2월 4일 국제외교안보포럼 제455차 조찬 강연회서 장인순 박사 강연 내용 중

2009년 12월 27일은 UAE에서 날아온 400억불 UAE원전 수출 계약소식에 이 땅에 사는 원자력인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행복했던 날이다. 왜냐하면 이는 바로 한국이 원자력 기술식민지에서 원자력 기술 독립국으로 태어난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최초로 원자력발전 기술 자립을 주도하고 기획했던 그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인 한 필순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온 국민이 그분을 기억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돌아온 원자력 대부 ‘한필순’...

“원자력, 대통령이 챙겨야”

대덕 넷 2010.10.26 길애경 기자

2010년 10월 26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후배 과학자들과 원자력 연구원이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자립의 대부 한필순 전 소장의 강연을 마련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자립의 노력’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한 그는 “원자력은 국가안보와 직결한다”면서 원자력 기술 자립의 이유와 대통령별 원자력 기술 자립에 대한 관심과 기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원자력 기술 자립의 시작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다. 이 대통령은 문교부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원자력과를 두고 원자력원을 개원했다. 또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제너럴 오토믹사의 트리가 마크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자립의 역사가 태동하게 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의 원자력 연구소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한국핵연료개발공단을 설립해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으며 제재를 받기도 했다. 한 전 소장은 박 대통령과의 일화로 “개인적으로 미국 대학의 조교수 초청을 받았다. 가고 싶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해 꿈을 접었다”면서 당시 개발한 무기들을 언급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꿈을 바로 접을 수 있을 정도로 애국자였던 것이다.

1982년부터 원자력연구와 인연을 맺은 그는 전두환 대통령 때를 원자력 기술 자립이 확고해진 시기로 들었다. 한필순 전 소장에 따르면 이 시기에 우리나라

는 미국과 매우 미묘한 관계를 유지했다. 미국은 전두환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원자력 연구소 폐쇄와 국방과학연구소 인원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외견상으로는 원자력 연구소를 폐쇄했지만 담당 장관에게 지시해 원자력 연구소 회생 전략을 세우도록 했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이름을 바꿔 유지하는 것이었다. 원자력 연구소 대신 에너지 연구소로 이름을 바꾸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를 핵연료 개발 사장으로 임명하고 일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시하며 힘을 실어줬다. 한 소장장은 “원자력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다.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노태우 대통령과도 잇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 당시 미국은 비핵화를 선언하며 한국에 우라늄 농축 기술, 재처리 기술, 중수 기술, 원자력 기술의 적대 국가 수출을 금지했다. 노 대통령은 그와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그에게 한국의 원자력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핵무기 대신 평화적 기술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에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면 원자력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원자력 발전 기술 안에 모든 핵심 기술이 다 들어있다고 말하면서 원자력 기술 자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대통령은 그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원로 과학자들은 “원자력 기술 자립은 당시 천억 과제로 우리나라 최대 과제였다. 통치권자가 직접 나섰고 이를 이끌 진

정한 리더가 있었기에 그렇게 큰 과제를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한 소장님의 소명 의식과 국가관에 많은 인재들이 몰려들었고 사심 없이 일에 몰두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필순 박사 애국심이

‘대한민국 원자력 자립국’ 기틀 마련”

원자력 신문 2012.1.9 이석우 기자

－ [특별 인터뷰]강박광 전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국장(박사)－

〈구세주로 등장한 한필순 박사와 자력 개발로 핵연료 국산화 성공〉

이러한 어려운 기술 자립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구세주로 나타난 사람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대덕공학센터 분소장(구 핵연료개발공단 단장)으로 1982년 스카우트된 한필순 박사였다.

한필순 박사는 1983년 핵연료주식회사의 사장도 겸임하고 1984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소장으로 임명되어 살신성인적 리더십을 발휘했다. 한필순 박사는 모든 것이 중단되고 폐허 상태로 전락한 핵연료 국산화 사업을 다시 추슬러 자력 개발에 성공하는 기적을 이루어낸다. 그는 특유의 집념으로 한전을 설득하여 연구 자금을 얻어내는 독심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원자력기술 자립의 첫 번째 도전으로서 자력으로 이루어낸 핵연료 기술의 자립은 민감한 부분의 원자력 관련 기술 중 절반을 국산화했음을 의미한다.

한필순 고문은...

한국형 원자로-핵연료 개발 주도 '원자력의 대부'

동아일보 2012. 12.25 허두영 과학동아 편집인

한필순 고문은 1984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을 맡아 최장수 재임 기록을 세운 7년 동안 한국형 원자로와 한국형 핵연료를 개발하여 '원자력의 대부'로 꼽힌다.

지도자의 자주국방 의지(ADD창설, 원자력 기술 자립까지)

월간 경제풍월 제180호(2014년 8월호)에 게재된 한필순 박사의 책 소개 글 중 일부에서 그는 ADD창설 멤버로 12년간의 경험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부정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연구원에게 100가지 부정적인 환경에 놓여있더라도 살아날 구멍이 한 가지는 있을 것이니, 부정에서 긍정으로 사고를 전환하라고 외쳤다"라고 진술한다. 그리고 "연구원은 연구실을 지키라"는 조치를 취하고 본인이 직접 과거처 장관을 찾아가 공무원이 연구원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건의했다. 이것을 차관, 국장, 담당과장에게 설명해 연구 분위기를 조성했고, 소장으로 있는 9년 동안 이 방침을 지켰다고 한다.

하루살이 변영 /

대덕원자력포럼 한필순 박사 기념사업회 엮음

매일경제 2016.02.26 김슬기 기자

주변 강국들의 감시와 견제 속에서 원자력 연구를 이끌어온 국내 원자력 기술의 선구자 한필순 박사의 유고집이 나왔다. 생전에 그가 쓴 칼럼인 경제풍월의

원고를 모아 엮은 책이다.

내용을 보면 후배 과학자들이 고 한필순 박사를 존경하고 따랐던 이유는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의 대부로서 그가 가진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 사명감 그리고 리더십이 후배들에게 오래도록 귀감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편집진이 고 한필순 동문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이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시종일관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원자력 불모지에서 이제 원자력 수출 선진국이 되었다. 그 중심에 우직하고 충성스럽고 위대한 고 한필순 동문과 같은 애국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정책은 이처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국방과학과 원자력 분야에서는 고 한필순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유고집 출판, 강연회 및 기념관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그의 모교와 우리 공사인들은 그를 잊혀진 인물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空土+訓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면서 이 시대에 그분의 리더십이 간절해진다. 무한대의 창공을 향하는 만큼 공사의 영역을 더욱 넓어져야 한다. 닫힌 공사가 아닌 열린 공사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또 다른 국방, 원자력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한필순 박사 기념관을 공사에 세우는 것은 어떨까. 애국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젊은 보라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김덕수
공주대학교 교수, 공군역사지문위원

故 오충현 공군 대령과의 인연 그리고 공군 사랑

2013년 10월, 나는 故 오충현 공군 대령(이하 오 대령)의 군인 정신을 조명한 책 『하늘에 새긴 영원한 사랑, 조국』(출판사: 21세기북스)을 펴냈다. 나와 오 대령 간의 인연은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를 알게 된 것도, 그의 삶을 추적하며 그와 연관된 분들을 만났던 것도, 책을 펴낸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책을 집필하는 동안, 그는 수차례 내 꿈에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했다. 뭔가 그도 응어리졌던 게 많았던 모양이다. 그의 삶이 애처롭고 안타까워서 또 집안의 기둥이었던 그를 잃고 상심했던 부모님들의 절망이 너무나도 마음 아파서 참 많은 눈물을 쏟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작업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의 묘지 앞에서 책 헌정식을 마친 이후로 그는 더 이상 내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의 한이 풀렸는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 이제 그가 편안하게 영면의 길로 들어선 것 같아서 무척 기쁘다. 더욱이 책 출간으로 귀한 아들, 남편, 아버지를 잃고 절망의 나날을 보냈을 그의 유족들에게 작은 위안을 선물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제 나도 그들 유족과 친형제처럼 지내고 싶다.

故 오충현 공군 대령!

나는 책 출간을 계획할 당시부터 공군 내부에서 떠도는 그에 관한 풍문을 대략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

런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궁금했다. 또 그 배경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다. 만약 인격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면년부터 책 출간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 ‘붓 끝은 정직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군인 정신’과 그의 ‘행적(行跡)’사이를 오가며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또 그가 깨알같이 메모해놓은 기록들도 꼼꼼하게 검토하며 콜롬보 형사처럼 그의 삶을 추적해 나갔다. 그때 내가 했던 모든 것을 고백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오대령에 대해 내린 평가는 “그래도 군인으로서의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책 집필을 시작했다.

물론, 인간적인 실수가 있긴 하였다. 하지만 그가 생전에 보여준 투철한 군인 정신과 부모님에 대한 극진한 효성은 그런 결점을 극복하고도 훨씬 남았다. 책을 집필하는 내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그대들은 영적으로, 심적으로 완벽한 존재였는가? 지금도 완벽하게 행동하며 사는가?”나는 오랫동안 리더십을 연구해온 사람이다. 우리 근현대사에 등장했던 뛰어난 리더들도 사실은 인간적인 실수나 결점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도 세인들이 그들을 훌륭한 리더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업적이나 정신적 가치가 그런 실수나 결점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공군과 오 대령의 모교 공사(空士)는 책 출간을 계기로 그를 재평가해주었다. 당시 성일환 참모총장께서는 공사 교정에다 그가 남긴 일기 일부분을 돌비석에 새겨 주었다. 수많은 국민들에게 세찬 울

림을 주었던 그의 일기는 이제 공사의 후배 생도들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역설해주고 있다.

2013년 6월 26일, 공사 선배님들은 그에게 ‘자랑스런 공사인 상’을 수상했다. 그날 그의 모친은 수상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며 오열하셨다고 한다. 아들에 대한 좋지 않은 풍문 때문에 누구보다 마음고생이 크셨기 때문이라. 노모의 한을 풀어주고 아픔까지 보듬어주신 공사 20기 선배님들께 책의 저자로서 깊은 감사와 함께 큰절을 드린다.

그 이후로도 나의 공군 사랑은 계속되었다. 2015년에는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 팀 블랙이글스에 대한 책 『블랙이글스에게 배워라』를 출간했다. 그리고 지금은 『항공정비록』의 출간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항공정비록』은 6.25남침전쟁 중 우리 공군 최초의 100회 출격 조종사이자 제11대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김두만 총장님의 인생 이야기를 평전의 형식으로 펴낸 것이다. 그 속에는 흥미진진한 공군의 정사와 야사들이 많이 등장한다. 자서전보다 객관적이며, 여러 검증 과정을 거친 것이므로 기대해도 좋을 만한 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군인이 내게 감동을 준 것은 아니다. 나도 어느 공군 병사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바로 ‘막말 강연 사건’이다. 재작년 일선 공군 부대에서 병사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던 적이 있다. 한 공군 부대에서 근무 중 자살한 병사의 얘기

를 전해 듣고 안타까운 게 많았다.

그래서 1983년 내가 사단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부대 최고 지휘관의 사랑을 받았던 사례를 들려주며 “열정적인 자세로 근무하고 전우들과 좋은 인연을 쌓도록 노력하라.”는 강의를 했다. 그런데 그 병사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한 데 앙심을 품은 어느 병사가 한 신문에 나를 막말 강연자로 고발했던 것이다. “김덕수 교수가 우리들에게 자살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나는 충격에 빠졌고, 한참을 방황해야 했다.

과거 나도 오 대령 못지않은 힘든 시기를 술하게 극복하며 오늘까지 살아온 사람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가슴속에 깊게 아로 새긴 글귀가 있다. “순간적으로는 남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며, 진실은 반드시 고개를 쳐들고 나오게 된다.” 힘들 때마다 ‘정직하게 살자’고 다짐하며 내 가슴에 새겼던 좌우명이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군과의 인연을 끝낼 것을 신중하게 고민했다.

그러나 오 대령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사실 나는 공군 강의에 욕심을 낸 적이 없다. 강사료가 적은 데다 다른 외부 기관에서 강의 요청이 꽤 많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공군 강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가계(家計)에는 마이너스다. 또 나는 공군에 강사료를 입금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일단 강의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강사료는 쥐도 그만, 주지 않아도 그만이었다. 그들이 강사료를 언급하면 “됐다. 이 부대 방문으로 나는 강사료 이상을 배우고 간다.”고 대답하며 살아왔다.

아마 이 글을 읽는 각급 부대 실무 관계관들이 그것을 증언해줄 것이다. 그런데도 공군에서 강의를 부탁하면 거절한 적이 없다. 어떤 경우에는 외부 기관의 고액 강의도 포기하고 일선 부대 강의를 하러 갔던 적도 여러 번이다. 또 부대 방문 시, 빈손으로 간 적도 거의 없다. 강사료에 버금갈 정도의 선물을 준비해서 갔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공군 부대를 방문하면서 지켰던 철칙이다.

그런데도 어느 누가 나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것이다. 자살 병사의 아버지가 공군본부에다 이런 비난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김덕수에게 공군 강의를 시키지 말라.”고 말이다. 아마도 그는 내 공군 강의를 특혜로 착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그에게 ‘공군 강의는 특혜가 아니라 헌신이다.’라는 사실을 꼭 가르쳐주고 싶었다. 또 강연장에서 막말 강연이라고 주장했던 문제의 공군 병사와 같은 기수의 병사를 만나면 강의 말미에 “내가 정말로 당신들에게 막말 강연을 한 게 맞느냐?”는 질문을 던지곤 했다.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또 나는 그들에게 진심을 담아 충고했다. “제대 후엔 부디 모군인 공군을 비난하지 말고 사랑해 달라!”라고 말이다.

얼마 전 공군의 한 기능 사령부의 예하 부대에서 강의를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 어느 병사가 자신을 당시 강연을 들었던 공군 사병이라고 소개하며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교수님께서 자살 병사의 이름을 거명한 것은 맞지만, 강의 내용의 본질은 막말 강연이 아니었습니다. 2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면서 교수



님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입대 동기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글이었다. 그것을 계기로 그들과의 악연을 잊기로 했다.

오 대령과 그의 아버지 오종은 씨는 내게 큰 스승이었다. 인간의 품격은 학식이 많고 적음에 비례하지 않는다. 오히려 식자일수록 교활하고 이기적이며 안하무인(眼下無人)인 경우가 많다. 그의 백부는 일찍부터 사회주의에 눈을 떴고 그쪽에 몸을 담았다가 6.25 남침전쟁 때, 좌익분자로 몰려 죽음을 당했다. 그의 부친인 오종은 씨는 형의 죽음을 목도하고 두 아들을 나라에 충성하는 인물로 키울 것을 다짐하고 장남인 오 대령에게는 충성할 충(忠)자를, 차남인 오광현에

게는 빛날 광(光)자를 이름 한가운데에 넣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모두 군 장교로 만들었다.

두 아들이 군문에 들어서자 오종은 씨는 집안에 돌탑을 세우기 시작했다. 자식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광현 씨는 자신의 형이 장군까지 진급하기를 기도하며 형 대신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전역을 신청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다. 오 대령이 안타깝게 산화하자 광현 씨는 자신의 전역을 후회하고 있다. 그도 육군에서 잘나갔던 ROTC 출신 장교였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독백처럼 “이럴 줄 알았으면 저만이라도 군문에 남아서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렸어야 했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라는 말

을 남겼다.

오종은 씨는 장하고 귀한 아들을 국가에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공군에 대해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다. 대신 가슴 속으로 그 모든 아픔을 삭이다가 화병으로 한 많은 생을 마감하였다. 그의 모친 역시 청빈하게 살고 계시지만 행동만큼은 여장부의 모습 그대로다. ‘이승을 떠나는 그날까지 자신은 아들이 일기 에다 부탁해놓은 대로 살다가 떠나겠다.’는 게 그분의 단호한 뜻이다. 또 오 대령의 아들 상철군은 아버지의 순직으로 군 입대를 면제 받았지만, 현재 육군에서 군 복무 중이다.

이것을 보면 집안 내력은 숨길 수 없는 것 같다. 그의 직계 조상 중에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분 계신다. 바로 오익창이라는 어른이다. 그 어른은 동북 오씨로서 전남 해남이 고향이다.

1597년 9월 16일에 치러진 명량해전에서 오익창은 13척의 판옥선을 갖고 133척의 세키부네와 맞서야 하는 이순신 장군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조선수군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의병 지도자였다. 그는 고

향의 어선(일명, 鄉船)을 이끌고 13척의 판옥선 후미에서 조선 수군의 전선이 많은 것처럼 위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 그는 조선 수군의 판옥선과 피난선단을 왕래하면서 의곡을 전달하고 동과(冬瓜)를 공급해서 조선 수군들의 갈증을 풀어주며 솜이불에 물을 적신 다음 왜적의 조총탄을 막게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도 오익창의 나라 사랑 정신이 오 대령과 그의 부친 오종은 씨에게 대물림이 됐다고 믿는다. 그렇게라도 해야만 오 대령의 유족들이 보여준 나라 사랑 정신이 제대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오 대령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존재는 공사 생도 교육에 대한 정당성을 온몸으로 입증시켜 주었다. 또 그가 일기에다 남겨놓은 참 군인 정신은 향후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할 빨간 마후라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 역시 그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 공군의 참 모습을 외부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드린다. 사랑하는 故 오충현 공군 대령의 명복을 빌며, 그 유족들에게 따뜻한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 ✕

Combat Proven Self-Protection for all Types of Aircraft



AIRCRAFT TYPES

- F-16 A/B/C/D and block 60
- F-111 C/G
- A-10
- Tornado GR4(A)
- Chinook CH-47 D/F
- Apache AH-64D
- Cougar AS-532U2
- EH-101
- C-130 H/J
- P-8A - E737EH-101

ALLIES IN INNOVATION

When pushing the frontiers of engineering excellence, it helps to have a partner that shares your vision and ambition.

**FIELDIED INTERNATIONALLY ON 2,500+
MILITARY AIRCRAFT**

TERMA[®]
ALLIES IN INNOVATION

  
www.terma.com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의 평화

누가 지켜갈까?

PONGSAN

우리 육해공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탄약을 자체 개발·생산하는 풍산,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일관생산시스템을 갖춘 종합탄약 생산기업,
풍산이 평화의 가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PONGSAN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정로 23 풍산빌딩
TEL : 02-3406-5114 FAX : 02-3406-5400



이억수

14기,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행사 위원장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생동감이 넘치는 신록의 계절 5월에 14기 사관의 졸업 및 임관 50주년 기념행사와 24기, 34기, 44기, 54기 사관의 졸업 및 임관 기념행사를 마련해 주신 공군사관학교 이진완 교장님 그리고 총동창회 이계훈 회장님과 23기사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처럼 믿음직스럽고 패기에 찬 모습으로 선배들의 졸업 및 임관을 축하해 주시는 후배 사관생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오늘 자랑스러운 후배 사관생도 여러분을 대하면서 지난 세월에 대한 만감이 교차되는 소회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14기 사관이 임관한지도, 벌써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지난 50년은 격동과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6.25전쟁을 겪었으며, 戰後(전후), 미국의 원조를 받으며 생존해야 했던, 최빈국의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 시대를 이루어,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함으로써 역사상, 원조를 받았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군에 의존했던 우리 공군은 이제 최신에 전투기인 F-16전투기와, F-15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F-35스텔스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더욱 막강한 공군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훈련기를 개발하여 조종사를 양성하는 한편,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엔의 지원에 의존했던 우리군은, 이제 13개국에 파병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우리 14기 사관은 현역 시에는 국가 안보의 주역으로, 전역 후에는 경제 발전의 주체로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하여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모두가 모교 성무대에서 배우고 익힌 지성, 덕성, 용기가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친애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우리의 안보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의 주변국과 동북아 정세는 국가 간 갈등과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와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은 완벽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여 전쟁을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전은 과학기술과 첨단 무기 체계의 발달로, 전통적인 전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전군 파괴 중심의 작전에서, 적의 군사능력을 무력화 시킨 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상군이 적지를 점령하는 형태로 바뀔으로써, 각 군의 독립적인 작전 영역 또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공군의 작전 영역은 국력 신장과 함께 더욱 확대 되었습니다. 해상 교통로도 확보해야 하고, 독도와 이어도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군력은 역할에 걸맞게 더욱 증강되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사관생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전쟁 억제와 전쟁 승리의 핵심인 우리 공군의 역할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도 더욱 커졌습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주역으로 활동할 21세기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군에 근무하는 동안 통일은 필연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강한 공군을 건설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것도,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해, 산업화 시대에서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적합했던 지식과 배웠던 방식만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세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명예를 생활의 제일의 가치로 삼으면서 지식과 덕성, 체력 함양에 매진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합니다.

우리 14사관 또한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50년간 생사고락을 같이한 공사인으로, 전 우애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공군사관학교와 공군 발전을 성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이 뜻 깊은 행사에 애석하게도 함께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신 열다섯 분의 동기생들을 못내 아쉬워하며 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오늘 졸업 및 임관기념식을 함께한 24기, 34기, 44기, 54기 후배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다시 한 번 이 뜻 깊은 자리를 세심한 배려와 정성으로 마련해준 이진완 장군님과 지휘관, 참모여러분 그리고 총동창회 이계훈 회장님과 23기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공군사관학교와 우리 공군의 무궁한 발전과 사관생도 여러분의 무운장구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약력 제26대 공군참모총장, 전 석유개발공사 사장



김현

14기, (예)공군소장

14기 사관 생도시절, 그 후 50년을 되돌아본다

대방동 입구에서 합승 버스로 바뀌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려 공군사관학교 정문에 이르렀다. 예복을 입은 안내 생도들의 인솔로 첫발을 내디디던 그날, 1962년 2월 25일부터 군인의 길이 시작되었다. 1주간의 가입교 기간과 6주간의 기본 군사훈련은 우리를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이후 생도 생활 4년은 입교 당시 고등학교 갓 졸업생, 재수생, 대학생, 아니면 직장인이었던 간에 과거 우리가 아닌 전혀 새로운 인격체가 되게 하였다.

생도 교육은 긴 군 생활에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문제를 해결하여 임무를 수행하며, 인내하고 화합하는데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교훈 ‘武勇(무용)’과 ‘空士十訓(공사십훈)’은 평생의 신조가 되었다. 여기에 장교

임관 이후의 경험이 더해져 경륜이 되었고 이는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노후 생활에 적응하는 데도 지침이 되었다.

약관을 전후로 한 나이에 군복을 입고 1966년 3월 3일 그 어려운 생도 생활을 마칠 무렵, 우리는 충성스러운 공군인으로서 信念(신념)의 鳥人(조인)이 되자고 14기 생회를 「忠鳥會(충조회)」라 칭하고 장교로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임무에 최선을 다하였다. 군복을 벗고 사회인이 되어서도 여러 분야에서 나라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제 졸업과 임관을 한지 50년이 흘렀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이르러 우리의 긍지와 열정의 여정을 더듬어 본다.

보라매의 꿈, 사관생도 시절

6.25 전쟁이 종성을 멈춘 지 채 10년이 안 되어 4.19 혁명이 일어나고 5.16혁명이 일어났다. 그 이듬해 우리는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였다. 각 지방에서 신체검사와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서울 공군사관학교에서 정밀 신체검사와 체력 검사를 거쳐 20대1의 경쟁률을 통과해 70명이 합격하였다.

가입교 기간에는 “차렷!”, “열중 쉬어!”, “앞으로 갓!” 부터 시작해 제식훈련을 받았다. 기초 훈련과 적성평가를 거쳐 1962년 3월2일 입교식이 거행되었다. 이어지는 기본 군사훈련 기간에 부대 훈련, 총검술, 부대 전술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야 메추리 생도로서 1학년 정규 과정이 시작되었다. 사관학교는 생도들에게 장교로서 필요한 소양을 모두 가르쳐주는 전인교육을 하고자 했다. 강의실에서는 대학생이요, 일과와 훈련 시에는 군인이요, 내무생활 중에는 수도자였다.

우리는 각종 군사훈련, 특별훈련이라는 이름의 기합과 정신교육, 선배들의 지적과 주의 등으로 시련을 받아가며 충성심과 복종심, 자율 정신과 모범적 태도, 인내력과 전우애를 길러 나갔다. 상급생 시절에

는 장교에 필요한 리더십과 품위를 갖추어 나갔다. 생도들은 교내 어디에서든지 체육관 현관 위에 크게 쓰인 ‘武勇(무용)’이라는 교훈을 보면서 생활했다. 교내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거나 구보하다 지칠 때, 생도 생활이 어려워 시련을 느낄 때 ‘武勇(무용)’을 보고 힘을 내었다.

신입생 시절 겨울 영하 16도의 날씨, 밤에 3학년 선배들에 의해 특별훈련이 소집되었다. 훈련복을 입고, M-1 소총으로 무장한 우리 메추리들은 군기가 해이해졌다는 주의와 함께 병동 앞 큰 도로를 따라 ‘앞에 총’자세로 구보한 다음, 연병장 사열대 밑으로 내려와 엎드려뺨치기를 했다. 눈이 쌓인 곳 위에서 장갑도 안 낀 맨손이 시려 주먹을 쥐자 선배들은 군화로 밟아가며 손가락을 퍼게 했다. 손가락이 얼어 들어가 마비되었다. 훈련이 끝나고 병동에 들어서자 총기가 손에 붙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손가락이 굳어 군화 끈을 풀 수도 없었다. 양손 손가락의 끝 마디가 모두 하얗게 얼어 있었다.

그 이튿날 대부분의 1학년생은 약정복의 단추도 잠글 수 없었고, 식탁에서 배식을 위해 주걱을 잡을 수도 없었다. 강의실에서 연필을 잡을 수도 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도 탓하지 않았고 이를 문제화시키지도 않았다. 다행히 며칠이 지나 손가락의 동상은 기적적으로 모두들 나았다. 이러한 특별훈련과 일일 점호, 내무검사 등을 통해 생도로서의 기강과 자세를 갖추게 되고, 우리가 규정을 철저히 지켜 장차 조종사로서 각종 교범을 지키게 하는 습성도 기르게 되었다.

우리는 실로 숨 가쁜 일정의 훈련을 받았다. 기초 군사훈련 막바지에 받았던 타이거 트레이닝, 이후 관악산 돌과 편대 대항전, 무용기 쟁탈전, 안양 구보 훈련





과 김포 구보 훈련, 무장 행군, 천안 100km 장거리 항법 도보 훈련, 하계해양 훈련, 삼군사관학교 체육 대회, 국군의 날 행사 열병 및 분열 그리고 L-19 관속 비행훈련 등은 잊을 수도, 잊혀 지지도 않는 훈련이었다.

특히 관악산 돌파 훈련은 학교를 출발해 관악산 산정을 배낭을 메고 뛰어서 넘어가 다른 편대보다 빨리 전원이 연주암에 도착하는 경쟁 훈련으로 낙오자가 생기면 동기생들이 유도 도복 끈으로 낙오자를 메어 끌고라도 가야 하기 때문에 다 같이 힘들었다. 그래도 목적지에 목표 시간 내에 도착했을 때엔 승리의 쾌감을 맛보았다. 동기생들의 협동심이 극히 요구되는 훈련이었다. 사관학교에서 김포까지 왕복하는 구보 때에는 맹장염의 통증을 견뎌가며 거의 완주하는 생도도 있을 정도로 극기의 정신을 길렀다. 우리가 장차 어떠한 임무를 받더라도 완수하려는 의지를 길러주는 훈련이었다.

교육 수준 또한 높고 까다로웠다. 항공 역학, 기계 공학, 전자공학의 영어로 쓰인 원서들은 난해하기만 하였다. 항공반에서 그 어려운 로켓의 우주 궤도 방정식을 풀지 못해 좋은 동료 여럿이 학교를 나가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총 46개에 달하는 교과 과목을 이수했다. 그리고 육군 및 해군사관학교 교환 방문을 통한 교육은 합동작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거칠고 험난한 생활 중에도 낭만이 있었다. 푸른 제복의 우리들은 여대생들과 단체 미팅을 하기도 했고, 〈벤치〉 같은 영화를 단체관람하기도 하였다. 명동의 심지 음악다방은 우리들이 만나는 거점이었고 서울 역의 설매 다방은 귀영 버스 대기 장소였다. 팝송을 잘 하는 동기생들은 끼리끼리 당시 유행하던 〈Green Field〉, 〈Too Young〉등을 배우고 합창도 하였다. 정말 적은 봉급에서 앨범비, 졸업반지 비용을 위해 적립하고 또 쪼개서 「전승현 제트」 스케이트를 단체로 구입하여 연병장 건너 연못에서 연습한 후 효창운동장 실외 스케이트장으로 원정 가서 겨울 외투의 망토를 휘날리며 스케이트를 타기도 했다. 수요일 저녁에 휴게실에서 즐겨보던 TV 연속극 〈도망자〉의 주인공 리차드킴볼이 생각나고, 생도 식당에서 점심때면 들었던 '볼라레'와 '지고이너바이센'의 선율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우리를 그 옛날로 돌아가게 한다.

조국의 간성, 현역 장교 시절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66년 3월3일 졸업 및 임관을 하였다. 70명이 입학하여 60명이 졸업하였다. 졸업은 바로 비행훈련 과정의 시작을 의미하였고 임관은 대한민국 공군 소위로서 장교 업무의 시작을 의미하였다. 비행 과정에 입과 하는 동기생들은 모두 김해로 비행 훈련을 떠났다. 월남전 수행과 조종사 부족을 감안하여 우리는 선배들과 달리 비행 훈련을 1차반, 2차반으로 나누지 않았다. 정비, 방공관제,



통신, 시설, 교육 등의 특기, 즉 병과로 분류된 동기생들은 소정의 특기 교육을 받은 다음 각 부대로 배치되었다.

우리의 임관 이후 시기는 북한의 잦은 도발로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어 1.21사태, 울진 삼척공비침투 사건, 판문점 도발 사건이 일어나고, 밖으로는 월남전, 중동전쟁, 이라크전이 발발하는 등 정세가 불안했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전투 대비 태세의 증가, 새로운 무기 체계의 도입 등 군비 증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전략전술, 군수 및 후방 지원 체계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가 요구되고 또 이루어지는 시기에 우리는 현역 생활을 하였다. 우리 동기생들은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모범을 보였다. 그리하여 공군의 주요 부서에서 각 병과의 병과장, 단장, 사령관 등으로 임명되고, 직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참모총장을 배출하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다.

우리에게 헌신적 노력과 보람만 있지는 않았다. 조국의 하늘을 지키다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다가 하늘에서 전투기와 함께 세 명의 동기생이 순직하는 슬픔도 있었다. 동기생에게 리더로 추앙을 받았고, <배

뱅이>을 구성지게 들려주던 백암 중위가 1968년 F-86F 전투기의 연료 계통 고장으로 대구 기지로 비상착륙 중 발생한 화재로 순직하게 되는 첫 번째 비극을 맞았다. 다재다능하고 로맨틱했던 유한욱 소령은 1975년 O-2 공중통제기로 임무 후 착륙을 위한 선회 중 헬기와 공중 충돌하여 순직하였다. 1978년에는 동기생의 선두주자이자 독신이었던 이권주 중령이 실전과 같은 전투기동훈련을 하다가 F-4E 전투기와 함께 산화하여 안타깝게 하였다. 그리고 불의의 지상사고로 1971년에 이용렬 대위가 순직하였다. 임무 완수를 위해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전투기를 조종하다가 장렬하게 우리와 유명을 달리한 동기생의 넋을 기리고 임관 50주년을 기하여 특별히 명복을 빈다.

우리는 비행하며 또 많은 날을 비상 대기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차가운 격납고 안에서 전투기를 정비하며, 방공 레이더로 항공기를 식별·통제하고 작전시설을 건설하고 통신을 유지하며, 군수품과 예산을 관리하고, 인사 정보 교육을 통해 전투 지원하는 업무에 임무의 경중, 밤낮의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월남전에 선발되어 공수 및 공지작전에 참가해 험격한 공을 세운 조종사도 있었다. 열악한 주거 환경, 평균 20번이 넘는 잦은 이사와 자녀 교육 여건의 어려움도 우리의 충성심과 임무에 대한 열정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졸업하던 해 8월 8일에 일어났다. 비행훈련에 열중했던 우리 조종 학생들은 해병 장교 훈련 중인 소위들 약 100여 명과 집단 결투를 벌였다. 사건의 발단은 전날 저녁 귀영하기 위해 만원 버스를 탔던 동기 조종 학생 3명이 해

병 소위 8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고 귀영하게 되면서였다. 먼저 귀영했던 조종 학생 10여 명이 올분을 참지 못하고 부대 트럭을 타고 진해 가까이까지 추적하여 그들을 때려주고 돌려보냈다. 그 다음날 새벽, 뜻밖에 해병 소위 100여 명이 비행학교를 습격했다. 이에 조종 학생들은 영내 장병들과 합세하여 해병 장교들을 포위하고 투석전과 추격전을 벌여 그들을 영외로 쫓아냈다. 이 과정에서 해병 소위 한 명이 희생되고 수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규정 준수, 기습에 대한 경각심과 단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들이 충실하고도 만족스럽게 현역 시절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공군 사관학교에서 같고 닦아 배우고, 노력한 대가로 받은 '위대한 유산' 덕분이라고 확신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조국에 대한 충성심', '명예', '책임감' 그리고 '성실성'이 바로 '위대한 유산'이었다.

더 넓은 세상 밖으로, 일반 사회인 시절

조국의 하늘을 지키던 공군 생활은 우리의 세상이자 전부였다. 동기생 각자 시기가 앞뒤로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공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끝나는 시점이 있었다. 그 시점에서 퇴역 이후의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는 뻗어 나갔다. '군복 입은 군인'에서 '제복 없는 마음의 군인'으로 사회 초년생이 되었다.

가장 많게는 민간항공 조종사로 자랑스러운 기장이 되어 활동한 동기생이 22명이나 되었다. 국방부 산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동기생, 박사 학위를 받아 국방대학, 공군사관

학교, 일반대학에서 후진 양성을 했던 교수들, 공군 관련 방위산업과 관련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공군 무기 체계 발전에 기여한 동기생,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해서 그 능력을 과시한 동기생들의 노고와 업적에 찬사를 보낸다. 특히 70대 중반인 지금도 현역으로 뛰는 동기생에게도 찬사를 보낸다. 또한 미국,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등 외국으로 이주해 새로운 환경에 도전했던 여러 동기생들의 의지와 성공적인 삶에도 경의를 보낸다.

우리 동기생은 타 기생에 비해 평균 키가 커서 열병시에도 두드러져 보였다. 도량이 크고 관대하며 포용력이 컸다. 퇴역 후에도 다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하였다. 운동도 열정적으로 하여 매주 산행에 참가하는 동기생이 많았다. 대부분 골프 실력도 현역 때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IT시대에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를 해 주고, 동기생 단합을 위한 행사를 주관하는데 발 벗고 나섰던 강원순 동기생이 급격한 건강 악화로 고인이 된 것을 비롯하여, 건강했던 한정구, 박래성, 허규열, 석영우, 강경득, 소진환 등 여러 동기생들을 최근 6년 동안에 잃게 되어 우리에게 큰 슬픔이었다. 그리고 보니 우리 동기생이 퇴역 후 건강관리에 주의를 못해 11명이나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음은 너무나 슬프고 쓰라리고 아쉬웠다.

우리는 사관학교에서 4년간 한술밥을 먹고 함께 훈련하고 공부하고 생활했다. 그리고 이삼십 년을 사지를 넘나드는 시련을 겪고 같은 목적을 향해 고민하고 또 즐거움도 같이해 왔다. 우리는 서로 표정만 보아도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오십여 년 벗이다. 그래!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경계가 없는 허물없

는 사이가 되었다. 이러한 인연을 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늘을 지키고 공군을 발전시키는데 헌신했던 삶, 순수의 세계에서 살았고 지금도 그 열정을 지키고자 하는 삶, 우리는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바란다. 지금처럼 충조 산악회에 매주 모여 산행을 열심히 하고, 골프회는 한 달에 한두 번 모여 담소하며 잔디를 걷고, 바둑 팀은 매주 열심히 '집'을 짓고 그리고 산악회를 중심으로 성금을 모아 공군사랑 장학기금으로 내기도 하고 불우이웃 돕기 봉사를 했으면 한다. 그동안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온 지난날과 심각한 삶을 떠나, 매년 그래 왔듯이 가끔 이벤트를 만들어 모이거나 현충일과 신년회 때는 꼭 만나서 지난날들을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살아갔으면 하는 소박한 소망을 갖는다.

50주년 기념행사

2016년 5월 21일 토요일, 14기 사관들은 부인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각각 공군회관과 양재역에 모여 출발했다. 일산, 분당, 수지에 사는 동기생들은 편리한 곳에서 두 번째 버스를 탔다. 아들, 손자들과 함께한 동기생도 많았다. 오늘의 행사를 위해 멀리 미국에서 김상배 동기생 부부, 남아공화국에서 정기영 동기생 부부, 뉴질랜드에서 윤갑수 동기생 부부가 참석했다. 드디어 우리는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 도착하여 학교지휘관, 참모들의 따뜻한 환영과 축하를 받으며 기념행사장인 성무대 연병장 사열대 위에 올랐다.





이건완 공사교장의 환영 및 축사가 있었고, 14기 임관 50주년 기념행사 위원장인 이억수 장군의 기념사가 있었다. 이어 이계훈 공사총동창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동기생 대표가 사열차를 타고 열병하는 관례를 벗어나 전체 동기생이 걸어서 4개 제대로 편성된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운 생도들을 사열했다. M1 소총을 어깨에 받쳐 행진하고, 잔디 아닌 흙바닥 연병장에서 열병, 분열했던 50여 년 전 옛 추억 속으로 잠시 돌아가면서 우리는 감개무량했다.

교훈이었던 “武勇(무용)”은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로 바뀌었다. 건물도 현대적으로 변모했다. 학교본부, 성무문화관, 교수부, 생도대, 박물관이 연병장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대방동 공군사관학교는 옛 고향처럼 개발이 안 된 부대 건물 같았다면, 여기 성무대는 마치 미국 공사의 분위기가 나는 아름답고 조화롭게 배치된 캠퍼스 같았다. 하지만 그 옛날 황량하고 땀 흘렸던 대방동의 공사가 그리웠다. Black Eagle Team의 축하 곡예비

행은 푸른 공간을 아슬아슬하고 우람차게 넘나들어 우리에게 환상적인 기동을 보여주었다. 오월의 맑은 하늘도 우리의 행사를 축하해주듯이 기념식과 축하 비행을 빛나게 해주었다.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14기 동기생들이 출연한 일억 이천여 만 원을 교장에게 전달하는 의미 있는 행사도 했

다. 우리는 역대 기생 중에서 괄목할 정도로 가장 많은 발전기금을 출연했다. 기금을 제출한 분들 중에 이미 고인이 된 석영우, 한정구, 허규열 세 동기생은 그들 가족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각기 천만 원의 기금을 제출해 우리를 감격하게 했고 그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 후에 ‘영원한 빛 추모비’를 참배하여, 우리 동기생 세 명을 포함하여 전투훈련 중에 순직한 선배와 후배 조종사들과 이미 고인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12명의 동기생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으로 그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생도들과 오찬을 같이했다. 우리들이 오찬장에 입장할 때 생도들이 우뢰와 같은 목소리로 환호해 주어 마치 50여 년 전 젊은 생도로 다시 돌아간 듯 한 기분이었다. 우리는 60년대 당시와 지금의 생도 생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 가까이 대하니 생도들이 더욱 믿음직스러웠고 자랑스러웠다. 생도 생활에서 배운 것이 평생 간다. 지금의 생도들이 지식의 힘을 기

르고, 공사십훈과 무용을 갖춘 군인정신을 길러, 장차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국가의 간성이 되기를 바랐다.

50주년 기념 여행

우리는 현역 시절 하기 휴양 때 자주 갔던 추억의 해운대로 향했다. 옛 휴양소는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란 의미를 가진 ‘그린나래호텔’로 바뀌었다. 탁 트인 시야로 들어오는 모래사장과 바다는 바다 위를 비행하던 때에 느꼈던 시원함을 갖게 해주었다. 동기생 만찬은 정겨운 우정의 한마당이였다. 50여 년간 기억 속에 모아 둔 이야기가 실타래 풀리듯이 풀려나왔다. 다소 귀가 어두워진 우리는 자연스레 목소리가 커졌다. 옆 테이블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자연스럽게 끼어들기도 했다. 소란한 가운데 우리의 희로애락이 흘러나갔다.

다음 날, 우리는 경주로 갔다. 경주는 우리가 생도 4학년 때 수학여행 간곳이니 우리가 다시 단체로 여기에 온 것은 51년만이다. 신라의 달밤을 현인보다 더 구수하게 불러줬던 주종환 생도, 그는 생도 시절을 다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나갔지만 경주에 오면 늘

생각난다.

우리는 전우라기보다는 형제 같은 존재였다. 흐르는 강물처럼 여러 많은 갈래로 흩어졌다가 다시 몇 가닥으로 모아지기도하고 서로 합해져서 부딪쳐지기도 했지만 하나로 합쳐지는 곳이 꼭 있어 왔다. 강물은 흘러도 굽이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는 그것들을 회상하는 시간을 즐겼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우리에게 삶의 의지, 자량과 정열, 위대한 유산을 남겨준 사관학교에 감사하다. 다소 능력이 부족했어도 우리를 품고 함께 하늘을 지키고 맡은 바 일을 하면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줬던 공군에 감사하다. 여생 동안 자존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연금을 포함하여 여러 혜택을 주고 있는 조국에 감사하다. 언제나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해준 동기생들에게도 감사하다. 앞으로도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생을 보내면서 앞으로도 추억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다.

글을 맺으며

어쩌면 우리 인생은 파울로 코엘료가 『연금술사』에서 얘기했던 이미 정해진 길, 이미 기록된 길, ‘마크 톱’을 걸어 왔는지도 모른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듯이 우리의 삶도 세상에서 단 한 권뿐인 역사책만큼이나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연금술사처럼 각자에게 예정된 삶을 통하여 진정한 보물을 찾아냈으리라 믿는다.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공사 14기로서 나라에 헌신할 수 있었음이 자랑스럽고, 서로 사랑했노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석천
7기, (예)공군대령

‘7성회’ 럭비부의 승전보

공사 7기생이 1955년 진해 사관학교에 입교한 후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럭비 경기에서 3년 연속 우승(1956~1958)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잘 다져지지도 않은 돌발 연병장에서 선후배들과 합심하여 매일같이 넘어지고 멍들며 맹렬히 연습한 결과였다. 60여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추억들을 되짚어 본다.

우리 7기생은 1955년 3월 대전 항공병 학교에서 2개월간 기본 군사교육 수료 후 5월, 진해 사관학교에 입교하였다. 학교 앞에는 넓고 푸른 진해만이 펼쳐지고 뒤로는 암벽으로 이뤄진 천자봉(502m)이 우뚝 서 있었다.



경남 진해 공군사관학교 전경. 1956년



제5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사열대 단상의 이승만 대통령. 1958년



육사와의 치열했던 럭비 결승전 모습. 1958년

1954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생도 간의 우의와 단결력을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그해 10월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럭비, 축구)를 개최했다.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는 대통령 입회하에 국가적 행사로 성대하게 열리며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렇다 보니 당시 모든 생도들은 사관학교 체육대회 우승을 갈망했다. 우리 7기생 럭비 선수 8명 중 7명은 이미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럭비 선수 활동을 했던 유경험자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울산 농고 출신으로 럭비를 처음 접한 초짜였다. 기본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1학년 때는 공준비 등 여러 가지 운동 뒷바라지를 하기 바빴다. 하지만 나는 8명 중에 체력검정으로 선발된 유일한 선수였다. 당시 180cm라는 큰 키를 가지고 있었고 달리기 실력 등이 좋았다. 그리고 학창시절 때는 씨름 선수를 하기도 했는데 럭비에서 Forward Position(전

방 팀)은 씨름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나는 럭비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고 실력을 갈고 닦았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고 했던가. 나는 2학년이 되면서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대회 출전의 영광을 안을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Made in 공사(空士)’가 된 것이다.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는 매년 10월, 3일간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우리는 대회 한 달 전, 진해에서 상경하여 합숙하면서 낮에는 일반학교 운동장을 빌려 연습하고 밤에는 체육교관 럭비 코치들과 한 자리에 모여 상대에 대한 분석과 전략을 짜며 밤새웠다. 이렇게 대회 참가로 빠진 기본학과(영어, 수학 등)는 운동 비수기인 겨울철 주말에 보충수업을 받으며 채워 나갔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 하지 않는가! 1956년, 내가 2학년이 되어 처음 참가한 럭비

경기에서 우리는 선후배와 힘을 합쳐 육사와 해사를 차례로 물리치며 우리 공사가 처음으로 우승하는 벅찬 감동을 이루었다. 그 후로 3년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럭비로는 육사와 해사 모두 우리 공사를 따라오지 못했다.

신상철(申尙澈) 교장님의 열성

오전 학과를 마치고 오후 일과(체육 또는 군사훈련) 시간에 우리는 연병장에서 운동에만 열중하였다. 그때 신상철 교장님이 수시로 사열대에 나와 우리 운동 모습을 지켜보셨고, 일과 후에도 퇴근을 미루고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매일 격려를 해주셨다. 하루는 장교들이 퇴근 버스를 타고 정문을 통과하려다가 교장님이 사열대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고 모두 하차하였던 적이 있다. 장교들은 우리가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교장님이 자리를 떠나셔야 퇴근을 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아마도 교장님의 럭비 열성이 커질수록 장교들 퇴근시간이 늦춰져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또 잊지 못할 이런 일화도 있었다. 1958년, 대만에서 처음 개최되는 아시아 럭비 대회에 참가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전이 거행 되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MIG(육군체육부대)를 비롯하여 육해공 삼군사관학교 팀, 일반대학인 서울대, 연대, 경희대 럭비부 이렇게 총 7개 팀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결승에서 MIG와 우리 공사가 붙게 되었다. MIG는 지금의 국군체육부대인 상무의 전신으로 우리 사관 팀이 겨루기에는 벅찬 상대였다. 모두

가 MIG가 당연히 우승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3년 연속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를 우승한, 최강 전력의 우리 공사 팀은 MIG를 꺾는 대이변을 일으켰다. 우리 공사 팀은 당당히 국가대표가 되었다.

그러나 출국 며칠 전 대한 럭비 협회로부터 “MIG와 연합 팀으로 구성하여야만 대표로 참가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신상철 교장님은 발끈하여 “연합 팀을 갑자기 구성하게 되면 단합도 되지 않고 사기도 떨어져 안 된다.”며 극구 반대하셨다. 우리가 끝까지 불응하였더니 MIG 단독으로 아시아 럭비 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결국에는 힘에 밀린 것이다.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미묘한 힘이 대세에 영향을 주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때의 일은 잊지 못할 씁쓸한 일화로 남아 있다.

신상철 교장님은 원래 육군 출신으로 6.25전쟁 때 제 6~7사단장으로 평양까지 입성한 전과를 세웠으나 안타깝게도 부하 장병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공군으로 전군 되셨다. 1953년 12월 제6대 사관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여 6년이 지난 1959년 9월 이임하셨으며, 1962년 공군 소장으로 예편, 베트남대사, 10대 국회의원, 체신부 장관 등을 역임 후 2005년 9월 작고하셨다.

김석원(金錫源) 장군과의 인연

15명이 전 후반 총 80분 동안 혈투를 벌이는, 럭비는 모든 구기 종목 중 가장 과격한 운동이라 해도 과언

이 아니다. 특히 포워드(전방 팀) 8명은 경기 내내 상대와 부딪히며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기에 찢기고 멍드는 건 다반사다. 또한 경기를 하면서 워낙 발에 힘을 주며 버티다 보니 땅이 파일 정도였다. 운동장 훼손이 심해지기에 한 번 연습하며 빌렸던 운동장에 다음 날 다시 가면 경비가 출입을 막는 해프닝도 부지기수였다. 그렇게 연습할 운동장 찾는 것도 힘들었던 어느 날, 성남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어렵사리 연습을 하던 중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타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다. “럭비라는 운동은 오직 전진만 있고 후퇴가 없다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교사는 물론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이게 하여 우리가 럭비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게 하였다. 그 후로 우리가 매일같이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운동장은 성남 고등학교 운동장이 되었으며, 교장 선생님의 후원에 힘을 얻어 경기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 후 성남 고등학교에도 1958년 럭비부가 창설되었으며, 그때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던 교장 선생님은 6.25전쟁 때 수도, 제1, 제3 사단장을 역임한 김석원 장군이셨다. 특히 1950년 10월, 6.25전쟁 당시 김석원 장군 협조로 성남 고등학교를 약 2개월간 임시 공군사관학교로 사용하다 그해 12월 대구 칠성

학교로 내려간 인연도 있었다. 장군은 예편 후 연고지인 대방동 성남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 겸 교장으로 계셨다. 김석원 교장 선생님은 임전무퇴(臨戰無退)의 군인 정신을 살린 럭비라는 운동이 그 시절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는 원동력이 된다 생각하시어 우리 팀을 아낌없이 후원하며 큰 관심을 주셨다. 그 후로도 후학 양성에 힘을 쓰시다 1978년 향년 85세로 별세하셨다.

위와 같이 두 분의 열성과 적극적 후원이 우리 공사 럭비 팀을 3군 사관학교 3년 연속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는데 큰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7기생가〉

백두산 정기 받아 태어난 우리 반만년 이어 나온 조국 강토에
한마음 한뜻 아래 모인健儿들 하늘을 나르려는 웅지를 품고
오늘도 하늘과 더불어 산다. 아아! 씩씩하여라 공사 7기생

〈럭비 응원가〉

우리는 남아다운 공사의 투사
불을 쥐고 달려 나갈 때 우리들 앞에는 거칠 것이 없다.
saving! saving! victory! victory!
tackle, tackle에 밋슈에 try이로다. 헤이! 



이은봉

10기, (예)공군대령, 전 공군정훈감

공사 옛터, 보라매공원의 鄉愁

보라매공원은 공군사관학교가 있던 현장에 조성된 공원이다. 보라매공원이 생기기 전, 30여 년 동안 공사교가 이 자리에 있었기에 이곳은 나에게 고향집과 같은 향수가 서려있는 곳이다. 또 4년여 간의 생도생활 동안 젊음을 불태웠던 보금자리인 동시에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두루 경험했던 제2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매년 한두 번 정도 고향집을 찾듯이 이곳에 들르곤 한다. '땅에는 꽃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괴테의 말처럼 아직 내게 고향에 대한 사랑의 본능이 살아있었나 보다. 야생의 새들도 제집을 찾는다는데 사람이 고향의 옛집을 찾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지금은 완전하게 핀 꽃과 나무의 푸르름을 즐기기에 조금 이

른 봄이다. 하지만 공원의 풍광을 감상하고 산책길을 따라 거닐며 옛날 생도생활을 회상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보라매공원은 서울시 동작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 이 고장에 공군본부와 해군 본부, 국군묘지(지금의 현충원) 등 군사기관이 주둔했었기 때문에 국가 안보의 요람지라 불리기도 했다.

특히 이곳 동작은 옛날부터 살기 좋은 고장, 명소로 소문난 곳이다. 동작은 동작(銅雀: 구리 참새)은 공작(孔雀)이 되고, 다시 공작은 봉황(鳳凰)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고장이다. 대방동 성무대는 뒤쪽으로 나지막

한 야산이 병풍처럼 경계를 이루고 앞쪽(남쪽)으로 신림천이 흐르는, 명당의 요소인 배산임수(背山臨水)를 갖춘 좋은 동네에 위치하고 있었다. 풍수설에 입각해 봐도 아주 훌륭한 입지 조건이었다. 또 이곳은 옛날부터 경기 5악(五嶽) 명산 중 하나인 관악산의 정기를 받은 천혜의 고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조건을 구비한 대방동 신축 교사는 1958년에 완공되었고, 그해 12월 진해에서 서울로 이동해 수도 서울에서의 공사시대를 열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의 팽창에 따른 군사시설의 이전 정책에 밀려 80년대 중반에 청주의 새 보급자리로 옮기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당시에는 아쉬움이 많았지만 훗날 생각해 보니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 후 공사의 옛터는 서울시가 인수해 공원용지로 활용케 되었다.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좋은 금싸라기 땅에 공원의 성격을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동서 양쪽 땅은 공공시설로, 다른 일부의 땅은 민간인에게 불하해 아파트촌과 업무용 빌딩 단지로 조성해버렸다. 공원 내부에도 공원의 고유성과는 관련 없는 열한 개 기관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한마디로 짜깁기식 난개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인데 이 점이 못내 아쉽다. 물론 서울시의 책임이요, 재량(裁量)이기 때문에 뭐라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보라매공원 내부 실상이 이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곳을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옛 고향 집처럼 생각하며 애정을 가지고 있다. 내 인생의 황금기를 꽃피웠던 자리이기에 이곳에 묻어있고 녹아있는 내 모든 젊음의 흔적들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달랐다.

공원 정문 입구는 옛 공사 때 모습 그대로다. 당시 정문 진입로에 심었던 가로수는 60여 년이 지난 지금 한 아름이 넘는 거목으로 자라 세월의 흐름을 대변해주고 있다. 공원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학교 본부 입구 삼거리 코너에 있던 고 임택순 대위(1기사관)의 동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전됐는지 동상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을 보고 매우 실망스러웠다. 임 선배의 동상이 그대로 서 있었다면 보라매공원 홍보에도 훨씬 도움이 컸으리라. 전투비행 중 순직했던 임 선배의 동상 앞에서 그를 추모하고 동시에 하늘을 향한 꿈을 키웠던 생도 시절이 간절히 그리워졌다.

임관 이후 내가 비행훈련을 받고 있을 때의 일이다. 같은 교관 밑에서 훈련을 받던 동료 이순익 소위(당시)와 함께 사관학교를 찾아 고 임 선배의 동상 앞에서 참배하고 두 사람이 같이 장래 우리의 삶에 대해 다짐했었다. 우리는 “우리 두 사람은 앞으로 명예나 부를 좇는 생활을 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정의롭게 살아가자. 우리 그렇게 해서 훌륭한 하늘의 용사가 되자”고 맹세했었다. 동고동락하며 우정을 나누던 그는 전투 조종사로서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다가 1970년 초 무렵 공중에서 산화하고 말았다. 고 임택순 대위의 동상이 서 있던 그 자리를 밟아보면서 못다 핀 동료를 생각하니 마음이 쓰리고 아파온다. 내가 아직 살아있음이 웬지 이 동료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 와서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시 한 번 명복을 비는 일뿐이다.

이어서 지금은 시민의 운동장이 된 옛 연병장을 거닐어본다. 이 연병장은 58년도 공사가 옮겨올 때 연병

장은 흙더미가 그대로 쌓여있는, 정지 작업이 안 된 상태였다. 당시 메추리 생도였던 10기사관들은 한겨울에 연병장 정지 작업을 많이도 했었다. 추운 날씨여서 몸의 여기저기가 부르텔고, 손발에 동상까지 걸리는 등 고달픈 생활에 한을 품기도 했다. 허나 이것 또한 일시적인 고생이었고 지나고 보니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다음은 연병장 서쪽 끝자락에 있던 연못을 찾았다. 연못은 그대로되 다만 그 규모가 작아져있었다. 생도 시절에 이곳에서 물 위로 물수제비(돌팔매 놀이)를 하면 많은 물고기들이 놀라곤 했는데 이제는 물고기가 없어져 옛 연못이 아니더라.

이어서 생도식당이 있던 곳으로 이동해보니 그곳에는 고층 빌딩이 우뚝 서 있다. 생도식당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당시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 10기사관의 임관식이 거행된 곳이요, 5.16이 일어나 며칠간 나라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일 때 10기생의 주도하에 생도들이 모여 혁명 지지에 대한 시가행진을 논의했던 곳이기도 하다. 생도들의 시가행진이 혁명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이 혁명 역사책에 기록돼있으니 이 또한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10기사관 모두에게 남다른 추억이 담겨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빌딩이 버티고 서 있다. 빌딩은 말이 없으니 어찌 지난 역사의 사연과 곡절을 알 리가 있겠는가?

나는 공원 울타리 밑으로 조성된 둘레길을 따라 공원을 거닐어보았다. 공원 곳곳은 옛 터 그대로지만 만들어진 구조물은 공원 위주의 시설물뿐이다. 그러나 발자국 닿는 곳마다 이곳을 거쳐 간 생도들이 흘린

피와 땀의 체취가 그대로 풍겨오는 것 같았다. 그래서일까? 공원 도처에서 흘러간 세월만큼 이곳에서 린 애환들이 나를 붙잡는 느낌이 들었다.

공원 전체를 한 바퀴 돌아 나오면서 이곳이 과거 공사교 터였음을 입증해주는 유일한 조형물인 성무탑 앞에 섰다. 성무탑의 지지대 맨 밑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표지판이 붙어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여! 하늘을 지키는 우리의 굳은 뜻을 기억하고 조국의 번영을 다함께 기원하자! (1985.12.10.)’

이 표지판의 제작 연도로 보아 공사교가 청주로 이전된 다음 서울시 측에서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만들어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왜 ‘보라매공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서울시에서 공원의 이름을 붙일 때 옛 공군사관학교 자리에 세운 공원이기에 공사교의 상징인 보라매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공군에서는 조종사를 ‘신념의 조인’ 또는 ‘보라매’라 했다. 보라매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냥에 쓰는 매’이고 다른 말로 해동청(海東靑) 또는 송골매라고도 한다. 어쨌든 보라매는 일반적으로 공군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보라매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용어다. 예를 들어 지하철 7호선의 보라매역, 보라매병원 등 대표적으로 알려진 이름 외에도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병원, 약국 등의 개인 사업체, 상가 이름에 보라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공원 주변 일대는 하나의 보라매 촌을 형성하고 있다.

공원을 찾은 관람객 몇 사람에게 “왜 보라매공원이 라 하는지 아느냐?”하고 물었지만 공원 이름의 유래를 제대로 아는 이가 없었다. 공원이 조성되기 이전에 공사교가 있었던 곳임을 모르는 것이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현상이다. 공사와 공군의 역사는 온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공원 구경을 마치고 지하철역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면서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먼저 근 30여 년간 공사교가 주둔했던 자리에 만들어진 공원이니 공원 내 어느 장소가 됐건 ‘이곳이 공사교가 있던 장소임을 표시하는 ‘보라매상’을 건립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우리 공군 예비역 친목단체에서 일찍이 사용했었던 ‘보라매’라는 용어를 왜 없었는지 못내 서운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다.

공군과 공군 관련기관에서는 보라매라는 용어를 많이 활용해야 한다. 보라매공원이 앞으로 영원히 존재할진대 오히려 공군에서 보라매를 멀리해서야 되겠는가? 보라매공원을 답사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보라매공원 자리에 우리 공사교가 주둔했던 27년이 공군의 현란한 역사이자 성무대의 금자탑을 쌓은 시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비록 공사 첫발의 맥이 끊기긴 했지만 이곳에 입교해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생도들은 참으로 복 받은 사람들이다. 훌륭한 하늘의 일꾼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옛날부터 ‘좋은 첫발에 뿌려진 좋은 씨앗은 항상 견실한 열매를 맺는 법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동작

구 대방동의 명당자리인 성무대에서 배출된 신예 공군 사관들은 조국의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영공방위의 큰 몫을 했었다. 그때를 생각하며 묻어두었던 내 심경을 단문(短文)으로 읊조려 보련다.

〈내 청춘 다 바쳐 공군에서 살았다. 어엿이 큰 뜻을 품었으니 재물을 탐하라, 명예를 탐하라. 높고 푸름에 심취되어 비장했던 각오와 용기는 성무의 용광로에 달궈 강철이 되니 높고 넓은 하늘의 보라매가 되었다. 지금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본다.

어쩌면 꿈도 허상이요, 내 살던 곳은 공원이었네. 다 날려버린 세월, 어디서 찾을 건가? 이것이 인생이고 오롯이 추억이었네. 이제 가진 것 모두는 마음뿐이여라. 여생일랑 군세게 살자꾸나.〉

보라매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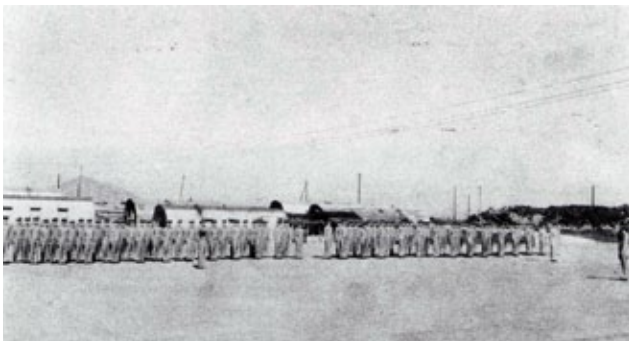
과거 하늘 높이 충전했던 함성이 울려 퍼지던 자리, 지금은 공원이 되었으니 마냥 여유롭고 한가롭기만 하다.

옛날 그 시절, 이곳이 산실이었던 메추리 출신들은 일부 영관 장교 및 장군 급을 제외하면 지금 대부분 군을 떠났으리라. 그러나 대방동 공사교 시절 용사들은 강인한 신념의 조인들이었다. 그리고 그 격동의 시기에 공군을 이끌어온 훌륭한 항공 지휘관들이었다. 대방동 출신 성무인이 있었기에 조국 영공방위는 튼튼했고 국가 번영의 버팀목이 되어 오늘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크게 자부한다. ✕

편집진

겨레와 조국과 함께한 공사의 飛翔

김포 공군사관학교



김포시절 조회 모습



극장 인솔(김포 ⇒ 양화교)

대구 공군사관학교 분교



제주 서귀포 대정초등학교로 이동



학교에 도착한 생도들



공사2기생 훈련 모습

진해 공군사관학교



진해 공사 전경(1952)



이승만 대통령 졸업식 임석

대방동 공군사관학교 (성남중학교)



조화하는 생도 모습



단체 기념촬영

대방동 공군사관학교



1964년도 공군사관학교 전경

1971년도 대방동 공군사관학교 전경



청주 공군사관학교



통일 이후 보라매의 등지는 어디일까?



편집진

빨간 마후라 출연진 초청 그림(10전비)

‘빨간 마후라’-‘창공’ 출연진 초청 행사

연합뉴스 1995.6.23.

공군은 조종사의 날을 맞이하여 23일 오후 영화 ‘빨간 마후라’와 KBS-2TV 드라마 ‘창공’의 출연 및 제작진과 1백 회 이상 출격한 선배 조종사들을 공군 3591부대로 초청,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다.

金鴻來(10기)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행사에 참가한 ‘빨간 마후라’ 출연진(최무룡, 최은희, 이대엽, 윤인자 등)과 ‘창공’ 출연진(김원준, 나한일, 류시원, 나현희 등)과 김두만 前공군참모총장 등 1백 회 이상 출격조종사 부부 40명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공군은 이날 행사장에 수원 시내 국교생 2천여 명과 공군 각급 부대의 모범용사 부부 1백여 쌍도 초청하

여 그간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대엽, 최무룡 씨 등 원로 배우들은 32년 전 ‘빨간 마후라’ 촬영 당시를 회상하며 이야기의 꽃을 피웠으며 ‘창공’에 출연 중인 탤런트들은 공군용사들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참석자들은 전투기 축하 비행과 공중기동 시범을 보았으며 金총장의 안내로 비상대기부대를 방문해 출격 현장을 참관하기도 했다.

‘빨간 마후라’는 1964년 서울 명보극장에서 개봉해 2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이후 세계 전역으로 수출되었으며 대만에서는 ‘빨간 마후라’ 주제곡이 공군가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 영화가



전국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민의 머릿속에는 ‘빨간 마후라’는 공군 조종사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았다.

조경숙 화가(17기 이문호 부인)가 ‘빨간 마후라’포스터

를 대형 화폭에 담아 3591부대에 기증하여 영구히 전시하기로 했다. 아마도 선배들의 ‘빨간 마후라’ 호 국정신을 후배들에게 영원히 전하여 기리고 싶어서 일게다. ☒



이중학

3기, 충남대학교 군사학부 특임교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 전 공군사관학교 교수

서라벌에서 온 편지 6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군사학

박 형, 그동안 안녕하셨소?

지난해(2015) 10월 22일 A비행단 정훈공보실장에게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군사학」이라는 제목으로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특강 후 단장 K장군과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K장군이 『星武』(44호, 2015)에 발표된 ‘평생 군사학을 연구하게 된 동기’를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글의 마지막에 소개된 『웨드마이어 회고록과 논평』(2014)이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다고 했소. K장군은 내게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터인데”하면서 군사사학(military history)에 관심이 있다고 했지요.

특강을 듣는 대상은 비행단의 지휘관과 참모, 젊은

조종사라 했습니다. 특강은 졸음이 오는 시간인 오후 두 시부터 시작이라 ‘군사학의 이론적 체계’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내용을 응용한 ‘50대의 인생 전략’에 역점을 두고 이야기했더니 다들 졸지 않고 열심히 들었소. 그래서 오늘은 그날 발표한 특강의 내용을 몇 가지 골라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군사전략과 인생 전략의 수립

오랫동안 ‘전략론’을 연구하고 강의해왔지만, 군사 전략의 수립을 위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자료는 찾지 못했다. 한국군은 60만 대군으로 6.25전쟁을 체험했고 베트남전쟁에도 참전했지만 독자적인 군사전

략을 수립해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군사전략은 미군측이 담당했고 한국군은 전술적 차원에서만 맴 돌고 있었다. 자료가 없는 것은 이 때문이라.

1982년 8월, 나는 미 육군전쟁대학원(U.S Army War College)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얻은 자료 중 주요한 논문을 선택해 번역했다. 이후 필자의 논문을 첨가하고 편집해 『軍事戰略論－理論과 實際』(1987)를 발간했으며 한글세대를 위해 발간한 개정판 『군사전략론』(2009)은 군사학 석사·박사과정의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 책에는 군사전략의 핵심적 개념이 다음과 같은 등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군사전략=군사목표+군사전략 개념+군사자원

- 군사목표 :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표적의 선택
- 군사전략 개념 :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방안, 즉 공세·수세 혹은 선수후공(先守後攻) 등.
- 군사자원 :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병력·무기체계·장비 및 병참 등

나는 박사과정 학생들(대략 50대 전후)에게 군사전략 수립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반드시 인생 전략 수립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100세 시대인 요즘, 60대 전후로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40년간의 인생 목표를 확고히 정하고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등식을 소개한다.

인생 전략=인생 목표+방법+수단

- 인생 목표 :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를 우선순위로

정한다. 예컨대 ① 군사학 연구 ② 그림 그리기 ③ 서예 ④ 음악 ⑤ 세계여행 …… 자원봉사 등

• 방법 : 천천히 그리고 착실하게(slow and steady)

• 수단 : 인생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으로 ① 건강 ② 취미 ③ 능력 ④ 자금 ⑤ 시간

인생 전략의 목적은 인생 목표와 수단을 조화시켜 선택·결심을 하고 모든 정열을 기울여 실천함으로써 자아실현을 구현하는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목표’의 선택이요, 둘째는 ‘정열의 집중’이다. 올바른 목표의 선택과 끊임없는 정열 및 노력의 집중은 성공의 비결이다. 프랑스의 문인이자 수필가인 앙드레 모루아는 “인생을 사는 기술은 하나의 공격 목표를 선정하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인생의 지혜와 지침은 무엇인가?

지혜(wisdom)란 올바른 사리 판단력과 슬기로운 분별력을 뜻한다. 인생의 후반기에 있어서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되는 세 가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인생은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

인생의 후반전이 더 중요한 것은 인생 역시 축구 시합처럼 전반전에 패해도 후반전에 역전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했던 것은 1973년 10월이었다. 나는 3차년도 마지막 진급 심사에서 낙방해 곧 제대해야 했다. 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면서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스스로를 군생활의 실패자라고 생각했다. 그때 인생

후반전에 이 실패를 만회해야 하겠다는 분발심이 생겼다. 중학생 시절에 축구 선수로 활동하며 겪었던 ‘역전승’의 체험이 내게 힘을 주었다.

그때 뜻하지 않게 국방 대학원장인 박현식 중장이 내게 국방대학원 교수로 오라고 제안했다. 나는 1974년 2월 말에 제대해 3월 20일부터 출근하게 되었다. 출근해보니 학생들은 선배인 2기생 대령들이었다. 인생 후반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필생의 일(lifework)’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 모든 것은 오직 마음먹기에 달렸다(一切唯心造 - 華嚴經-)

원효(元曉, 617~686)는 34세였던 650년, 의상(義湘, 625~702)과 함께 당나라 유학을 가는 길에 해변의 토굴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밤중에 갑자기 목이 말랐던 원효는 물을 찾다가 옆에 놓인 바가지의 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단잠을 잤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간밤에 마신 물은 해골에 고인 오물이었다. 메스꺼워하던 원효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때 원효가 한 생각은 ‘이 세상은 오직 마음먹기 나름이요, 모든 법은 오로지 인식하기 나름이다’였다. 『화엄경』의 ‘이 세상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내용을 체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포기하고 서라벌(경주)로 돌아와 포교와 연구·저술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후 그는 탁월한 불교 사상이 및 저술가가 되었고, 그의 저서는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의 범어(梵語)로 번역되기도

했다. 내가 만약 30대에 원효를 알았다면 평생 원효의 불교 사상을 연구하는데 바쳤을 터인데……

셋째 :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고 했다(兵法云, 必死則生 必生則死) - 이순신(1545~1598)

이순신은 명량해전(1597. 9. 16.) 전날 초저녁, 부하 지휘관들을 소집해 『오자병법』에 적힌 위의 내용을 소개했다. 그 내용을 쉽게 의역(意譯)하면, 전쟁터에서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살 수 있으나 도망쳐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뜻이다. 이순신은 부하들과 약속한 다음 날 스스로 죽을 각오로 진두지휘해 13척으로 130여 척의 왜군과 싸워 31척을 격파하는 완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원균(元均, 1540~1597)은 칠천량해전(1597. 7. 15.)에서 왜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부하와 병선을 버리고 홀로 육지로 도망치다 왜의 복병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이순신이 인용한 내용은 전쟁터에서 군인의 기본 자세와 사생관(死生觀)을 집약한 내용이지만 이는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고,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면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포항 영일만의 허허벌판 모래 위에 제철소 공장을 건립하라는 임무를 받은 박태준(1927~2011) 회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선조들의 피값으로 짓는 것이다. 제철소 건설에 실패하면 우리 모두가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실패할 경우 우리 모

두 ‘우향우’해 영일만에 투신해야 한다”고 말하며 비장한 각오로 공사에 임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1973년 6월 9일 오전 7시 30분, 포항제철소 용광로에서 첫 쇳물이 쏟아져 내렸다. 박태준 회장과 직원들은 “만세!”를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렇듯 어렵게 만들어진 제철소가 한국이 21세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발판이 된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어진 임무와 적의 능력, 의도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분석하고 평가해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또 여가가 생긴다면 60대 이후의 인생 전략을 생각하며 확고한 인생 목표를 확립해서 인생 후반전에 더 알찬 삶의 결실을 맺기를 후배 여러분들에게 당부한다.

박 형, 일찍이 기원전 6세기 그리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Pythagoras)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지만,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소. 그래서 나는 ‘인생 전략’을 제시해 보았는데 참고가 되었는지요?

박 형, 지난해(2015) 11월,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제 1회 프리미어12 준결승전에서 한국 팀은 일본 팀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소. 한국 팀은 8회까지 일본 팀에 0-3으로 끌려가다가 마지막 9회 초에 대거 4점을 뽑아 4-3이라는 대역전극을 연출했지요. 일본 야구의 심장부에서 3만 5천여 명의 일방적인 팬들의 응원을 극복하고 한국 팀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자

일본의 유명한 신문들은 대서특필하며 ‘굴욕, 악몽’ 등의 표현으로 애통함을 표했소. 그리고 이어진 미국과의 결승전에서 한국 팀은 8-0으로 완승을 거두었소. 야구는 미국의 국기(國技, national sport)인데 말이지요. 나는 이번 우승이 패색이 짙어도 중도에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성과라 생각하오.

박 형, 나는 이 경기를 보며 야구와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소. 바람직한 인생 목표를 선택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훌륭한 결실과 행복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空手來空手去)’고 했습니다. 올 때는 비록 빈손으로 왔지만 70~80년간 살다가 갈 때 무엇인가 후손을 위해 남겨놓고 가야 하지 않겠소?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Tagore, 1861~1941)는 이런 詩를 남겼습니다. ‘죽음의 신이 당신의 생명의 문을 노크할 때, 당신은 생명의 광주리에 무엇을 담아 죽음의 신 앞에 내어놓겠습니까?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박 형, 나라면 내가 요즘 좋아하는 유행가 가사처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라고 말하겠지만 내 생명의 광주리에 조금이나마 후손을 위해 남겨둘 것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하지 않겠소. 건승과 행복을 빕니다. ❧



김문환

학사장교 67기, 성신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사회에서 본 ‘공사인’

20대의 나이로 처음 서울 대방동에 있던 성무대(星武臺)를 찾았을 때의 기억이 새롭다. 5개월의 고된 훈련 끝에 얻은 중위 계급장이 달린 대한민국 공군 제복은 나의 자부심을 만족시켜주었다. 당시 나는 사관생도를 가르치는 교관 직책을 맡은 것임에도 스스로가 문무(文武)를 겸한 인물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나 처럼 공군의 단기복무자도 당시 이처럼 ‘기고만장’(?) 하였으니 4년의 긴긴 생활 동안 온갖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공군장교로 임관한 공사 졸업생 분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된다.

지금에 비해 교육 환경은 많이 열악했지만 국가의 자랑스러운 간성(干城)인 공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지낸

5년 동안 나는 항상 즐겁고, 보람차고, 행복했다. 내가 가르치면서 배운 수백의 청년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주역들이라 생각하니 가슴 뿌듯한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 속에서 천여 회가 넘는 외적의 침입을 당하면서도 꺾끗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힘과 훌륭한 선배 군인들의 용맹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나라 양제와 당 태종의 침입을 막아내고, 임진왜란 등을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군사조직과 뛰어난 지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국방을 튼튼하게 했더라면 일제의 침략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

공사인에게 바란다_1

각하면 군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특히 현대전에서 공군력의 비중과 역할은 클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정예공군장교를 양성하는 공사의 역할이나 위상은 실로 위대하다고 할 것이다. 나 자신도 5년 5개월간 공군장교로 근무했지만 적어도 10년 이상 군문에서 나라를 위해 일한 공사졸업생들의 노고에 깊은 찬사를 보낸다.

‘공사인(空士人)’은 생도시절,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감성의 바탕 아래 강인한 체력과 불굴의 정신력을 연마한다. 개인적으로는 용의단정(容儀端正)하고 청렴결백(淸廉潔白)한 자세로 남에게는 신의일관(信義一貫)하며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삶의 자세로 솔선수범(率先垂範)해 책임(責任)을 완수(完遂)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말은 “조국과 하늘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한마디 속에 모두 응축되어 있다고도 하겠다. 이는 곧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요, 남에게 봉사하는 마음이다. ‘공사인’이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1949년 개교한 이듬해 발발한 6.25전쟁도 이러한 정신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

하늘에서 살아온 ‘공사인’들은 하늘처럼 개방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의 발전도 1960년대 이래 종래의 쇄국적 태도를 버리고 개방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점에서 개방적이며 관용적(tolerant)인 정신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사인’은 나라에 젊음을 바치고(대개는 비교적 이른 나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회에 늦게 진출해 제2의 인생을 산

다. 나의 교교 친구들인 이상열, 이재기, 지금 고인이 된 김헌석 장군 등을 통해서 그 모습을 어렵듯이 알고 있다. 풍부한 전문 지식과 리더십을 갖추었으니 사회에 나와서도 대부분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쟁의 이론과 경영의 이론이 일맥상통한다고는 하지만, 항상 공심(公心)을 키워온 공사 분들이 사심(私心)도 있어야 하는 경영을 하기에는 애로가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는 재수와 요령이 작용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동물은 누구나 이고등락(離苦登樂)을 바라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행복과 즐거움보다 고통과 불행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깨닫는 ‘파우스트의 모순성’을 가졌다. 그런 점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필요할지 모른다.

공군에 입대해 훈련을 받은 5개월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 그 속에서 삶의 진리와 가치, 한 가닥 보람을 찾는 모순을 경험했다. 심리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 속에는 어른과 어린이가 공존한다는데, 5개월의 훈련 기간 동안 나도 모르게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물론 5개월이 지난 후에도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여하튼 그 시간이 큰 보탬이 되었다. 덕분에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자립과 자존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5개월의 짧지만 고된 훈련 생활에 대한 얘기가 과장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공군사관학교의 졸업생들은 나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 생활을 긴긴 세월인 4년간이나 하였으니 성숙한 어른이 되는데 참으로 도움이 많았을 것이다.

정신적으로 어른이 되면 어린이가 하는 실수는 없지만 너무 의젓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지는 측면도 물론 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 신사도를 지키니 무엇보다 세상을 살기가 쉬워지고, 내일의 일뿐만 아니라 내년의 일이 보이기도 한다. 공군은 신사다운 군대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공사를 나온 사람들은 한 수 위인 것 같다.

세상이 변해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는 모습을 달리 한다. 우선 하늘에서의 전쟁도 무인 비행기와 드론이 등장할 정도로 과학 기술이 발달했고 인류는 우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에 따라 공군의 임무도 우주까지 확대되는 세상이 되었다. ‘공사인’을 필두로 한 모든 공군 분들의 책임과 의무가 커졌으며 동시에 훌륭한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많아졌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개인이 실력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의 도움 속에 ‘공사인’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

군인은 기본적으로 무인이다. 한 가지 욕심을 낸다면 공사 분들은 무술(武術)을 넘어 무도(武道)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성취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아직 남북통일이라는 미완성의 작업이 국가 과제인 점에서 우리 모두가 통일의 전위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현재 공사 출신 현역에게 군 생

활은 오로지 고난의 역정이다. 그러나 사회에 나와서 보면 군 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군문을 떠나는 ‘공사인’은 군대 생활의 고난에서 익힌 ‘희생·의무·애국심’등의 의미를 되새겨 적극적, 능동적 자세를 유지한다면 제2의 인생에서 이모작을 하기가 한층 편할 것이다. 그러나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때로는 푸시킨의 시구처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쉬워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여겨지니까.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별이 빛나는 하늘,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이라고 갈파했다. 나는 이 말을 하늘을 책임지는 ‘공사인’들이 새긴다면 ‘무덕과 함께 문덕을 갖춘’인물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싶다.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영원한 ‘공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 항상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공군에 감사하고 ‘공사생’을 만난 좋은 인연으로 나 자신의 오늘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모두가 사회의 마중물 역할을 넘어 심 없이 바다로 흘러가는 여유와 풍성함을 지닌 인생이 되길 기대해본다. 공군과 ‘공사인’들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한다. ✕

김문환 교수는 1973년 학사장교 67기로 임관해 공사 법학교관을 지냈고 국민대에서 30여 년간 교수를 했으며, 국민대학교 총장, 대학총장협회 회장, 산업자원부 전기위원장,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준희

한국일보 대표이사 사장/발행인

공사인에게 전하는 제언

별 생각 없이 글 청탁을 받아들이고는 곧 후회했습니다. 아차, <공군지>도 아니고 공군사관학교 동문지인 <성무지>라니. 저는 40년 전 공군에 입대해 병역을 마친 <병 282기>입니다. 젊을 적 위계는 평생에 의식 한 구석에 남아 있는 법입니다. 함께 지낸 선임병, 장교들과 간혹 연락이 닿으면 지금도 “최 병장님, 이 대위님” 호칭이 튀어나옵니다. 그런 판에 까마득히 별처럼 보이던 상관들만 준비한 지면을 봤습니다. 감히 병장 출신이 끼어드는 게 영 민망했습니다. 그래도 공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으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공사인들과 비교하면 공군 울타리 안에서 보낸 기간이 턱없이 짧지만, 3년이란 기간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그 질긴 학

연이란 것도 고작 3~4년 함께 한 인연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공군을 또 하나의 소중한 모교로 여깁니다. 철없던 청춘을 나름 건실한 젊은이로 환골탈태시켜준 곳이기 때문에 더욱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했습니다. 아무래도 ‘신분’이 달라 추억담은 공유할 게 적고, 덕담은 상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 용기를 낸 바엔 차라리 쓴 고언(苦言)을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방 담당 기자, 관련 자문 경력들을 거치며 느꼈던 단상들입니다. 공연히 면구스러워 쓸데없는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현대전에서 공군 전력의 중요성을 다시 말하는 것은

구차스럽습니다. 1990년 걸프전 이후의 현대 전사(戰史)를 굳이 되짚어 볼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투는 개전 초기 공군력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 일찌감치 판가를 났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해군력도 전장에서의 주인공은 함재기입니다. 전쟁에서 승부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공중 전력입니다.

육군은 지금도 되뇌입니다. “어떻든 결국 마지막 점령지에 깃발을 꽂는 것은 육군”이라고. 한국전쟁 때까지의 고지전(高地戰)식 체질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낡디 낡은 인식입니다. 실제로 예전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평택 대추리 사태 당시 4성 장군이 상황실 무전기를 뺏어 들고 “1소대 앞으로, 2소대 좌측으로”등을 외치면서 ‘지휘 역량’을 과시해 보였습니다. 큰 틀의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할 지휘관이 고작 소대장, 중대장 역할을 하며 호기를 부린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 군 지휘부의 수준에 절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천안함과 연평도가 당한 것도 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던 이유는 지상군 위주의 군 체계와 국방 지휘부 구성 때문입니다. 평면 공간에만 익숙한 이들이 3차원적 전투 공간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전술, 전략적 인식의 경직성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더 많은 적을 죽이는 걸로 승부하는 섬멸전 시대는 오래 전에 끝났습니다. 적 지휘부를 신속히 무력화시켜 전쟁 의지를 꺾는 것만으로 승패가 판가를 나는 시대입니다. 이게 또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젊은 병사와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압도적인 공군력과 전략무기 체계 확보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 전 한미 연합 훈련에서 ‘작계 5015’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참수 작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전략 무기와 공군력으로 적 지휘부를 선제적으로 궤멸시키고 소수 특수부대가 최종 정리하는 개념입니다. 지상군의 본격적 개입은 이때부터 안정화까지입니다. 전면 남침 시 적용하는 5027도 공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역시 공군력입니다. 압도적 육군 편중의 인력 운용과 예산 구조와는 전혀 맞지 않는 작전 개념입니다.

몇 년 전 국방 상부구조 조정 시도에 제가 극력 반대했던 이유도 같습니다. 해·공군의 비중과 역할을 대폭 높여야 할 판에 지상군 편중성을 심화하는 퇴행적 방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군을 염두에 뒀서가 아니라 엄중한 국가 안보를 위해서였습니다.(시도는 무산되었지만 4년 전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돼 과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민간 사병 출신으로는 전무후무한 수상자라 더욱 영광스럽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도대체 이런 시대착오적 안보 구조가 존속되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퇴행적 발상이 아무렇지 않게 시도되는 이유가 뭘겠습니까. 다급한 차세대 전투기 확보에 수십 년이 소요되고 결국 그마저 축소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책 결정 구조의 심한 편중성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구조나 탓하고 있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원래 기득권

을 가지면 누구든 놓지 않으려는 법입니다. 또 기득권이 오래 유지되면 나름대로 탄탄하고 완강하며, 일견 현실적인 논리가 구축됩니다. 그러므로 기득권을 허물기 위해서는 훨씬 정교한 논리와 의지, 실행 방안, 지속적 추진력 등이 필요합니다. 과연 지금 공군에는 그런 기득권을 허물 실력과 역량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의지를 갖고 꾸준히 키워가고 있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솔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군을 일반적으로 ‘엘리트’군이라고 합니다. 공군 스스로도 이 평가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자부심의 한 원천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지요. 엘리트군 이미지는 거의 대부분 오래전부터 타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은 병사와 간부 후보생들에 힘입은 것입니다. 천직이 아닌, 잠시 머물다 가기에는 근무 여건이나 대우가 좀 더 나은 곳이어서 고학력자들이 더 많이 선호했기 때문입니다.(혹 산뜻하고 단정해 보이는 제복도 한 몫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군 지휘부의 주축인 공사 출신이 타군 사관생도보다 질이 더 높고 더 우수한 교육을 받는다는 실제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작전 임무와 운용 장비의 특성상 영어에 좀 더 익숙하다는 점은 있지만 그것이 증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전투조종사들은 타군의 동급 장교보다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갖기가 더 어렵습니다. 늘 위험한 비행훈련을 위해 항시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시간을 쓰기가 쉽지 않지요. 타군 장교들이 근무지 안팎에서 쉽게 여유 시간을 갖는 것과 여건이 아주 많

이 다릅니다. 타군의 동급 장교들을 압도할 정도의 식견과 지식, 통찰력, 설득력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래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태평양사령부나 펜타곤의 미국 고급장교, 장성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현장 전투지휘관 수준이 아니어서 놀랐습니다. 그들은 국제 정세와 각국 정세 흐름을 웬만한 외교관 이상으로 꿰뚫고 국가 전략을 논합니다. 소속 군을 넘어 공중, 해상, 지상을 아우르는 통합 전술 전략적 사고를 당연시합니다. 미군 장성급이면 당장 대학 강단에 세워도 될 만큼 최고의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군을 통틀어 우리 군인들 중 강골인 무인들은 많이 보았어도 “아, 이 분 치밀한 전략가구나” 하는 느낌을 받은 군인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공군의 고급장교들은 더 뛰어난 인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드렸듯 공군이 주도하지 않는 현대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건이 좋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뼈를 깎는 자기계발로 진정한 엘리트가 돼야 합니다. 공군 장교로서의 압도적인 실력을 군과 사회에서 인정받지 않고는 현재 왜곡된 군의 전력 구조를 도저히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 상황이 위중한데 가망 없는 ‘시혜’만 바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군의 넓지 않은 대외적 입지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군 장성들을 만날 때마다 공군의 문화가 웬지 소극적이고 내부 지향적이며 사회적

네트워크도 상대적으로 좁다는 느낌을 자주 받아왔습니다. 군의 범주 안에만 웅색하게 머무르지 말고 정·관·학·재계의 다양한 엘리트들과 교류하면서 안팎의 변화 추이와 논리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군 운용과 전략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런 기회를 통해 사회 엘리트들에게 공군의 생각과 필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연하자면, 군 구조상 당장 정책 결정직에 직접 진출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공군의 논리에 공감하는 사회적 우군이라도 적극 확대해야 합니다. 소규모 조직의 장점은 충성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우수한 예비역 장병을 활용하는 일부터 시작해, 현역이라면 각기 직급에 걸맞은 양질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고와 행동반경이 영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은 공사인들이 앞장서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공군에도 여러 장교 충원 경로가 있지만 그래도 핵심은 공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말 나온 김에 이 점에서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육·해·공군 공히 사관학교 출신의 특정 전투병과가 진급과 보직에서 단연 배타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현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육군의 보병 지휘관, 해군의 전투함 지휘관, 공군의 전투조종사 출신입니다. 전략기획서부터 군수, 인사, 정보, 교육, 장기 발전 계획, IT 디지털 등 갈수록 분야가 다지화, 전문화, 고도화하는 추세에서는 일찌감치 전문성을 키워 각 해당 분야의 엘리트로 양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임용경로나 조종사 출신 여부에 차별을 둘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인재들이 경쟁하고 협의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순혈(純血)주의는 또 다른 기득권에의 집착일 뿐, 조직 발전에는 가장 나쁜 형태입니다. 유전학에서도 잡종강세(雜種強勢)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가령 신문사에서도 수습기자 기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은 실력 있는 경력 기자들을 언제든 받아들입니다. 한국일보의 창간 이후 외부 경력 출신이 편집국장이 된 예가 없습니다. 지금 한발 앞서가는 두 신문사는 경력 기자 출신이 편집국장은 물론 최고경영자까지 오른 사례가 꽤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 선두 경쟁을 벌이던 저희 신문의 위상이 전 같지 않은 데는 이런 조직 운영의 폐쇄성도 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이 문화를 바꾸는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든, 대학이든, 공무원 사회든 모든 조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군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역시 공사인들이 앞장서 이끌어야만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득을 향유하는 당사자가 그 이득의 부당함을 말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는 법입니다. 이 모든 제언은 공군을 더 키우고 역할을 확대하며, 궁극적으로 더 확실하게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했으면 하는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군이 중대한 역할에 걸맞은 위치를 하루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걱정하는 언론인으로서, 공군인으로서 저도 언젠간 도울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제가 드린 여러 제언이 혹 틀리거나 지나치더라도



‘바깥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외부 인식의 개선까지도 공사인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기자 글 답지 않게 경어체로 쓴 이유도 공사인들의 드높은 자부심에 누(累)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얘기를 덧붙입니다. 제가 공군을 남달리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닮고 싶었던 집안 어른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전부 다 그 ‘비행

기 삼촌’이 모는 줄 알고 자랑했습니다. 품모, 인품, 실력을 다 닮고 싶었습니다. 그 분이 퇴역 후 정치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신 일이 제가 기자직을 선택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곤 훗날 검찰에게서 “그 땀 어쩔 수 없었다. 잘못됐다”는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80대 중반을 넘기셨 으면서도 여전히 존경스러운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계신 그 분은 바로 공사 출신으로 첫 교장과 참모총장을 지내신 1기생 윤자중 장군입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을 이 지면을 빌어 전해 올립니다. ✕

이준희 사장은 현재 공군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민정
국민조종사, JETWINGS 대표

공사에 대한 이미지

필자는 2007년부터 공군에서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진행하는 ‘국민조종사 선발’에 선정되어 KA-1을 비행했고, 선발 지원자들 및 공군과 비행에 관심이 많은 회원들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 ‘JETWINGS’를 9년간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성무지〉에 공사 졸업생들에 대한 인상, 책임과 역할 그리고 바람을 소재로 글을 작성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어떤 의견을 기술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부담감만 더해갔다. 고민한 결과 일반인의 입장에서 편하게 작성해보기로 했다.

필자가 공사 졸업생들과 실제로 교류를 하게 된 것은 2006년에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선발’에서 경쟁 상대로 만나면서부터다. 이번 기회에 그 이후 10년간 공사생도들이 필자에게 어떤 분들이었을까를 되짚어보게 되었다.

일반인에게 공사생도의 이미지가 어떠냐고 질문한다면 대부분 ‘멋진 푸른 제복’이라고 답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 또한 일반인이기에 ‘제복’과 함께 ‘애국심’, ‘단결력’, ‘책임감’, ‘체력’, ‘우수한 성적’등등이 떠올랐다.

임관을 앞두고 새로운 출발을 향해 자신 있고 힘차게

나아가고자 하는, 절도 있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졸업하는 생도들부터 각종 행사 및 부대 방문을 통해 접한 영관급 장교분들 그리고 예편하신 후에도 공군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보람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졸업생들!

남다른 이분들에게는 입학하는 순간부터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요구된다. 일반인과 다른 이분들에게 평소 요구되는 사항은 어떤 것이며 공사에서의 생활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분들의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첫 번째로 ‘패기’와 ‘정열’을 꼽을 수 있다. 공군사관생도들이 불렀던 〈럭비부가〉의 가사인 ‘붉은 줄은 정열의 표시 우리는 남아다운 공사의 투사. 불을 쥐고 달려 나갈 땐 우리들 눈앞에는 거칠 것 없다’라는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분들은 가슴에 강인한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육사나 해사 생도들에 비해 ‘이 시대의 진정한 하이테크 전사, 투사’의 이미지가 부각된다.

전투조종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멋있어 보여 선택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직업을 선택한 것은 목숨을 걸고 직접 싸우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있다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군가〉 중에는 ‘가슴 속 끓는 피를 저 하늘에 뿌린다’라는 구절이 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섬뜩한 말이지만 공사 졸업생들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토이자 목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다보면 이것에서 비롯된 조금은 날카로운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리라 확신한

다. 졸업생 스스로가 생각해야 하는 책임과 역할이겠지만 필자는 ‘붉은 피’ 대신 ‘끓은 땀방울’만 흘리기를 바라본다.

두 번째로 공사졸업생들에게 느낀 점은 나이를 불문한 ‘애국심’이다. 한분 한분의 기본적인 중심에는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항상 ‘기승전국가’, 즉 결론은 국가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필자는 엄중한 안보 현실에 무감각한 요즘, 믿을 수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지만 작금의 사태는 구한말 주변 상황을 보는 듯하다. 이스라엘처럼 살아남기 위한 해안이 필요한 시기에 이를 직시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공사졸업생들이 각계각층에서 노력해야 할 점이 아닌가 싶다.

공사졸업생의 공통점 중 우려되는 부분은 ‘단결력’이 자칫 ‘내부의 단결력’으로 한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관학교 졸업생들은 끈끈한 인맥을 자랑한다. 생도 시절에 형성된 인연이 군 생활을 통해 공생 관계가 되고, 이 관계가 전역 후에도 이어진다. 문제는 자칫하면 이 관계가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긋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해육 3군의 조화와 협력, 더 큰 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군에서 내부만의 인맥은 결코 장점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전역하고 나서 새롭게 겪는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력이다. 생도 때부터 시작된 군 생활과 졸업 후 복무하면서 맡은 임무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외부 사회와의 다양한 접촉과 경험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지금까지 겪은 공사생도 중 많은 분들이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계셨다. 좋은 시각으로 보면 마음이 좋은 것이고, 다르게 보면 외부의 사회생활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이 풍부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이나 대응이 현재 생활 전선에서 뛰고 있는 일반인들의 감각과 다른 것이다.

가끔 이런 면을 볼 때 전역 후의 생활이 순탄하지 않겠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이는 필자가 그분들보다 능력이 우수해서 하는 걱정이 아니라, 공사출신들은 보통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갈등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면을 떠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사생도에게 요구되는 규범, 엄격한 통제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 언행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

움을 느낀다. 국가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안보에 위협적인 요소가 생겼을 때, 장소를 불문하고 군인으로서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부와의 사적인 접촉도 가급적 삼가는 것을 보며 그분들의 임무와 희생에 소리 없는 박수를 보내게 된다.

무거운 방향으로 의견을 드려 글을 읽는 분들께 심적 부담을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가 공사졸업생이 아니기에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고려해 내용에 대한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0년 간 필자가 눈으로 본 사실은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몸과 마음을 헌신해 자연스레 공사의 긍지를 전파하며 존경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900명이 넘는 JETWINGS 카페 회원들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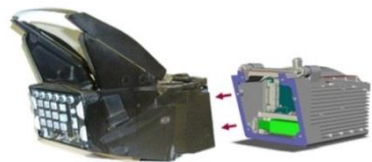
생도로서의 입교 초심을 유지하고 도전과 패기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JETWINGS 회원들은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필승! 

세계와 함께 대한민국 국군과 함께



Air IMINT System

Military Head-up Displays



R&M (Reliability and Maintainability)
HUD Upgrade for (K)F-16C/D



풍부한 경험, 정보력과 노하우를 갖춘 대한민국의 든든한 안보 파트너로서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주)라스하이텍
webmail.lasltd.co.kr

LAS Hi-Tech
LAS Hi-Tech Co., Ltd.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행복을 플러스하다!

대한민국 대표 일등 공제회를 넘어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의 찬란한 도약과
17만 회원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복지향상으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 -
그것이 바로 M+가 꿈꾸는 내일입니다.
믿음과 희망의 M+가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 ▶ **저축제도** : 회원 퇴직급여, 분할지급형 퇴직급여, 목돈수탁/비과세 종합저축
- ▶ **대여제도** : 회원대여(신한, 우리, 시티은행), 개인금융 신용보험 대여(시티은행)
- ▶ **주택분양** : 군인복지 기본법에 의한 택지공급주택, 군인공제회의 자체 택지개발 등에 의한 공급주택
- ▶ **무상복지** : 성년 축하금, 출산 보조금, 재해 위로금, 기념품 지급
- ▶ **복지시설** : 회원콘도(한화리조트, 제주 사인빌), 재휴복지(숙박, 장례, 웨딩, 레저, 의료/실버, 생활, 산후조리)
- ▶ **기타복지** : 인터넷 무료 법률상담, 인터넷 복지매장 이용
- ▶ **엠플러스웨딩** [공우EnC(주)] : 예식, 연회 등 회원 할인 가격으로 이용
- ▶ **M+ LOAN** [한국캐피탈(주) 시행] : M+ 환승론, M+ 스마일론, M+ 해피론

M PLUS 군인공제회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

M 군인공제회C&C **M** 대한토지신탁(주) **M** 한국캐피탈(주) **M** 공우EnC(주) **M** 엠플러스F&C(주) **M** 엠플러스자산운용(주)



신정식
47기

첫눈 오던 날!!

오늘 아침 나는 5시에 일어나서
관악산에 등산을 갔다.
깜깜한 새벽에 야음을 헤치고
집을 막 나설 무렵
눈이 오기 시작하더니
관악산 입구에 당도하니
눈은 갑자기 세차지기 시작했다.
눈이 오는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겨울나무 밑으로 걸어가는 나는
눈 덮인 몽돌을 밟을 때마다
수없이 넘어질 뻔했다.

산에도 눈... 땅에도 눈... 개울에도 눈...



나무 가지에도 눈...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변했다.
금방이라도 저 비탈진 언덕에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순록의 썰매를 타고
내려올 것만 같다.

그동안에 내린 눈으로 상수리나무 벚꽃 나무에는
눈꽃이 피어서 여기가 무릉도원이 아닌가 싶다.

모든 우주 만상이 잠들어있는 새벽 아침에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눈만이 나뭇가지 사이를 비집고
얼굴에 떨어진다.
한참을 걸어가니 먼동이 트기 시작하고

원경이 아련하게 시야에 들어온다.
 먼발치로 바라보는 山寺!
 눈 보자기를 쓰고 얼굴만 보일 듯 말 듯
 내밀고 있는 바위들!
 무거운 눈 이불을 덮고 단잠에 빠져있는 노승들!
 나목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아가며
 적막이 감도는 산사를 찾는 나의 뒷모습은
 마치 세속에서 시주를 얻어 절을 찾아오는
 노승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다.
 역시 겨울 산행은 이래서 좋은 것 같다.

나는 연주암에 당도해서
 부처님 앞에 엎드려 금년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고
 모든 것을 부처님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절에는 언제인가 아침에 찾아오는 등산객에게
 공양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 아침을 절에서 먹고
 쉼내가 짙게 나는 산사를 뒤로하고
 하산을 했다. ☒



박중권

9기, (예)공군소장, 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

밤하늘의 검투사

전투기 조종사들은 하늘의 검투사들이다. 하늘은 그들에게 영원한 고향이고 또 무덤이다. 일격필추의 개념으로 단 한 번의 승부를 위해 광활한 하늘을 누비며 적기를 찾아 헤맨다. 그들에겐 전시나 평시가 따로 없다. 굶주린 독수리는 천리안을 가지고 먹이를 찾아 헤맨다. 나는 전투기 조종사로서 30여 년을 그렇게 주야장천 적기를 찾아 광활한 하늘을 그렇게 날았다.

밤하늘은 때때로 너무 어두워 날기가 두려울 때가 있었다. 밤하늘 수많은 별 무리 속에 스스로 유성이 되어 어디론지 날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습은 정연 신비스럽기도 했지만 어둠 속에서 목표물을 찾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상으로 침투해 가는 특수임무 편대의 초저고도 야간 비행은 그 자체가 전쟁이요 어둠과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현대전에서 적기를 5대 이상 격추시키면 격추 왕(Ace)이라 부른다. 우리는 지난날 Ace가 되기를 꿈꾸며 얼마나 저 높고 넓은 창공을 날아 다녔던가? 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저 차가운 별무리 사이에서 적기를 찾아서 말이다. 더욱이 황야의 무법자처럼 분당 1,200발의 20mm 발칸포를 매단 팬텀기를 타고서 말이다.

전통적으로 전투기에는 적기를 격추시킨 대수만큼

동체 앞부분에 붉은 별이 새겨진다. 빨간 마후라를 목에 휘감았던 지난 30여 년 동안 Ace가 되기를 갈망했지만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우연찮게도 붉은 별이 10여 개나 새겨진 팬텀기를 타고 다닌 적이 있다. 국민이 방위성금을 모아 미국으로부터 추가로 사 들인 중고품 팬텀기를 탔기 때문이다. 사온 8대 중 2대가 그러했다.

월남전에서 Ace가 된 팬텀기를 한동안 몰면서 언제인가 때가 오면 Ace가 되리라 다짐하면서 우리는 붉은 별들이 그려진 자리에 “방위성금 헌납기”라 적었다. 조종사들은 팬텀기와 생사를 같이 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부대 창설식에서 내려 주신 글귀처럼 우리는 “자주국방의 전위 팬텀공군”의 산파요주역이 되었다. 팬텀기는 국가 지도자가 위기에서 홀로 일구어 낸, 한 시대의 역사적 산물이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달빛 아래 어둡게 날기보다 태양 아래 밝게 날기를 좋아했다. 야간 비행은 태양이 가려진 어둠 속의 비행이다. 달빛과 별빛 아래 불빛을 찾아가는 비행이다. 어둠 때문에 정확한 전투 기동이 쉽지 않았고 기동으로 흐트러진 양 날개의 평형감각을 즉각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다. 용맹스런 Ace들조차도 야간전투 기동에서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야간 비행을 해서 작전 가능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했다. 야간 비행은 가장 조심스러워서 하는 비행 중의 하나이다. 지난날 말단 요기로서, 편대장으로서, 시험비행 조종사로서, 부대 지휘관으로서 야간 비행을 주저하지

는 않았지만 가시밭을 걸어가듯 조심스러웠다.

30여 년 동안 여러 기종의 전투기를 몰며 생과사를 넘나들었다. 야간 비행은 그 시작과 끝이 어둠과의 싸움이고 순간순간 긴장의 연속이었다. 희미한 구름 속이나 밤의 어둠 속에서 순식간에 비행 자세를 잃게 하는 환상(Vertigo), 환각(Illusion) 현상으로 인한 비행착각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유발했었다. 야간 비행은 정신 집중과 긴장이 주간 비행보다 3배, 4배 더 했었다. 야간의 운중(雲中) 비행은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공허한 공간을 뚫고 헤쳐 나가야 했고 멀리 지평선조차도 볼 수 없어 비행자세를 바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빛이 없는 밤하늘 야간 비행은 불빛을 찾아서 되돌아와야 하는 귀소본능 때문에 긴장을 더해 갔다. 빛을 찾아가는 것이 살아 있음을 의미했고 되돌아가야 하는 생명의 갈구가 무한한 기쁨을 안겨 주었다.

대지가 고요히 잠든 별이 있는 밤하늘의 야간 비행은 내 스스로 별이 되어 흐르는 유성 같기도 하고 달이 있는 밤의 야간 비행은 은은히 밝아서 두려움 속에서도 한결 조용하고 편안했다. 높은 고도에서 내려다보는 대지의 불빛은 그 자체가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깊은 고요가 잠에서 깨어나듯 생존감이 있었다. 천리 먼 길의 불빛 하나도 그곳이 돌아갈 내 집처럼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다.

진정 두려운 순간들은 대지와 하늘 하늘과 바다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연속된 공중 기동 비행이었

다. 전투기의 좁은 공간은 나만의 공간이었고 그 좁은 공간이 우주였었다. 그 절대 공간에서 오른손에 꽂힌 조종간의 움직임에 따라 전투기는 화살처럼 불빛을 향해 날아갔다. 때때로 불빛을 놓인 구름 속에서는 비행자세계기(A/C attitude-indicator)만이 절대신의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구름이 대지를 덮은 밤일지라도 그 위는 언제나 수많은 별들이 찬란했고 신비로웠다. 하지만 대지로 돌아가는 길목에 때때로 보이지 않는 거센 눈비와 구름과 폭풍을 헤쳐 나가야 했다. 주어진 특수 임무를 띠고 미지의 목적지에 가야 하는 야간 비행, 주어진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돌아가야 하는 야간 비행은 활주로에 착륙 바퀴가 안전하게 접지할 때까지 초긴장의 연속이다.

주간 비행이 태양을 안고 가는 비행이라면 야간 비행은 달과 별을 쫓아 가는 비행이다. 밤하늘 전투기들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그 별 무리 속을 거침없이 날아간다. 때로는 달무리를 바라보면서 나르기도 했고 은하수를 가로 지르기도 하고 때때로 구름 속을 오래 동안 지나가기도 했다. 어둠이 짙을수록 고도가 낮을수록 긴장감은 더해갔다.

밤하늘 전투기는 때때로 어디론지 흘러가는 유성을 만난다. 그들은 생각보다 멀리 더 빠르게 날아갔다. 우리는 가야 할 길과 정해진 시간과 닿아야 할 목표가 전혀 다름을 알면서도 야릇한 친근감을 느낀다. 그럴 때이면 혼자서 독백을 하곤 했다. “저 별은 어디로 저렇게 사라져 가나? 우리는 불빛을 찾아 반드시

기지로 돌아가야 해.”했던 지난날의 야간 비행이었다.

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북으로부터 간첩선의 야간 침투가 많았다. 지금의 합동참모본부가 대간첩 작전의 총 지휘부가 되었다. 기지마다 야간 공격기 편대가 비상 대기실에서 출격 명령을 기다렸다. 때때로 전술 지원기가 야간에 조명탄을 투하하고 그 조명탄에 필사적으로 도망하는 간첩선을 전투기가 격침시켰다. 동해, 서해, 남해로 야음을 이용해서 북으로부터 간첩의 침투가 여러 차례 있었다. 북으로 도망하는 고속 간첩선을 철쭉 같은 밤바다에서 조명탄을 투하한 후 격침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전인가는 경험했던 조종사가 아니면 그 짐작이 어렵다.

불빛이 없는 목표물을 발견하고 추적하기도 어렵지만 물이랑을 일으키며 도망가는 쾌속정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명중시키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불빛도 없는 바다에서 고도 판별이 더 어려웠다. 도망하는 간첩선을 수차례 공격하다 보면 비행자세를 잃게 되고 공격 후 안전 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력 4G-6G 이상으로 급상승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아래로 몰려 순간 시력을 잃게 된다. 삼반 기관으로 전달해 오는 평형감각은 순간적인 작용과 반작용으로 정반대로 일어난다.

이때 비행자세 계기를 믿고 수평 자세로 회복하지 않으면 반대조작으로 전투기 자세는 비정상 자세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한다. 그로 인해 많은 전우들이 야간 비행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미래 전에도 항공작전이 전쟁을 주도할 것이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주간 비행이 끝났을 지라도 언제나 야간 비행을 준비했었다. 야간에 공중으로 침투하는 적기를 격퇴시키는 전천후 요격 훈련을 비롯해서 적 전쟁 지도부와 전략 목표를 야간에도 강타할 수 있는 야간 공격 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야간 작전의 경험이 부족했던 탓으로 실제 야간 작전과 비행 훈련 과정에서 사라져 간 야간 비행 조종사들의 빼아픈 희생이 언제나 야간 비행 자체를 숙연케 할 것이고 야간 비행에 대한 인식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지로 돌아오는 야간 비행은 특별한 성취감으로 남아다운 멋과 낭만이 닿기도 했다. 때때로 초승달이 비행 방향을 옹계 잡아 주기도 하고 하늘에 깔린 수천 개 별들이 가까이 가슴에 닿기도 한다. 먼 불빛을 따라 기지로 돌아가던 밤하늘 야간 비행이 이제는 한반도 남쪽 하늘 아래가 불야성으로 모습이 바뀐 도시들을 지난다. 그 도심의 찬란한 불빛들은 이제는 안내자요, 파사로운 생명의 불빛이 아니라 어느덧 화려한 도시의 발광이 되어 우리 스스로가 이방인이 되는 느낌이 들곤 했다.

지나고 난 시간은 모두 아름다운 것인가? 어둠은 모두에게 두려움을 주었지만 도전의 용기를 새롭게 주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야간 비행은 계속 될 것이다. 역경의 지수가 크면 행복의 지수도 큰 것인가? 때때로 밤하늘의 별들 사이로 흐르는 유성을 보노라면 지난날의 야간 비행이 “참으로 아름답고 남아다웠던 비행이었다.”라고 회상된다.

애기(愛機)와 함께 긴 세월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정비사, 무장사들을 잊지 못한다. 그들은 전투기 조종사들과 가장 가까웠던 전우들이다. 지척의 거리에서 이륙하는 전투기의 불기둥과 폭음을 지켜보며 무사히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주던 그들이었다. 그들이 있었기에 전투기는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신념의 조인이 될 수 있었다. 오늘 대한 공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 되었다.

멀지 않아 우리가 모두 염원했던 통일 시대가 올 것이다. “어느 때쯤 압록강을 따라 두만강을 따라 북만주 건너보며 패기 찬 요기와 함께 야간 초계비행을 할까?”했던 지난 세월 30여 년의 야간 비행 애환이 어제 일만 같다. 



최성열

15기, (예)공군준장, 중부대학교 초빙교수

하늘의 사계, 다시 한 번 날고 싶다.

태고의 하늘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하늘은 푸른가 하면 푸르지 않고, 흰가 하면 희지도 않다. 그렇다고 검지도 않다. 하늘은 계절마다 다르고 하루하루가 다르다. 아니다, 하늘은 매 순간 다른 얼굴로 나를 맞았다.

봄바람을 안고 이륙활주를 시작한다. 부양까지 십여 초 남짓한 질주. 길게 누웠던 활주로가 일어나고 풀밭이 덮칠 듯 내 얼굴을 향해 달려드는 찰나. 나의 애기는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진입한다. 대자연은 힘찬 비상을 축복하듯 은빛 날개 아래로 연두색 용단을 깔아 놓는다.

점차 고도를 높인다. 숨 가쁘게 달려가던 풍경이 느

린 화면으로 바뀌다 동해와 서해가 건너다보이면 세상은 정지된 그림이 된다. 물을 가득 댄 논들이 은빛 비늘처럼 번득이는 사이로 모래톱을 거느린 푸른 강 줄기가 몸을 뒤틀며 흐르고 있다. 덩치 큰 진초록 산들은 무리를 이뤄 백두대간으로 내달리고 연녹색 야산들은 낮은 포복으로 해안을 향해 기어간다. 동면에서 깨어난 들판은 길게 기지개를 켜며 도시를 품고 동서남해는 액자처럼 짙은 북 청색 테를 두른다.

잠든 듯 고요한 산과 산 사이로 안개가 스멀스멀 퍼져나간다. 거룩한 여신의 옷자락이라고 할까 아니면 마녀가 피워 올리는 향연(香煙)이라고 할까? 희끄무레한 하늘 아래 산하는 주술에 걸린 공주처럼 조용히

봄잠에 취한다. 춘곤증에 빠진 봄 하늘을 뒤로 하고
기지로 돌아온다. 비행장은 아내처럼 수줍은 듯 반쯤
안개로 얼굴을 가린 채 나를 기다리고 있다. 가까이
다가설수록 감추어지는 모습. 몽롱한 안개 속에서 관
제사 목소리만 들린다. “온 코스(On course), 온 글라
이드 패스(on glide path)”

정확한 진입 경로라는 지시를 따르다 보면 결심고도
(decision height)에 이르러서야 흐릿하게 보이는 활주
로. 돌아온 등지가 어느 때보다 포근하다. 아련한 봄
하늘의 뒤를 이은 번덕스러운 여름 하늘. 험상궂은
표정. 켜켜이 쌓인 구름을 뚫고 상승한다.

구름은 수목화처럼 시야를 가린다. 때로는 짙은 농묵
으로 때로는 옅은 담묵으로. 거대한 구름 뒤편에 갇힌
나는 똑바로 있는지 거꾸로 매달려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오로지 계기판만이 내 자세를 알려 줄 뿐이다.
자세계(姿勢計)는 나의 생명줄. 한 순간도 놓치지 않
고 살핀다. 이런 때는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럽다.

물기를 잔뜩 머금은 구름이 캐노피(canopy)에 부딪혀
포말처럼 퍼져 흘러간다. 난기류는 내 날개를 사납게
흔든다. 성난 헐크 같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분노케
한 것일까? 때로는 나를 제기 차듯 들었다 놔다 심술
을 부린다.

항공기 기동 성능이 무거운 여름 하늘. 비행훈련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매 순간 스치고 지
나간다. “조종간은 처녀 젖가슴 만지듯 다뤄야 해.”
그러나 여름 하늘은 암전한 처녀가 아니다. 카르멘이

다. 뜨겁게 작열하는가 하면 어느 순간 미친 듯 울부
짖다가 요란하게 몸부림친다. 앞을 분간 할 수 없는
암담한 운무 속을 방황하다가 마침내 구름을 뚫는다.
비로소 마녀의 검은 망토 속으로부터 도망친 것이다.

태양이 나를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나는 신천지. 구차
스런 대지는 사라지고 끝 간 데 없는 순백의 대평원
이 펼쳐진다. 바로 운해(雲海), 그것이다. 캐노피를 열
고 뛰어 내리기만 하면 그 폭신한 솜뭉치가 부드럽게
내 몸을 받아줄 것만 같다.

흰 구름 위로 찬란한 무지개가 나와 같이 달리고 있
다. 지상에서 보는 무지개는 포물선이지만 하늘 위에
서 보는 무지개는 거대한 팔찌 같다. 나는 애기와 함
께 그 영롱한 색환(色環) 속으로 돌고래처럼 뛰어든
다. 순간 내 영혼을 흔드는 환희의 절정감! 나와 나의
애기는 무지개 일곱 색깔에 흠뻑 젖는다.

가을이 되면 초록색이던 대지가 황금색으로 변신한
다. 나는 황금색 양탄자를 타고 이륙한다. 아득히 높
아진 하늘. 나의 애기는 나를 태우고 솟구친다. 노랑,
주황, 빨강으로 점철된 산하가 슬며시 아래로 밀려간
다. 멀리 희뿌옇게 빛이 바랜 바다가 옅은 구름과 어
울려 있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곤게 뻗어 있던 수평선
이 점차 호를 그리며 지구를 포옹하듯 감싸 안는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하루 종일 숨 가쁘게 달
려온 태양이 상기된 얼굴로 지평선 위에서 나를 보고
있다. 간절한 눈망울에 가슴이 설렌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고개를 숙인다. 안타까운 마음에 조종간을 당
긴다. 오백 피트 수직 비상. 가라앉던 해가 다시 나를
돌아본다. 그리고 빨간 머플러를 잠시 흔들다가 다시

잠긴다. 나는 다시 조종간을 당긴다. 천 피트 상승. 다시 나의 시야에 잡히는 태양. 그러나 매정한 태양은 결국 지평선 너머로 모습을 감추고 만다.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처럼 안타까움에 목이 탄다. 불타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인간 나인 것일까?

태양이 남겨 놓고 간 빈 하늘. 지는 노을 속에 나 혼자 남는다. 외로움이 어둠과 함께 밀려온다. 고개를 흔들 듯 횡전(aileron roll)을 해본다. 그래도 떨치지 못하는 그리움. 위에서는 캐노피에 박힌 별들이 나를 달래주고 아래에서는 도시의 영롱한 불빛들이 위로한다. 동해 오징어잡이 선단들도 질세라 휘황찬란한 보석 발을 밤바다에 일구어 놓고 나를 부른다.

위에도 별. 아래에도 별. 내 가슴에도 별. 가을 밤하늘을 별이 적신다.

얼어붙은 강. 텅 빈 들판. 회색의 도시 너머로 겨울 하늘이 무서우리만치 퍼렇다. 광야의 늑대 울음 같은 바람 소리. 천마의 갈기 같은 편운. 이런 야성의 소용돌이가 나를 부른다. 조종간을 힘껏 움켜잡는다. 최대출력을 끝까지 밀어 넣는다. 조종간을 거칠게 당긴다. 나는 휘몰아치는 바람을 타고 심해 같은 하늘로 치고 올라간다.

루프(loop), 큐반-8(cuban-8), 이멜만 반전(Immelman turn), 거친 수직기동(垂直機動)을 쉬지 않고 연속으로 한다. 산소 밸브는 숨 가쁘게 헐떡이고 압축 공기는 내 혈류를 조여 온다. 나는 얘기를 격렬하게 끌어당기며 기동한다. 그러면 허리에 감기는 여인처럼 살갑게 돌아가는 조타 성능. 겨울 하늘만이 줄수 있는 관능이다.

후기 연소기(after burner)를 터뜨린다. 태고 이래 변

함이 없는 '하늘 위의 하늘', 성층권으로 진입한다. 시퍼렇게 날이 선 겨울 하늘. 구름 한 조각 남아 있지 않다. 높이 올라갈수록 하늘은 점차 색깔이 바뀐다. 파랗던 빛이 질푸른 빛으로 바뀌다가 마침내 검은빛으로 변한다.

엄숙한 신전에 들어선 듯 순간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엄습한다. 적막과 고요만이 나와 나의 얘기를 에워싸고 있을 뿐. 나를 실어다 준 바람조차 어디로 갔는지 종적이 없다.

신들의 고향인 하늘. 나에게 하늘은 무언가 말해줄 듯하다. 하지만 하늘은 끝내 입을 열지 않는다. 하늘의 언어는 침묵이란 말인가? 신전을 나와 인간 세상으로 기수를 돌린다. 나는 두 주먹을 힘주어 쥐어 본다. 내 심장은 분명히 뛰고 있고 나는 분명히 살아 있다. 원시의 신비가 숨 쉬는 그곳에서 나는 나의 존재를 다시 확인한다. 비행운이 뿔어져 나온다. 나의 고뇌와 환희가 십씨 1760도 엔진 열기에 용해되어 뿔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비행운은 잠시뿐. 그 뜨겁던 사연들도 곧 스러지고 말 것이다. "모든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누군가의 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봄 하늘은 아련하고 여름 하늘은 번덕스럽다. 가을 하늘은 그리움으로 차 있고 겨울 하늘은 태초부터 지켜 온 침묵을 고수한다. 변하는 듯 변함이 없는 하늘이 노병을 부른다. 지상 3만 피트 상공. 남겨두고 온 내 젊은 날의 하늘! 그 사계절의 하늘을 다시 한번 날고 싶다.

등단 소식을 전하며

나이 70이 넘어 등단하게 되었다. 공자께서 “칠십이 종심소욕 불유구(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라 했으니 다 소욕심을 부렸다 해도 지탄 받을 일은 없겠다 싶다.

글과는 담을 쌓고 살았다. 글은 감성이 풍부하고 깊은 사유를 하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찰나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직관으로 생사를 결단해야 하는 전투조종사에게는 걸맞지 않는 일이라고도 생각했다. 생텍쥐페리가 있었으나 초창기 재래식 항공기에서나 가능했지 마하 2.5의 초음속시대에는 가당치도 않다고 여겼다. 그러나 하늘에 올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접할 때면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기도 했었다.

그 옛날 15, 16, 17, 18 기생이 한마음으로 사관학교에 성무탑을 세웠다. “하늘에 건다, 저 드높고 푸른 하늘에 건다.” 성무탑 현시처럼 우리들의 지향점은 하늘이었다. 그리고 오로지 30년을 하늘에서 살았다. 그 후 나는 삼성에서 10년, 중부대학교에서 10년을 보냈다. 하늘과는 생이별을 하고서도 비행기 소리가 나면 하늘을 봤다. 비행하는 조종사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조작하는 손놀림 하나하나도 머릿속에 그려졌다. 우연히 삼성동우회지에 글을 싣게 되었는데 이렇게 함부로 글을 써도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수필교실을 찾았다. 매주 글쓰기 공부를 하

며 ‘예술은 기술의 가지 끝에 피는 꽃’이고, ‘수필은 자기 성찰의 문학’으로 지난 세월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특히 하늘에서 살았던 30년 세월이 흘러간 추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자산으로 쌓여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더듬어 올라가는 하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선명했다. 아니 그때보다 더 또렷했다. 그래서 내 젊은 날로 돌아가 하늘을 노래하고 싶다는 소망이 가지를 치기 시작했다. 또 수많은 작품에 등장하는 하늘이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 되는 글을 써 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다. 사람들에게 하늘이 경외의 대상만이 아니라 좀 더 친숙한 세계가 되게 하고도 싶었다.

이런 마음이 하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는지 『에세이 문학(2015년 겨울호)』에서 <하늘의 사계, 다시 한 번 날고 싶다>로 등단하게 되었다. 부끄러운 글이지만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뜻에서 동문들께 소개했다.

하늘에서의 삶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우리만의 소중한 자산이다. 나는 선·후배 동료들이 그 자산을 살려 다방면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우리 아니고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공군 문화유산을 만들어 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다. ✕

약력 삼성 테크윈 임원(1993~ 2005) / 2014년 에세이문학 봄호에 <메추리가 드디어 독수리 되다> 초회 추천 / 2015년 에세이문학 겨울호에 <하늘의 사계, 다시 한 번 날고 싶다> 등단 / 2015년 에세이피아 작품상 수상 <불시작>



문태일
20기, 서울문화관광해설사

나의 단소와 민요 사랑

나는 3년 전부터 일주일에 5일은 한 시간 반씩 단소(短簫) 연주와 장구를 치면서 민요(民謠) 부르기를 하고 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연습을 한다고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단소와 민요를 매우 좋아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실 꼭 그렇지 않다. 매일 연습하며 지내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나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경복궁 등 서울의 각종 문화재와 관광지를 국내외 관광객들과 함께 걸으며 설명하는 서울문화관광해설사를 하고 있다. 나 나름대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 외국의 문화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문화재가 잘 보존된 프랑스 파리나 이탈리아

로마와 달리 우리나라는 잦은 외침과 6·25전쟁으로 서울에 온전하게 남아있는 문화재가 적다는 것이 늘 안타까웠다.

그러던 어느 날 국립극장에서 국악공연을 감상하다가 이것이 잘 보존된 우리의 문화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름다운 국악의 소리를 배워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문화재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데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바로 전통춤과 민요 그리고 전통악기인 단소를 배우기 시작했다. 전통춤의 경우 학원에서 춤의 기본 동작을 배우고 이어서 도라지 춤, 뱃노래 춤, 한량무 등을 익히며 전통춤의 진가를 만끽했다. 하지만 이전에 등산을 하

다 실수로 부러졌던 오른팔에 남은 장에 때문에 동작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전통춤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단소와 민요는 지금까지 계속 연습하고 있다.

국악공연을 관람할 때, 단소 소리가 유독 아름답게 들렸다. 그중에서도 〈청성곡(淸聲曲)〉이라는 독주곡은 내가 직접 불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정도로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전통악기 중에 소지가 편하고 배우기 쉽다고 알려진 단소를 배우기 시작했다. 단소를 배우면서 전통악기 연주에는 서양에서 도입한 도레미 등의 8음을 사용하지 않고 중(仲)·림(林)·무(無)·황(潢)·태(汰) 다섯 음을 사용한다는 것, 아울러 소리를 제대로 낸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연습하는 단소의 아름다운 소리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단소타령〉이라는 민요의 가사를 직접 작사하고 영어와 일어로 번역해 연습하고 있다. 앞으로 1년 정도는 가창과 연주를 연습할 예정이다. 3개 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노래 도중에 단소 연주가 포함된 〈단소타령〉이 완성되면 유튜브에 소개하고 또 개인 발표회도 가질 생각이다.

민요는 우리 민족의 혼과 희로애락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다. 나는 민요에서 해설에 도움이 되는 소재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민요학원을 다니며 민요를 배우고 익히면서 문화재 해설에 활용하고 있다.

민요는 우리 선조들이 집단생활의 감정을 공동으로 표현할 때부터 생겨난, 농어민들의 생사고락을 함께 한 노래다. 과거에는 양반들이 즐기는 궁중음악인 제례악(祭禮樂), 연례악(年禮樂)과 가사(歌詞), 시조(時調) 등만을 음악이라고 불렀다. 농어민이 즐겨 부르는 민요와 판소리, 농악 등은 음악이 아닌 소리라고 불렀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소리꾼이라고 낮춰 불렀다. 또 민요는 악보로 기록하지 않아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근대에 이르러 외국인 교사 호머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의 부인인 음악교사 메이 헐버트가 아리랑을 오선지 악보에 기록한 것을 기점으로 악보에 기록되기 시작했다.

민요에는 〈아리랑〉, 〈태평가〉, 〈청춘가〉 등의 독자적인 제목을 가진 노래도 많지만 ‘타령’이라는 이름이 붙은 노래가 많다. 〈새타령〉, 〈꽃 타령〉, 〈비단타령〉, 〈기생타령〉, 〈장기타령〉 등 수많은 타령곡이 있는데 나는 이 타령의 가사 속에서 해설에 필요한 소재를 찾아 해설에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복궁 코스를 해설할 때는 광화문 앞에서 〈경복궁타령〉의 한 소절인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 온다”를 부른다. 그런 다음 “경복궁의 보루각에 있는 장영실이 발명한 물시계인 자격루가 새벽 네 시경에 파루(罷漏)를 알리는 종을 서른세 번 울리면 광화문과 보신각의 동, 서, 남대문에 걸려있는 종이 서른세 번 울리면서 문이 열리고 통금이 해제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또 한강 절두산 성지 코스의 경우 국내외 관광객과 함께 강변을 걸으며 한강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한

강수타령》의 한 소절인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 타고서 애루화 뱃놀이 가잔다”를 부른다. 그다음에 조선시대 한강에는 세 종류의 배가 있었는데 첫째는 수상 유람선, 둘째는 강을 건네주는 나룻배, 셋째는 짐을 수송해주는 황포돛배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양반들이 주로 부르는 시조창은 느리고 어렵기 때문에 쉽고 재미있게 시조 가사를 노래하는 굿 가락을 해설에 이용하고 있다. 굿 가락은 노랫가락이 있는데 다가 멜로디도 아름답다. 성균관 코스 해설을 하면서는 공자의 유학 체계를 쉽게 설명하는 노랫가락인 “공자님 심으신 남계 안연 증자로 물을 주어 자사로 뽕은 가지 맹자 꽃이 피었도다. 아마도 이 꽃 이름은 천추만대에 무궁화인가”를 부른 뒤, 유교의 기본 경전인 <사서삼경(四書三經)>의 주요 내용이 공자님과 수제자인 안자(顔子)와 증자(曾子) 그리고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와 맹자(孟子)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성북동 코스의 길상사라는 절을 해설할 때는 탑 앞에서 <탑돌이>의 한 소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세 도세 백팔 번을 도세”를 불렀다. 그런 다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이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같은 마음을 갖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라는 것, 탑돌이라는 행사는 사월초파일이나 큰 재(齋)가 있을 때 절에서 거행하는 불교 의식이라는 것, 108가지로 분류한 중생의 번뇌를 끊기 위해 탑 주위를 백팔 번 도는 행사를 한다고 알려준다.



단소 연주 장면 2014년 12월 서울문화관광해설사 송년회 장기지랑에 출연 단소로 <청성곡>을 연주했음

이렇게 해설 도중에 해설 내용과 관련된 민요를 한 소절 부르고 설명을 하며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고 즐겁게 만들었다. 이런 방법이 문화재를 재미있게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드물기는 하지만 어떤 외국인 관광객이 민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국립극장의 국악공연 일정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는 몹시 보람을 느꼈다.

나는 해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민요를 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조선시대 문관의 관복 가슴 부분에는 새를 그린 흥배가 달려있다. 흥배에 있는 새는 독수리, 학, 기러기 중 어떤 새일까?’등 객관



식 질문을 준비해 활용한다. 또 궁궐과 전쟁기념관의 십이지신상 앞에서 ‘내가 쥐띠라고 하자 태국 장교가 나는 코끼리띠라고 말한 것’을 알려주며 한국과 주변 나라들의 띠가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다.

‘터키가 강대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할 때, 바닷물

은 젊은 병사들의 피로 붉게 변했다. 그래서 터키는 두 번 다시 전쟁으로 젊은이의 피를 흘리지 말자는 각오로 빨간 바탕에 흰 초승달과 별이 그려진 국기를 사용한다’는 내용을 터키 장교에서 들은 적이 있다. 태극기를 해설할 때, 수집해두었던 이런 스토리텔링 자료를 활용해 태극기의 이론을 설명하는 등 주제를 재미있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었는지 2015년도에 우수해설사로 선발되어 서울시장 표창장과 함께 금년 10월에 3박 4일간 해외연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행운이 따라준 귀한 결실이라 생각하며 현역 시절 정훈장교로 장병 교육에 마음껏 기여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나의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국내외 관광객과 초·중학생에게 우리 문화재와 전통음악의 훌륭함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이수남
21기, 전 대한항공 기장

겨울 사랑 이야기

아내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볼 때, 지방에 거주한다거나 바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변듯한 음악회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다.

2015년을 20여 일 남겨둔 작년 12월 10일, 우연히 KBS에서 겨울 사랑을 주제로 하는 <더 콘서트>라는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에 방청객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젊은 여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신지아 씨가 사회를 보고, 피아노와 첼로, 바이올린, 기타 등을 연주하고, 유명 소프라노와 바리톤 성악가들이 출연해 노래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녹화 현장에 가게 된 것이다.

여의도에 10여 년을 살면서 한 번도 방송국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운 좋게도 KBS 별관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었다. 녹화장인 공개홀에 입장하기 전, 겨울에 대해 사랑 이야기를 써서 내면 두 명을 뽑아 사연을 소개해주고 상금도 20만원씩이나 준다고 했다. 아내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무심코 한 번 써보라고 했는데 이것이 채택되어 방청객들 앞에서 사연이 소개되었다. 사연의 내용은 이렇다.

‘저는 손주 넷을 둔 할머니입니다. 39년 전, 서울에서 강릉까지 대여섯 시간 걸려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갔었는데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힘든 줄도 모르고 그

먼 길을 오가며 만나곤 했습니다.

그는 푸른 제복에 빨간마후라를 목에 두른 공군 전투 조종사였습니다. 오직 멋진 빨간마후라만을 가슴에 새기며 그저 좋아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경포대 앞바다에서의 아름다웠던 기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두 아들 내외와 네 명의 손주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당시 공군대위로, 동해 지역에 있는 해군의 제1해역사령부 공군연락장교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겨울날이면 39년 전 경포대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비록 옛날 구세대의 아날로그식 러브스토리지만 네 아이의 할머니가 된 지금도 저에게는 설레고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사연을 써서 냈는데 그것이 채택되었으니 2015년도 연말에 주어진 행운이라 할 수 있겠다. 녹화 전에 소개가 되어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녹화장 안에서는 인터뷰하는 모습이 대형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중계되었다. 사회자가 아내와 몇 가지 인터뷰를 한 다음 “오늘 그 당시 빨간마후라께서도 오셨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더니 내게 마이

크를 건네며 “요즘은 무엇을 하며 지내시느냐”고 물었다.

내가 “오래전 공군 전투조종사 생활을 무사히 끝마쳤다. 전역 후 민간 항공사에서 기장으로 20여 년 간 근무했고, 지금은 정년퇴직 후 손주 유치원 픽업하기, 일주일에 한두 번 동기생 및 동창들과 점심 모임 가지기 그리고 가끔 중학생 진로 상담시간에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 소개하며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대답하자 방청객들이 많은 박수로 격려해주었다.

녹화가 끝난 후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부를 알아보고 축하해주었다. 옆자리에 앉았던 젊은 친구는 자기가 공군사병으로 횡성 비행장에 근무했었다고 반가워했다.

방송국 구경도 하고, 음악 감상도 하고, 20만원의 상금도 받고, 무엇보다 모처럼 젊은 날 빨간마후라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던 아주 따뜻한 음악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너무나 감사한 2015년 12월의 겨울밤이었다. ❧



김철수

H*양지병원 이사장, 의학박사, 내과 전문의

중년의 건강관리

1. 중년이란?

흔히 중년기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 그러나 정확히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한 사람이 태어나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단계별 과정을 생애주기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생애주기는 성장기, 성숙기, 노쇠기, 해체기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생애주기 중 노쇠기는 신체의 노화가 진행되고 노동시장에서의 은퇴 및 자녀의 독립이 발생하는 시기다. 인간발달이 연속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 심리적, 환경적으로 일어나고 문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숫자로 정확하게 구분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만 노쇠기는 중년기(50~64세), 노년기(65~84세)로 다시 재분류할 수

있다. 참고로 30~49세는 성숙기 중 장년기로 분류된다.

중년기는 양면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노부모와 성장한 자녀의 중간에 위치하며 누군가를 돌본다는 중요한 책임이 있는 동시에 사회생활과 직업 생활에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대인관계 및 사회 경제적으로 절정을 이룬 시기이기 때문에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성취보다는 하강과 은퇴 시기를 의미하고 노년기로 들어가기 전의 준비 단계라고도 볼 수 있으며 현대 사회가 생산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젊음을 숭배하기 때문에 '상실감의 시기'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중년기의 연령은 가족 주기, 결혼 생활 주기, 개인의 심리적, 생물학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 남녀에 의해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이 이 연령대에는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 건강을 위한 중년기의 종합적인 관리란?

WHO(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이란, 단지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양호한 상태(Well-being)”라고 말한다. 건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신체’에 대한 건강만 챙기려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 또 우리나라 특성상 ‘정신 건강’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단순히 장수하는 것이 아닌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건강수명’연장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노년기의 우울 및 자살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면 중년기부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한’건강을 위해서 중년기에 해야 할 일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1. 신체적 건강을 위한 중년기의 관리

우리나라의 사망률 및 사인의 변화, 만성질환 실태를 알아보면 어떤 병에 대해서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014년에 통계청에서 나온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의 사망자수는 267,692명으로 2013년보다 증가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는 527.3명으로 역시 2013년보다 증가했다. 두 지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남자의 사망률은 여자보다 1.22배 높은 것으로 나왔다. 사망 10대 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자살, 폐렴, 당뇨, 만성하기도 질환(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간질환, 운수사고, 고혈압성 질환인데 암, 심장질환, 폐렴, 만성하기도 질환, 고혈압성 질환은 전년도보다 증가세를 보였다.

또 연령별 3대 사망원인 순위를 보면 50대는 암, 자살, 간질환, 60대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어떤 병에 대해서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꿈꾸지만 암을 비롯한 주요 사망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은 의외로 단순하다. 누구나 알 만한 상식적인 건강 관리법들을 여기서 다시 모아 소개하니 즉시 실천하기를 권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금연과 절주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 하면 폐암만 연상하는데 담배는 위암, 대장암, 식도암, 방광암, 신장암, 구강암 등 거의 대부분의 암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혈관을 막는 동맥경화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이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 2, 3위 모두의 원인이니 반드시 끊을 필요가 있다. 금연을 단순히 개인에게 맡기기보다는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최근에는 국가 차원에서 금연 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연콜센터(1544-9030)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병, 의원의 금연클리닉을 방문해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받고 약물 처방을 병행하면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12주 약물 치료나 6회

진료를 성실하게 이수하면 본인부담금 환급 및 10만원 상당의 건강 용품도 받을 수 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또한 건강 유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식(食)문화는 고염분, 고탄수화물 식사가 주를 이룬다. 밥, 면, 감자 등의 탄수화물은 초콜릿처럼 달콤한 음식을 먹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더 먹고 싶어지는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요한다. 밥이나 빵, 각종 면, 고구마, 감자, 옥수수, 떡 등의 탄수화물 음식뿐만 아니라 단당류가 급속도로 흡수되는 형태인 각종 음료수도 줄이는 것이 좋다. 짜게 먹는 습관도 개선이 필요하다. 소금, 된장, 간장, 김치 같이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는 염분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나친 염분은 혈액의 삼투압에 영향을 주어 고혈압 발병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는 등 식습관 개선으로 조절해야 한다. 튀김이나 기름에 볶은 음식을 최소화하고 살코기,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풍부한 비타민과 식이섬유의 보고인 채소를 매 끼니마다 습관처럼 먹으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도 꼭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에 따라 신체 기능 저하 및 비만 관련 만성질환의 위험성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섞어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유산소 운동은 칼로리 소모량이 많고 체중 감량과 심폐 기능 향상의 효과가 있으며, 근력 운동은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주고 각종 신체 기능의 향상을 돕는다. 개인차가 있지만 일

반적으로 ‘스트레칭과 가벼운 준비 운동—유산소 운동—근력 운동—유산소 운동—마무리 운동’의 순으로 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성인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주요한 감염병을 미리 막는 것도 필요하다. 간염 항체가 없을 경우 A형 간염은 6개월에 걸쳐 두 차례, B형 간염은 첫 번째 접종 후 1개월, 6개월에 걸쳐 세 차례를 맞아 항체를 생성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분 독감 예방주사는 매년 10~12월, 폐렴구균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만 맞으면 된다. 이 외에 대상포진은 1년 이내 이를 앓은 적이 없을 경우 평생 단 한 차례만 맞으면 되고, 파상풍 예방주사는 날카로운 물체로 외상을 입었을 경우에 한해 10년마다 맞으면 된다. 또한 여성이라면 반드시 자궁경부암 및 MMR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건강하게 늙기 위한 마지막 방점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다. 주요 질병의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절하게 조치해야 장수도 하고 남은 노후를 즐길 수 있다. 40세 미만의 사람은 2년마다 기본 검진을, 40세 이상은 매년 기본 검진과 함께 가족력이나 병력에 따라 암 검진 또한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50세 이상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혈관 검진을 지속적으로 받아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좋다.

앞서 살펴본 금연, 절주, 건강한 식습관, 운동, 예방접종, 정기적 건강검진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치고는 단순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실천하는 것이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 ‘오늘’부터 앞서 살펴본 건강 유지 비결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2-2. 정신적 건강을 위한 중년기의 관리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50대의 두 번째 사망원인이 자살인 만큼 자살을 일으키는 원인인 정신질환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2011년 전국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24.7%는 불안, 기분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병적 장애 등 정신질환을 평생 한 번 이상 앓은 적(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이 있었다고 한다. 이 중 자살과 관련이 높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 우울증이다.

우울증은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한다. 건강한 사람도

감기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폐렴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우울증에 걸린 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합병증인 자살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조기 치료 시 완치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신과 진료, 정신과 약’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참다가 자살하기 직전에 방문했음에도 약을 먹지 않고 “정신력으로 이겨내면 어떨겠느냐”며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정신적 노력만 강조하며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우울증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우울증의 증상은 기본적으로는 우울감이 오래 지속되고 무기력해지고, 사는 것이 재미가 전혀 없어지고, 불면증이나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 외에도 입맛이 급격히 없어지거나 우울감 대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져 “혹시 내가 치매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화가 많이 나고 짜증이 늘어 주변에서 성격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정신력으로 이겨봐야겠다’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혹시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가?’라는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다. 또 주변 친구, 가족들이 우울증을 앓는 것인지 의심된다면 “너 요즘에 무슨 일 있니?”라고 물으며 관심을 가져주고 오히려 자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과 태도로 살고 “꼭”, “반드시”, “해야만 해”등의 말보다는 스스로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조금 더 부드럽고 융통성 있는 표현을 쓰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가끔은 어깨에 힘을 빼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이나 경치를 보며 힘들었던 나 자신을 달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진료실에서 “당신이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언제세요?”라고 물으면 의외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다음 진료까지 행복을 느끼는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답을 가져오세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유치해도 좋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나에게 손발이 있어 좋은 것을 만지고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등 당연할 수 있는 일에도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말자. 이 외에도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엔도르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운동이든 내가 규칙적으로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나 정해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을과 겨울철에 많이 발생해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불리는 만큼 일조량이 우울증 발생과도 연관이 있으니 틈틈이 햇볕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에……

앞에서도 말했듯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은 의외로 단순하다. 쉽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항목부터 골라 즉시 실천하기를 권하고 ‘중년의 건강’을 챙겨서 대한민국의 건강수명을 늘리고 사망률을 낮추는데 각자가 기여했으면 한다. 



이윤수

2기 이유명의 장남, 이윤수·조성완 비뇨기과

남성의 적, 전립선

전립선을 정비하여 다시 창공을 날아보자
공군 출신이라면 비행기 소리만 들어도 비행기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찾아낸다.”는 ‘신의 귀’를 가진 정비사를 만나기도 한다. 물론 비행기는 엔진만 있다고 날아가는 것은 아니다. 날개도 필요하고 바퀴도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제대로 된 비행이 가능하다. 필자도 비록 군의관이기는 하지만 공군 출신이다. 비뇨기과인 필자는 화장실에서 소변보는 모습이나 소변이 변기에 부딪치는 소리만 들어도 건강을 짐작할 수 있다.

화장실에서 바로 나오지 못하고 변기통 앞에서 시간

을 보내고 있다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엔진의 마력이 부족하거나 활주로 상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방광에서 소변을 배출해내는 힘이 부족 하던가 소변이 나가는 길목인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소변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는 것은 비행기가 매끄럽게 날아가지 못하고 털썩거리는 것과 같다. 남성의 성기가 ‘노후’되면 배뇨 장애, 발기 장애, 정력 부족 등이 나타난다. 물론 이것은 비행기를 정비하듯이 하나하나 치료가 가능하다.

배뇨 장애는 방광이나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때 주로 나타난다. 배뇨 장애는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전

립선암 혹은 방광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배뇨 장애가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빈뇨다. 빈뇨란 말 그대로 “자주 소변을 본다.”라는 의미이다. 보통 성인은 낮에 활동하는 동안 4~6회, 밤에 자는 동안 0~1회, 많아도 하루 총 10회 이내로 배뇨하는 것이 정상이다. 배뇨 횟수가 하루 평균 10회를 넘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빈뇨라고 한다. 빈뇨는 다양한 비뇨기 증상 중의 하나다. 자주 빈번하게 소변을 보는 원인은 하부 요로인 전립선에 문제나 혹은 방광의 염증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잦은 빈뇨에 시달린다면 이를 유발한 원인 질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배뇨 장애 증상으로 소변을 보기 위해 잠을 깨는 야간뇨가 있다. 야간뇨란 수면 중 2회 이상 깨어 소변 보는 현상을 말한다. 아무래도 야간뇨가 있으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야간뇨로 고생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조사에 의하면 40세 이상 성인 남성 10명 가운데 7명이 야간뇨 증상으로 고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40세 이상 남성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65%가 야간뇨 증상을 갖고 있고, 특히 40대 57.3%, 50대 64.5%, 60대 77.8%로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야간뇨가 있는 연로한 노인이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치는 경우가 제법 있다. 야간뇨를 일으키는 원인은 전립선비대증, 당뇨, 요붕증, 방광용적감소, 야간다뇨, 심부전, 과민성방광, 정신심리학적 원인 등이 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여러 번 일어난다면 원인

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중·노년기 가장 흔한 질환으로 전립선비대증이 있다. 비행기가 연식이 오래되면 여러 곳이 말썽이 생기듯이 중·노년 남성들에게도 여기저기 말썽이 생긴다. 그 중에서 전립선비대증은 중·노년 남성들의 정말 큰 고민이다. 50대 남성 2명 중 1명이 전립선비대증을 앓고 있으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60대 60%, 70대 70%, 80대 80%로 전립선비대증을 앓는 남성들의 비율이 높아진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밑에 요도를 감싸고 있는 기관이다.

전립선비대증이란 전립선이 정상보다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는 질환이다. 비대해진 전립선은 요도를 누르고 소변 배출을 방해하면서 배뇨 장애를 일으킨다. 전립선비대증은 남성이라면 누구나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다. 전립선비대증은 유전적 인자, 체질, 영양, 동맥경화, 인종 간의 차이로 발생한다. 국내 전립선비대증 환자 수는 인구노령화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은 다음과 같다.

-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치 않고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 소변이 자주 마렵고 화장실을 자주 찾는다.
- 소변 줄기가 힘이 없고, 끊기며 힘을 주어야 나온다.
- 소변이 마렵다 싶으면 참기 어렵고 급하다.
- 소변을 보려 해도 빨리 안 나오고,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서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비뇨기와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필자의 병원은 명동에 있는데 모임을 나왔다가 찾아오는 환자들이 제법 있다. 그 중에서도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급히 찾아오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한번은 방광이 터질 것 같이라며 급히 달려온 환자가 있었다. 점심에 친구들과 막걸리를 한잔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느라 소변을 참았는데 모임 후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소변이 나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소변이 나오지 않아 급히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변 줄로 소변을 배출시켜주었다. 소변은 500cc 맥주잔 두 개 분량이 나왔다. 그제야 환자의 찡그린 얼굴이 환해질 수 있었다. 환자는 하나님을 따로 없으며 내게 고마움을 전하고 떠났다. 이것은 급성 요폐라고 하는데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소홀히 했을 때 주로 겪는다.

치료는 약물치료로 교감신경차단제와 항남성호르몬 요법을 사용하며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한다. 교감신경차단제는 전립선과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배뇨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항남성호르몬요법 알파 차단제는 남성호르몬의 생성을 차단해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수술 치료로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이 수술은 개복수술이

아니라 위내시경 수술처럼 간단한 수술이다. 물론 전립선 절제술도 다른 수술들처럼 부작용이 있기도 하다. 전립선 절제술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정액 배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다. 방광 내 역사정이라고 하여 사정으로 하여도 정액이 요도를 통해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방광 안으로 역류해가는 것이다. 그 외에 흔하지 않으나 요도협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립선의 해부학적 위치를 감안해 사정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로리프트’라는 신개념 전립선비대증 시술이 각광받고 있다. 필자는 이를 ‘전립선 임플란트’라고도 부른다.

일부 나이가 많거나 지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다. 약물치료로도 비대증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은 환자나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어렵다. 또한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했는데도 전혀 증상이 좋아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수술이 부담스러운 경우 유로리프트를 선택한다. 유로리프트는 매우 간단한 치료법이다. 전신 마취 없이 국소마취로 10분 정도 만에 시술이 끝난다. 그렇기에 입원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다.

시술방법은 이렇다. 요도를 막고 있는 전립선 조직에 방광경을 통해 임플란트 설치 기구를 진입시켜 녹지 않는 실로 비후된 전립선을 양쪽으로 젖혀준 뒤 고정하는 것이다. 잠깐 동안이면 전립선이 커져 좁아졌던 요도가 뻥 뚫리게 된다. 시술 후 바로 소변을 볼 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복기간도 빠르다. 특히 수

술에 따른 부작용도 거의 없어 더 각광받고 있다.

전투기가 이륙을 하고 목표물을 찾으면 명중을 시켜야 한다. 남성의 성기도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발기가 되고 사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40대 이상 남성 2명 중 1명이 발기부전이라고 하여 목표물과의 교접에 문제가 있다고 호소한다. 스트레스, 음주, 흡연, 사고,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그 수가 점차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비아그라가 인류역사에 등장하면서 발기부전으로 고생하던 남성들은 환호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PDE5 억제제라고도 하는데 특정 기전을 통해 음경해면체 내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유입량을 증가시켜 발기를 유발하게 만든다. 앞서 언급한 비아그라(화이자)를 비롯해 시알리스(필리), 자이데나(동아제약), 엠빅스(SK제약) 등이 대표적인 발기부전 치료제들이다.

만약 이런 약물로도 효과가 없다면 음경해면체 내 혈관이완제 주사요법, 음경진공흡입기를 이용한 치

료 및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 등이 있다. 필자는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을 ‘남근 임플란트’, ‘노상서’(항상 발기가 되어있는 변강쇠 같은 사람) 만들어주는 수술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은 음경 내에 튜브 형태의 보형물을 넣어주는데 음낭 내의 펌프를 건드리면 안에 들어 있는 튜브에 식염수가 들어가서 커지며 음경이 발기가 된다. 또한 펌프를 건드리면 식염수가 빠져나와 음경이 작아진다.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발기가 가능하며 주변에서도 수술 여부를 잘 모를 정도로 완벽하다. 현대에 들어 비행기가 자꾸 커지고 속도가 빨라지듯이 비뇨기과 치료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비행기가 노후되더라도 정비를 꾸준히 하면 오랫동안 비행을 할 수 있듯이 인간의 몸도 꾸준히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백세 장수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비뇨계통은 현대의학의 발전과 함께 하고 있다. 비뇨계통의 고장이 의심될 때 전문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한다면 젊어서와 같은 발기 능력과 소변 줄기에 힘을 지원하게 되찾을 수 있다. 엔진에 기름칠을 하고 다시 창공을 날아보자. ✈

현재 서울 중구 명동9길 39번지 4층(02-779-4500)에서 이윤수·조성완 비뇨기과를 운영하고 있다.



윤학수
25기, (예)공군 중장

청춘 합창단 UN본부 공연 도전기

꿈은 이루어질 때까지 꾸어야 한다

2015년 6월 15일! 그날은 내 삶의 기록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날이 되었다. 정말 터무니없는 것 같았던 꿈이 “꿈은 이루어질 때까지 꾸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와 각고의 노력 끝에 현실이 된 날이기 때문이다. 약 2년 전, 합창단 단장은 UN본부에서 우리 합창단이 공연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다분히 현실주의자인 나로서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몰라서 하는 얘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부정적인 시각부터 드러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오죽했으면 우리 공연이 성사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준 駐 유엔 대표부의 오준 대사마저도 처음에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인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2011년 가을, KBS 2TV <남자의 자격>에서 ‘청춘합창단’을 만들어 3개월에 걸친 합창 대회 도전 과정을 보여주었다. 많은 국민들이 프로그램을 보며 함께 울고 웃으며 감동을 받았던 덕택에 계속해서 우리 청춘합창단에 큰 애정을 보내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랑과 UN본부 공연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세계가 인정하는 최정상급 성악가나 가수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UN본부 무대에 이제 갓 만들어진 합창단이 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그것도 전공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위해, 사연을 중심으로 구성한 40명 정도의 합창단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노래 모임 수준의 합창

단이 UN본부 무대를 꿈꾼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일인지는 독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다.

오준 대사의 말마따나, 세계 193개 UN 회원국에게 공평하게 연주회 기회를 준다고 가정했을 때, 주말까지 운영한다고 해도 기회가 한 국가에 일 년에 두 번도 채 돌아가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KBS 국악관현악단이 UN 창설 70주년 기념일인 10월 24일에 UN 총회장에서 공연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기에 나머지 실날같은 기회를 우리가 잡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에 불과한 일이었다.

더 어려운 일은 비용 문제였다. 개인이 몇 만 원씩 회비를 내고, 한 달에 한두 번 초청연주를 통해 버는 돈으로 어렵사리 운영되는 합창단이 해외공연에 필요한 경비 수억 원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때부터 일 년 반 동안의 힘든 과정을 거쳐 우리는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다. KBS TV에서는 그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아 '삼순 씨 뉴욕 가다'라는 제목으로 KBS 2TV의 아침 인기 프로인 <인간극장>에 5일간 방송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지금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촬영 중이며, 금년 5월 6일에는 대한민국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3세대가 어우러지는 통일 기원 대합창제를 갖기로 되어 있다. 이 모든 일들이 기적의 연속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 많은 국민들

이 TV를 통해 청춘합창단에 대해 알고 계시기에 TV에 방영된 얘기는 생략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은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졌지만, 그 당시 KBS 2TV는 <남자의 자격>이라는 인기 프로에서 남자가 살면서 도전해 볼만한 과제를 풀어가는 코너를 만들었는데, 그 중 하나가 합창단을 만들어 전국 규모의 합창 대회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첫 해인 2010년에는 뮤지컬계의 신데렐라 박갈린 씨가 지휘자로 등장하여 <넬라판타지아>라는 곡을 크게 부각시키기도 했고, 2011년에는 록 밴드 '부활'의 리더 김태원 씨가 지휘한 두 번째 '청춘합창단'이 만들어졌다. 2012년에는 유명한 지휘자 금난새 씨가 '패밀리 합창단'을 만들어 가족의 파스함을 합창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 세 개의 합창단은 모두 3개월 동안의 방송이 종료되면 자연히 없어질 운명을 갖고 한시적으로 태어난 노래 모임이다.

그런데 이 운명을 거부하고 청춘합창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해 12월 재창단이라는 과정을 거쳐 합창단을 계속 이어가기로 마음을 모은다. 마침 합창단 창단 오디션부터 합창 대회에서 은상을 타기까지 3개월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합창계의 대부 윤학원 선생께서 지휘자로 계속 이끌어 주시기로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재창단은 했지만, 계속 같이 활동할 수 없는 단원 약 절반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청춘합창단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여러 차례 오디션을 거쳐 단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매주 세 시간씩의 연습을 통해 합창으로 부를 수 있는 레퍼토리들도 계속 쌓아 나갔다. (나는 2012년 6월에 고등학교 선배인 권대옥 현 단장의 권유를 받고 윤학원 선생의 오디션을 거쳐 단원이 되었다.)

방송의 힘은 정말 대단했다. 초창기에 우리는 갓 태어난 합창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과 기업체에서 공연 요청이 쇄도했다. 그렇게 2년을 꾸준히 노력한 끝에 드디어 2013년 10월에는 고양시 ‘아람누리’음악당에서 제1회 정기 연주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 정기 공연은 청춘합창단이 동네 합창단에서 전국 규모의 수준급 합창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첫 번째 변신이었다.

2014년이 밝으면서 청춘합창단은 모든 것을 재정비하게 된다. 2년 동안 기초를 잘 다지도록 이끌어주신 윤학원 선생 대신에 미국에서 합창 지휘를 전공하고 강동구 구립합창단을 지휘하고 있던 김상경 선생을 새로운 지휘자를 영입했다. 그리고 아코르 엠베서더 호텔 매니지먼트사 현역 CEO인 권대옥 씨를 새로 단장으로 선출하였다.

권 단장은 취임과 동시에 “해방 70주년, 남북 분단 70주년이 되는 2015년 광복절에 창설 70주년을 맞는 UN본부에서 우리 청춘합창단이 전 세계 대사들을 모시고 남북통일을 노래하자.”고 선포했다. 이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얘기인가? 그리고 권 단장은 주미 대사관에 무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나를 대외 협력처장으로 임명했다. 이 너무나 엉뚱하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의 행동대장으로 임명한 것

이다.

나는 권 단장이 선포한 목표가 그야말로 꿈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뜬구름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여러 달 동안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우리 일을 해결해 줄 유일한 통로를 찾았다. 바로 駐 UN 대표부 대사인 오준 씨였다. 그가 나의 중학교 1년 후배라는 사실을 알고 주저 없이 그에게 A4 용지 너 장에 이르는 장문의 서신을 보냈다. 나는 그 편지에서 우리 합창단을 상세히 소개하고, 평균 연령 65세의 노인으로 구성된 우리 청춘합창단이 남북통일을 노래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사명감으로 UN본부에서 노래하고자 하니 부디 길을 열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외교부 출신으로서 나와 막역한 친구지간인 심윤조 강남구 국회의원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하기도 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오준 대사에게서 답장이 왔다. 자기가 외교부에서 락 밴드를 처음 조직하여 운영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공연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이후에 이 일을 전담하는 대표부 실무자들은 물론, UN 사무국 직원들과 끊임없는 논의가 오갔지만, 일이 잘 진척되지 않고 해가 저물어갔다. 일이 풀리지 않는 이유인즉슨, UN은 전 세계 193개 회원국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데, 한국의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는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노래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 같은 회원국인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UN

대표부에서는 우리가 남북통일을 노래한다는 우리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UN 사무국이 수용할 다른 방도를 내어놓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지 사정을 모르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2015년 2월 말 경, 오준 대사에게서 새로운 제안이 왔다. 2015년 6월 15일이 UN이 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10주년 기념일인데, ‘청춘합창단’이 평균 연령 65세의 시니어 합창단이니 전 세계 노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공연하겠다고 하면 UN 사무국에서도 쉽게 허락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안이었다. 처음 우리는 본래의 목적과 전혀 다른 일에 많은 돈과 노력을 낭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히려 노인 문제도 부각시키면서 은연중에 남북통일도 동시에 외칠 수 있는 양수 겸장의 수라 생각하고 결국 오 대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오준 대사가 직접 발 벗고 나서 주어 실제 공연을 하기까지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쉽게 풀려나가기 시작했고,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다.

우리는 UN에서의 초청장이 언제 오더라도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자세로 15개가 넘는 연주곡들을 거의 모두 암기하고 있었기에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제는 비용이었다. 앞으로 두세 달 이내에 UN본부에 지급할 비용과 약 60명이 열흘 동안 쉼 없이 할 여행 경비를 합쳐 최소 3~4억 원이 필요했다. 연초부터 모든 단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 모아진 액

수는 기 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때부터 단장과 나를 비롯한 모든 단원들이 사방팔방으로 소위 앵벌이를 시작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해결될 수도 있는 비용이었지만, 워낙 경제 상황이 불황으로 치닫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쉽게 지갑을 열어 주지 않았다. 나는 그 과정에서 카카오톡을 지인들에게 지원요청 창구로 활용했다가 스팸으로 등록되면서 두 번이나 차단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이렇게 여기저기 지원을 요청하는 일이 예비역 3성 장군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 모든 일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겨냈다.

우리는 기업체의 후원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SNS를 통한 Social Funding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UN본부에 가서 남북통일을 노래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결국 우리는 단돈 만 원을 내준 개인에서부터 거금 삼천 만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준 MOM'S TOUCH 같은 사기업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도움으로 목표한 3억의 기금을 모금할 수 있었고, BT&I라는 여행사의 아낌없는 도움까지 받아 금전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방송이었다. 우리가 아무리 UN본부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노래한다 한들,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 값어치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통일을 향한 열망을 새롭게 불어 넣겠다.’는 우리의 목적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 자명했다. 그래서 우리

는 오랜 기간 동안 KBS와의 협의를 거쳐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아 매일 아침 방영하는 <인간극장>에 일주일 간 방영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4월 초에는 나와 이만덕 총무, BT&I 정의권 상무(현재는 사장) 그리고 Social Funding 책임자로 자원봉사하고 있던 정재환 군이 현지 답사를 통해 최종 점검까지 마쳤다. 그리고 남은 두 달 동안 우리는 15~16개에 이르는 연주곡에 우리의 혼을 불어넣기 위해 일주일에 두 번씩 스파르타식 훈련을 거쳤고, 마지막 한 달 동안은 Dress Rehearsal(실제 연주 복을 입고 연주회와 똑같이 진행하는 리허설)을 계속함으로써 무대에 오르는 자심감도 크게 높였다.

그리고 6월 12일 금요일, 우리는 드디어 인천공항에서 9일간의 장도에 올랐다. 뉴욕에 도착하여 단 하루 시차적응을 위해 쉬고는 14일 일요일에 뉴욕 교민을 위한 공연을 가진 다음, 대망의 6월 15일 저녁 6시, UN본부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가운데 우리는 90분 동안의 공연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때마침 반기문 UN 사무총장께서 해외에서 서둘러 귀국하여 참석해 주신 덕에 우리의 공연은 더욱 빛이 날 수 있었다. 마침 반 총장님의 생신이어서 우리는 그분께 생일 축하 노래를 즉흥적으로 선물하여 무대를 자연스럽게 달굴 수 있었고, 마지막 앵콜곡인 <어머니 마음>을 부를 때는 우리도 울고, 관객들도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는 감동의 무대가 연출되기도 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고, 리셉션을 겸해서 오준 대사가 마련한 한국 음식 소개 행사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큰 성황을 이루

었다.

대한민국에는 지난 70년간 많은 합창단이 있었고, 지금은 그 수가 전국적으로 천 개가 훨씬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UN본부에서 노래한 한국의 합창단은 수십 년 전 리틀엔젤스가 있었을 뿐, 성인 합창단으로는 역사상 청춘합창단이 최초이고,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그런 기회를 다시 갖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노인 문제를 노래했지만,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은 우리가 남북통일을 노래했다는 것을 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번 공연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자부한다.

우리는 UN본부 공연에 이어 17일 저녁에는 버지니아 주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워싱턴 D.C. 인근 교민을 위한 공연을 했다. 공연 마지막에 이원상 원로목사께서 축도를 해주셨는데 "이 합창단이 평양에 가서 노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대목에서 나는 온몸에 돋는 소름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꾸고 있는 또 다른 꿈이고, 우리가 이루려는 궁극적 목표였다. 사회자인 내가 그 얘기를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로목사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모든 성취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귀국 후 7월 29일, 삼성동 코엑스 연주 홀에서 UN본부 공연 후원자들을 위한 감사 공연을 가짐으로써 UN본부 공연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제 다음 꿈인 평양 공연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 전초전으로 금년 5월 6



일 예술의 전당에서 제2회 정기 연주회를 무사히 마쳤다. 현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지만, 평양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조만간 주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해가 뜨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가? 비록 지금은 앞이 안 보이지

만, 남북관계도 곧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 하늘의 뜻이 분명 거기 있다고 확신하기에 우리는 그저 기다리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꿈을 꿀 것이다. ☒



한진수
64기 한상민의 아버지

64기로 졸업, 임관한 아들에게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은 공사 제 64기 졸업과 공군 장교 임관식 날이었다. 졸업·임관식장에서 마주한 아들은 아주 늙름하고 멋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의 표상으로 내게 다가왔고 마치 사냥감 목표물을 응시한 보라매처럼 빛나는 눈동자에 신념이 가득 찬 멋진 사나이의 모습이였다. 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감격스런 순간이 아니던가!

지나간 수년의 시간과 추억들이 한 편의 영상 파노라마가 되어 나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6년 전쯤으로 거슬러 가보자. 아들이 수능을 보던 날 저녁이었다. 아들은 기대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았으며 재수할 기회를 달라고 장문의 편지로 내게 의사를 피력했다.

그 당시 가정 형편이 어렵기도 했고 아내가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했지만 아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하고 기숙학원에 보냈다. 그러던 8월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수능보다 먼저 시행되는 사관학교 시험에 응시해 보고 싶다고 했다. 사실 우리 집안은 군인에 대한 트라우마가 존재했기에 조금 망설였지만 아들이 사관학교에 뜻이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며 그냥 지켜보기로 하였다. 하지만 아들은 생각보다 진지했다.

아버지께서 막걸리도 한잔 걸치시고 들어오시는 날에는 슬픈 가족사를 자주 들려주셨다. 지금으로부터 70년쯤 전인 1948년, 나의 할아버지는 50대 중반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첫째 큰아버지는 군 민병으로 재차 징집되었고 둘째 큰 아버지는 갓 돌이 지난 어린 아들을 두고 군에 입대하셨다.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버지만 집안에 남게 되면서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집안 살림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족의 비극 6.25전쟁이 일어났다.

전쟁 후, 첫째 큰아버지는 돌아오셨지만 둘째 큰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그 후에 첫째 큰 아버지의 막내아들이 해군으로 복무 중 제대 한 달을 남겨두고 사고로 운명을 달리 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가정사가 있는데도 아들은 진지하게 군인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마 몇 년 전쯤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극구 반대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의 고집을 우리는 꺾을 수 없었다. 아들은 기숙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지 공사 1차 시험에서 20% 이내에 들었다. 2차 면접 및 체력 테스트까지 무난하게 통과하면서 공사에 합격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아들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공사에 대한 정보를 여러 경로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당시 공사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고등학교 친구와 공군 현역으로 있던 외사촌 동생에게 공사의 현황과 입관 후의 진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다. 특히 전투기 조종사들의 비행사고 위험성이 가장 걱정됐는데 이에 사촌 동생은 이렇게 말했다. “형님! 도로 위의 자동차 사고에 비하면 비행 사고의 발생 확률은 극히 낮은 겁니다.” 그제야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들

의 공사 입교를 허락할 수 있었다.

성당 미사를 참여하고 나오던 어느 날, 아들 죽마고우의 엄마를 만나게 됐다. 아들의 친구는 1년 먼저 공사에 입교한 상태였다. 그 엄마에게서 공사 학부모 모임(공학모)이 온라인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1월 중순경에 예비 생도들을 위한 입교식 길라잡이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행사 당일, 모든 일과를 제쳐두고 공군회관으로 달려갔다.

성인이 된 대학생 부모들 모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생소하였다. 그리고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를 말고는 부모 참관 행사에 참여한 바가 없었던 터라 행사가 낯설었다. 행사장에 도착해보니 상당히 많은 수의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다. 행사의 취지는 “생도의 입교부터 졸업, 임관까지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워낙 귀하게 키우기에 사관학교 입교식 전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 과정에서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하고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훈련기간 동안 공사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격려 메시지를 올렸다. 그리고 훈련 동영상과 사진 속의 숨은 아들 모습을 찾으며 인터넷 폐인이 되어 갔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공군 사관생도 부모로서 공군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자긍심이 생기기도 하였다. 시간은 유수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새 입교식 날이 다가왔다. 나는 한걸음에 청주로 달려갔다. 입교식 중 부모님 신고식을 하면서 아들의 눈가엔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떨리지만 절도

있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벅차고 대견스러웠다. 이후로 나는 매주 주말이면 공사로 면회를 갔고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아들의 모습에서 너무도 큰 기쁨을 누리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면회 과정은 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동안 부자간에 느끼지 못했던 따스한 감정들도 싹트게 되었다. 아들은 부모에게 늙은 모습만을 보였지만 부모에게 드러내지 않는 곳에선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과정을 견디어 내면서 공군의 핵심 가치와 공사의 교훈에 부합하는 멋진 생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큰 행복이었다.

아마 아들이 생도 2학년이던 때였던 것 같다. 아들이 외출을 나와 함께 뉴스를 시청하던 중이었다. 훈련 비행 중인 전투기가 어떠한 문제로 추락하게 됐는데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노력하다가 전투기와 산화한 조종사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아들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자신도 그와 같이 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나는 온몸의 전율이 느껴졌다. 아들의 대답이 바로 공군 핵심 가치의 실현이자 공사 교육 목표의 실증이었다. 군대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갔지만 이제 나도 어느새 공군 사관학교를 신뢰하고 공군 생도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공군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자식을 공군사관학교에 보낸 인연으로 시작된 '공군 사관학교 학부모 모임(공학모)'은 오십 중반을 넘어선 나에게 그 어떤 인연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즐겁고 행복했다. 공학모에서 만나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한결같았다.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식을 엄격한 규율의 상징인 공사에 보내고 졸업, 임관하기까지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쉽게 소통할 수 있었고 쉽게 친밀해질 수 있었다.

공학모는 마치 사관학교 생도처럼 동기별, 중대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모였다. 그곳에서 선배 학부모님들로부터 먼저 전수받은 경험을 후배 부모님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하곤 했다. 생도들의 고민 등을 전해 들으면서 함께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그랬던 생도들이 무사히 졸업, 임관하게 되어 감사의 인사를 전해줄 때면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공학모의 활동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신입 생도 선발 입시 설명회 및 입학 시험장에서 교통정리와 장소 안내, 공사 홍보 팸플릿 나눠주기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 또한 공사 생도 역량 강화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사 발전 기금과 순직 조종사 유자녀를 위한 하늘사랑장학재단 등의 나눔 활동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있다. 공학모를 통해 공사 생도 학부모로서의 자긍심도 갖게 되고 더욱 공군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

하지만 때로는 공학모의 활동에 대해 생도들 또는 교수진 및 교관 등 일부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공학모 구성원들 또한 스스로를 경계하고 있다. 공학모는 학교 행정에 관여할 생각이 일절 없으며 오로지 생도들이 목표로



한 대한민국 공군 정예 장교로 가는 길에 작은 디딤돌이 되고자 할 뿐이다.

이제 64기 생도들은 졸업과 임관식을 마치고 대한민국 공군의 초급 장교로서 각자의 보직에 따라 새롭게 출발하는 선상에 있다. 공군사관 생도들의 꿈인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수많은 고난 속에 지난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4년 생도 생활에서 체득한 성무 정신으로 임한다면 능히 극복하고도 남으리라 생각된다.

일전에 국가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던 동생이 미국에 1년 동안 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당시 미 해군 영

관급 장교와 교류를 하게 됐는데 그 장교가 자신보다 한국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것은 실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최근 중국이 부상하면서 세계 패권을 견주고 있지만 아직은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은 인재들로부터 나온다. 특히 G2의 패권 다툼 틈바구니 속에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과 더불어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에 놓여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폭넓은 지식과 식견을 갖춘 인재들이다. ‘하늘의 가장 높은 힘’인 공군 정예 장교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기를 국민들은 기대해 마지 않을 것이다.

“많이 아는 것이 바로 힘이다.”라는 말이 다소 고지식한 말로 치부될지 모르겠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방향타를 잃은 항해자에게 밝게 비추는 등대가 하나의 길라잡이가 되듯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지식이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 이제 임관한 공사 64기생들을 비롯한 공사 장교들이 부하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각자 부여받은 보직에서 최고의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오늘도 어디선가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어김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고 날씨라도 흐리면 이름 모를 그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오늘도 무사히!” ✈



고유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고 민 삼 (법무9기)

고유공동법률사무소는 “Go to You”를 모토로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부산지방항공청 행정처분사건 심사위원, 부산본부세관 징계위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부산본부세관·부산청년연합회·부산은행 노동조합·부산영양사협회 고문변호사로서 봉사하면서 “크고 강한 공군”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110호
전화: 051)506-9988 팩스: 051)506-9320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서영득 (특79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훈민타워7층 전화: 02-3472-2700 핸드폰: 010-5454-6767

형사, 민사, 행정, 가사, 조세 등 소송 / 징계, 국가보훈, 지적재산권 창업 등 법률분야 상담

〈현임〉

- 한국항공대학교 겸임교수, 금융발전심의위원, 4·19 복지사업심의위원장, 국방부규제개혁심사위원, 서울경찰청징계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 공군정책자문위원, 공군학사장교회 부회장

〈역임〉

- 대통령실행정심판위원, 방통위방송분쟁조정위원,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 서울지방교정청위원, 코스타상장위, 실질심사위원장



세금! 최고의 전문성, 최강의 네트워크, 리애펬케이가 있습니다.

국세청, 로펌, 회계법인에서 능력이 입증된 최고의 전문가들이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회계와 세무에 대한 모든 문제를 성심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대전지점 대표세무사 **배 동 국**

- 세무고문 및 경영자문 서비스
- 자산관리 서비스 : 양도, 상속, 증여, 가업상속 등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Tax Planning
- 세무조사 지원 업무 : 세무조사 대비 사전 세무진단, 세무조사시 입회, 의견진술등 납세자권리보호
- 납세자 권리구제(조세불복 업무)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대행
- 가장 및 신고대리, 세무조정 : 가장 및 결산업무 대행, 각종 신고서 작성 및 검토

세무법인 리애펬케이

세무법인 리애펬케이 대전지점 (대표세무사 배동국)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19번지 은성빌딩 4층
전화 : 042-487-1562 / 팩스 : 042-488-1561
E-mail : dkook,bae@gmail.com

협 찬 배 충 영 (26기, 배동국 대표의 부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첨 · 단 · 환 · 자 · 중 · 심 · 중 · 합 · 병 · 원

소화기병센터

척추관절센터

검진여성센터

중양외과센터

심장혈관센터

뇌신경센터

호흡기센터

응급의학센터

국제진료센터

- ☑ 위암 /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
- ☑ 우수내시경실 인증 획득
- ☑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 1등급
- ☑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1등급
- ☑ 영양기관 적정성 평가 만성폐쇄성폐질환 부문 1등급
- ☑ 응급의료센터 승격



김철수 이사장

-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 1975.5~1978.4 공군 소령 예편
- 대한병원협회 회장 역임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



H+ 양지병원

- (08779)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 지하철 2호선 신림역 1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 콜센터 1877-8875 / FAX 02-879-1610
- 응급의료센터 070-4665-9119~9121
- www.newyji.com

예비역 관련
공지 사항

1. 제대군인 대부

가. 대부 대상자 :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자

나. 대부 종류별 한도액 및 상환 조건

구분		대부한도액	상환조건		월상환금(원금+이자)		담보조건
			대부 이율	기간	직접	위탁	
주택구입	농어촌 3,000만원		3%	20년 균등	168,440원	166,379원	구입(신축)주택
	중소도시 4,000만원		3%		224,580원	221,839원	
	대도시 6,000만원		3%		336,880원	332,759원	
주택임차	농어촌 1,500만원		3%	7년 균등	207,100원	198,200원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인
	중소도시 2,500만원		3%		345,180원	330,333원	
	대도시 4,000만원		3%		552,290원	528,532원	
아파트 아파트	분양	3,000~6,000만원	3%	20년 균등	주택구입 월상환금과 동일		분양아파트
	임대	2,000만원	3%	7년 균등	276,140원	264,266원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인
생활안정		300만원	3%	3년 균등	97,660원	87,243원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인
농토구입		2,500만원	4%	3년 거치, 10년 균등	253,100원	253,113원	구입농토
사업		2,000만원	4%	7년 균등	285,220원	273,376원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인
학자금		300만원	4%	5년 균등	58,810원	55,250원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인
		500만원	4%		98,020원	92,083원	

* 학자금대부 한도액은 학기당 금액임

다. 대부 절차 : 공사 총동창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로 표기) 참조

2.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지원

가. 지원대상 및 내용

1) 본인 : 10년 이상 복무자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입학금, 수업료의 50%
감면(전역 날로부터 3년이내/입학한 학교와 동등 이상 학력소지자 제외)

2) 자녀 : 10년 이상 복무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기준 미달 고등학교 취
학자녀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나. 자세한 사항 : '홈페이지'참조

3. 제대군인 아파트 특별공급

- 가. 공급 대상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자
- 나. 신청 기간 및 장소: 매년 1월 중순 1주일 간,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1월초신문공고)
- 다. 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 홈페이지 참조

4. 무공·보국훈장 수상자 국가유공자 등록 및 혜택

- 가. 등록신청: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등록 신청 수시 접수
- 나. 신청 및 구비서류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사진(3×4cm) 1매, 무공·보국 훈장증 사본 또는 수훈사실 확인서 1부(행정자치부 발급)
- 다. 보훈혜택
 - 1)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 무료이용/국내선 항공운임 30%할인
 - 2) 취업지원, 교육지원, 대부,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본인 부담금의 60%)
 - 3) 무의탁자 양로소 및 아동보육소 입소, 생활조정수당: 월 150,000~260,000원
(가산금: 20,000~50,000원 포함)
 - 4) 국립묘지 안장
- 라. 기준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참조

5. 국립묘지 안장 및 신청 절차

- 가. 안장 대상
 - 1) 전·퇴역자
 - 가) 군에 20년 이상 복무한 자
 - * 10년 이상 복무자 및 참전자의 경우는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안장 가능
 - 나) 장관급 장교이었던 자
 - 다) 무공이 현저한 자(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 수훈자)
 - 2) 상이자: 상이로 전역·퇴역·면역·퇴직한 후 사망한 자

* 안장된 자의 배우자 합장 가능('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나. 안장 신청 절차

- 1)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합장
 - 가) 인터넷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및 국립서울현충원홈페이지(www.snmb.mil.kr)에접속후 신청

* 국가보훈처 및 각 국립묘지 홈페이지에서도 접속 가능

* 참고:서울현충원은 충혼당 납골시설 불안한 가능하고 대전현충원은묘역 안장만 가능

- 나) 배우자 합장의 경우 안장 대상자가 국립묘지 안장 후에만 가능
 2) 신청서류, 안장비용 및 안장의 제한 등은 '홈페이지'참조

6.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가. 진료대상 및 시설

- 1) 진료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창군요원, 6·25 참전요원
 2) 진료시설 : 국군병원, 보훈병원

나. 진료범위 :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입원진료 제외)

다. 사망자 처리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 중 사망자는 24시간 이내에 유가족에게 인계(영헌봉송은 유가족 부담)

라. 건강검진 지원

- 1) 신검 시기 : 연 1회
 2) 병원별 검진계획

구분	군병원			보훈병원
	서울지구병원(삼정동)	수도병원(분당)	지역 군병원	
검진대상	장성	장성/대령	장성/대령	10년 이상 장기복무자
검진일정	연중	1.15~12.15	5~10월중	연중
신청방법	본인 예약	본인 예약	시도회 종합	본인 예약
예약전화	02) 397-3700~1	031) 725-6487~8	시도회 주관	5개 보훈병원
기본검사 비용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격년 2.8만원

3) 검진 신청방법

가) 군병원

- 1) 서울지구병원/수도병원 : 본인 예약 후 연중 검진 시행
 2) 수도권외 지역 군병원 :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시·도 재향군인회 주관 실시

나) 보훈병원 : 본인 예약 후 연중 검진 시행

마. 지역별 보훈병원 연락처 : '홈페이지'참조

7. 국방부 및 군 체력단련장 운영

가. 운영 원칙 : 평일은 예비역, 주말·공휴일은 현역 위주 운영

나. 회원 자격

- 1) 정회원 : 퇴직한 연금수급권자 예비역 장교

- 2) 준회원 : 10년 이상 근속한 예비역 장교
 다. 군별 체력단련장 현황 및 이용요금 : '홈페이지'참조

8. 복지시설 이용

가. 국군복지단 휴양시설(호텔/콘도)

- 1) 이용대상 : 예비역(19년 6개월 이상 복무 후 전역자), 군 관련 국가유공자
 2) 지역별 예약체계 및 이용요금 : '홈페이지'참조

나. 공군 복지시설

1) 공군회관

- 가) 이용대상 :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군무원(직계가족 포함)
 나) 이용방법 : 전화예약 : 군)923-6080, 일반)02)810-6080, 844-0336
 다) 예약시기 및 이용기간 : 공군 15일, 타군 2일 전/1회 2박 3일(2회 연장가능)

2) 그린나래호텔

- 가) 이용대상 : -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나) 이용방법 : 인터넷 예약, 스마트폰 어플(공군모바일 호텔/콘도)
 다) 이용시기 : 이용일 기준 30일~15일전/ 확정 : 15일전 12:00
 라) 이용 가능 기간 : 1회 2박 3일

다. 육군 복지시설

- 1) 이용대상 : 타군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
 2) 이용방법 : 전화 및 방문예약
 3) 지역별 이용시설 : '홈페이지'참조

라. 해군 복지시설

1) 중앙 복지시설

가) 서울해군호텔/진해회관/ 제주 해군호텔

- ① 이용대상 : 정회원은 1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준회원은 5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국가유공자
 ② 이용방법 및 절차 : '홈페이지'참조

2) 지역별 복지시설 : '홈페이지'참조

T.M.O 이용

- 가. 이용대상 및 지원 내용 :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간부 열차표 예매편의 제공
 나. 지역별 TMO 연락처 : '홈페이지'참조

늘푸른 요양원

부설 : 주·야간 보호센터

원장 : 이명애 (23기 김우규부인)

- 중풍, 치매, 노인성 질환
- 외상환자, 암치료환자

마음 편히 계실 수 있게 모십니다.

상담문의 사무실 : 031)398-4777

HP : 010-3996-6028

주소 경기 군포시 고산로 685(산본동 1061번지) 한빛타운 9층

교통편 전철 : 1호선 금정역 6번 출구

산본사거리 방향 버스 이용(2정거장)

자가용 : 산본 IC에서 3분 거리



**2013년 2015년 급여평가 연속
최우수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 돌봄 제공

(원장 이영숙: 노인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18번길 58 아이타운 4층 / 전화: 032-327-1002, 070-4252-1007

〈협찬〉 25기 박용규 (원장 이영숙의 남편)





8월27일 공군회관 예식홀
재단장 오픈 특별 할인 행사 진행

육군, 해군, 공군장병 / 예비역 우대서비스
(일반인예식가능)

 **02.844.0336**

정기총회

제23차년도 운영결과 보고



회칙 제4장 제12~15조에 의거 제23차년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6월 22일 공군회관에서 개최하였다. 21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년도 업무를 결산하고,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동창회를 맡아서 일할 제24차년도 회장단을 선출한 후 만찬을 즐기면서 회원 간의 친교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고 된 지난 1년 간의 총동창회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무 보고

회원현황

- 임관 총 인원 : 9,744명
- 현재 인원 : 8,917명
- 예비역 인원 : 4,701명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구 분	금 액	비 고
기금 인수	770,225,660	22차년도
23차년도 적립	132,746,217	평생회비: 123,255,000 이자수입: 9,491,217
적립 총액	902,971,877	

23차년도 운영중점

‘전 동문의 관심과 참여로 발전하는 총동창회’

1. 동문간 상호 화합과 소통하는 활동 적극 전개
2. 모교 및 공군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긴밀 유지
3. 전 동문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연대감 고양
4. 적립기금 목표 달성 위한 평생회비 납부 독려

주요 추진사업 현황

1. 부대 격려 방문

가. 상급부대 : 공본, 공사, 작사, 군수사, 교육사, 유도탄사,
방공관제사, 기동정찰사, 공중전투사

나. 일선부대 : 11전비, 3훈비

다. 격려금 전달 및 총동창회 현황소개, 현역 회원들의 적극 참여 유도

2. 성무인 가을축제 (흙커밍 행사)

가. 일시 : '15. 10. 30 (금)

나. 공사 성무제 기간 중 전 동문이 참여하는 축제

다. 주요행사 : 성무의식 (열병분열, 에어쇼 등)

동문 문예작품 전시 (성무문화회관)

생도 격려품 전달

3. 총동창회 졸업 및 임관 기념행사

가. 일시 : '16. 5. 21 (토)

나. 참가대상 : 14기 (50주년), 24기 (40주년), 34기 (30주년),

44기 (20주년), 54기 (10주년) 동문 및 가족 등 약 1,100여명

※ 금년부터 40주년 기념 기수 포함

다. 주요행사 : 1부 행사 - 사관학교 계획에 의거

2부 행사 - 14기 자체행사 지원

라. 모교 발전기금 전달 : 총 1억 5천여 만원

정기총회

4. 64기 사관 졸업식 행사 지원

- 가. 총동창회장상 (성무보라매상) 수여 ('16. 2. 25): 소위 홍용석
- 나. 전 졸업생도 졸업선물 증정 ('16. 1. 25)

5. 순직조종사부인회 초청 위로행사

- 가. 일시: '15. 10. 17 (토) / '15. 12. 2 (수): 2회 실시
- 나. 장소: 대학로 / 공군회관
- 다. 참석: 순조회 회원 / 총동창회 임원 등 50여명

6. 친목 행사

- 가. 등산대회
 - 서울대공원 ('16. 4. 20): 270명 참석
- 나. 바둑대회
 - 공군회관 ('15. 11. 4): 70명 참석
 - 개인전, 단체전, 다면기 대국

7. 총동창회 네트워크 강화 및 홍보 활동

- 가. 총동창회장 졸업생도(64기) 특강 ('16. 1. 25)
- 나. 역대 회장, 사무총장 간담회 ('15. 9. 2)
- 다. 선배 이사기수 임원 간담회 ('15. 9. 16)
- 라. 후배 이사기수 임원 간담회 ('15. 9. 23)
- 마. 현역 후배 간담회 (부대 방문시)
- 바. 기타 간담회 (수시)
- 사. 각 기생임원 대상 총동창회 서신 발송 (수시)

8. 조문활동

- 가. 회원 및 배우자, 직계 사망시
 - 홈페이지 애경사 게시판 공지
 - SMS 전파 (회원 및 배우자 사망시, 상하 10개 기수)
 - 조기를 통한 조문 (77회)

9. 공군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

- 가. 순직 조종사 유자녀 장학기금 기부 (1,000만원)
- 나. 공사발전기금 전달 (1,000만원)
- 다.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공군 주요 현안 적극 홍보

평생회비 납부 활성화 결과 보고

1. 인수 당시 현황 ('15. 6월말 기준)

- 가. 적립기금 : 7억 7천만원 (평생회비+이자수익)
- 나. 매년 평균 3,500만원 수준 적립 (회비2,000만원+이자1,500만원)
- 다. 1~28기 완납, 29기 이후 12.1% 납부 (미납 총액 12.6억)

2. 추진 계획

- 가. 이사기수 (29~33기) : 2016년 6월까지 완납 목표
- 나. 34~63기 : 향후 5년내 완납 추진
- 다. 평생회비를 입회비 개념으로 졸업과 동시에 완납 전통 수립 추진
 - ※ 62, 63기 : 졸업시 개인당 3만원씩 1회만 납부

3. 추진 결과

- 가. 29, 30, 31, 61, 63기 : 전원 완납 (총 8,178만원)
- 나. 64기 : 1,000만원 납부 (향후 2년내 완납 결정)
- 다. 기타 기수 : 개인별 납부 중 (3,020만원)
- 라. 65기 생도 부터는 졸업시 완납하기 위해 적립 중

기금 적립 : 7.7억 → 9억 (+1.3억)

[향후 4년 이내 모두 완납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의결 안건

안건 1. 23차년도 적립기금 결산 :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참조

안건 2. 24차년도 이사기수 의결 : '기별 분담금 납부안내' 참조

안건 3. 24차년도 임원선출 : 총동창회 소식 '정기총회' 참조

운영금 현황

운영금 조성

(단위: 만원)

항 목	계 획	실 적	비 고
23기 찬조	8,840	8,840	
기별 분담금	1,580	1,580	15~43기 이사기수
회원/특별 찬조금	700	870	
광고비	3,000	4,830	
이월 운영금	200	200	
총 계	14,320	16,320	

회원/특별찬조

(단위: 만원)

성 명	금 액	성 명	금 액
공군참모총장	600	김은기 (22기)	100
26기생회	50	김준수 (7기)	30
윤자중 (1기)	20	서동열 (4기)	20
천영성 (1기)	10	최홍선 (5기)	10
5기등산회	10	정지수 (11기)	10
박찬태 (18기)	10		

후원

23기생회	사무실 PC, 노트북 기증
박이철(학사69)	순조회 초청행사 지원

회비 납부 안내

평생회비 납부 안내

평생 회비 입금 계좌

우리은행 319-239049-01-001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평생회비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 전원이 평생에 한번 씩 만 부담하는 회비로써 회원 당 200,000원입니다.

현재 거출하고 있는 평생회비는 매년 총동창회운영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적립금의 이자로 총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원금 및 이자까지도 은행에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동창회 연간 운영경비는 기별분담금, 찬조금, 광고비, 운영기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영기수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기수 회원이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먼 후배 기수를 위하여 선배 기수들이 감수하고 있는 현실임을 이해하고 미납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기별 분담금 납부 안내

기별 분담금 입금 계좌

국민은행 671002-04-055750

예금주 : 이남진 (공사총동창회)

기별 분담금이란?

매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총동창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일정액씩 분담하여 지원해 주는 당연직 이사기수 연회비로써 운영기수를 기준으로 선배 8개 기수(16~23기)는 40만원씩, 운영기수를 포함하여 후배 21개 기수(24~44기)는 60만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제24차년도 운영기수는 24기로 이사기수는 16기~44기입니다.

본 회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기별 분담금은 총동창회 운영이 시작되는 매년 7월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회비
납부현황

평생회비 완납기수

1~31기, 61기, 63기 완납

23차년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 '15.07.01~'16.06.30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 부 자 명 단
29	137	137	0	강명근, 고심재, 권희만, 김경환, 김동환, 김만수, 김영식, 김인홍, 김재기, 김정기, 김진경, 김창휘, 김철우, 김철현, 도기훈, 박세규, 방원서, 배정기, 서부중, 안광민, 안정현, 양승택, 염영경, 오문철, 유현중, 윤정태, 이강윤, 이경남, 이규연, 이성만, 이 완, 이 준, 이철호, 이홍주, 장영찬, 조대영, 조현영, 주영길, 최기식, 최영현, 최중권, 한상범, 한창대 (43명)
30	152	152	0	강신부, 권영창, 김규태, 김기일, 김봉진, 김봉학, 김석률, 김선호, 김성원, 김영구, 김일석, 김정렬, 김정복, 김중국, 김진영, 김창호, 김태윤, 류춘열, 박수철, 박종국, 배차한, 송일영, 신형수, 심재천, 안병오, 양익승, 양태현, 왕중모, 우석하, 유성근, 유용수, 유제선, 유준희, 윤영식, 윤현욱, 이공희, 이광건, 이상목, 이승관, 이원섭, 이창규, 이희성, 임 호, 정수민, 정태상, 주상훈, 주성중, 최선학, 최준영, 허옥만, 허 출 (51명)
31	156	156	0	강선문, 김영권, 김원병, 김윤석, 김창겸, 문병훈, 박주환, 백경태, 송명엽, 송재근, 송주영, 신봉섭, 오민철, 윤동섭, 윤 진, 이윤상, 이 훈, 전재복, 정선택, 정윤식, 정인성, 정태권, 정태수, 최병훈, 최오홍 (25명)
32	166	90	76	구자열, 김동수, 김용진, 김창길, 정찬홍, 황지홍 (6명)
33	174	81	93	고성필, 공평원, 권태진, 기국진, 김규순, 김동욱, 김병삼, 김상규, 김상훈, 김석빈, 김영진, 김형근, 남해룡, 노청래, 박광필, 박이창, 배진민, 송경선, 신동주, 신윤홍, 신항균, 이광수, 이병권, 이병우, 이상화, 이재광, 장석철, 정석주, 정영진, 조상용, 추상채, 한태웅, 허용무, 황창수 (34명)
34	165	117	48	고성경, 김성식, 김연호, 김영표, 김용희, 김재범, 김재철, 김중규, 김진성, 김태재, 류제홍, 박 익, 박중석, 박진형, 박찬형, 배종빈, 송만섭, 송병무, 송중근, 신규철, 심상현, 양재승, 오명식, 오승원, 오중찬, 유방우, 윤태준, 이근철, 이두원, 이상모, 이성희, 이수근A, 이수근B, 이인석, 이정근, 이종원, 이 청, 장보연, 정영용, 정창재, 정택근, 조현출, 조희대, 차선암, 차윤근, 최관수, 최창식, 한재수, 홍승호 (49명)
35	249	29	220	이동규, 이성룡, 이장룡 (3명)
36	263	25	238	박대광, 백은성, 이강택, 전제용, 정상화, 최성천, 황선남 (7명)

37	255	63	192	감명식, 강동우, 강봉수, 강순부, 고영록, 곽영상, 구관모, 권오창, 기균도, 김복재, 김시철, 김신곤, 김정윤, 김종길, 김종환, 김주영, 김준식, 김호동, 박성률, 박영민, 박찬덕, 박창식, 박하식, 방광선, 배순옥, 서민오, 서석민, 손해웅, 송상윤, 신명철, 신현만, 심재호, 오상진, 오승훈, 오재일, 우경준, 윤재훈, 윤택명, 이강희, 이경봉, 이규환, 이두형, 이성희, 이승현, 이용호, 이종호, 이종호, 임종필, 장경근, 정낙현, 정태성, 최민호, 황 승 (53명)					
38	237	21	216		39	223	15	208	
40	241	19	222	이도균	41	241	7	234	
42	277	29	248		43	271	10	261	강현민, 박용석
44	221	11	210		45	220	20	200	선종규
46	227	2	225		47	201	4	117	김호룡
48	192	105	87		49	200	3	197	김선태, 정기웅
50	193	4	189		51	203	1	202	
52	202	1	202		53	211	3	208	
54	192	0	192		55	186	0	186	
56	155	1	154		57	157	0	157	
58	134	0	134		59	137	0	137	
60	148	1	147						
61	157	157	0	강민주, 강석윤, 강신우, 고승현, 구본혁, 권순호, 권오석, 권호영, 길두현, 김건수, 김건희, 김경근, 김규진, 김대성, 김대식, 김대연, 김도읍, 김도형, 김동현, 김동훈, 김민석, 김민주, 김민준A, 김민준B, 김병진, 김봉수, 김상우, 김성준, 김수중, 김슬기, 김영훈, 김정원A, 김정원B, 김종혁, 김지수, 김철민, 김태현, 김태훈, 김한빛, 김현우, 김희수, 남용운, 노우진, 문종채, 민예성, 박건태, 박근배, 박대광, 박민수, 박성진, 박수천, 박수훈, 박순영, 박신영, 박영준, 박용하, 박유민, 박은지, 박종민, 박지웅, 박지은, 박지훈, 박진웅, 박푸름, 박한별, 박현욱, 박희도, 백승호, 변형찬, 서수민, 서정빈, 성민아, 성주명, 손동석, 송문성, 송 민, 송영화, 송호범, 신동우, 신승환, 신욱진, 공정호, 안정수, 양성일, 양수훈, 양종래, 양한별, 여인혁, 오사무엘, 오원식, 오주승, 오현호, 오호연, 유대정, 유동걸, 유원표, 윤석민, 윤재동, 윤형진, 이건혁, 이규현, 이민치, 이선호, 이순호, 이승구, 이승기, 이은구, 이정우, 이종호, 이필호, 이 혁, 이현수, 임세환, 임영배, 임재이, 임재철, 임준형, 임천호, 임철현, 임호연, 장새한, 장수빈, 장승혁, 장우민, 장준호, 장혁진, 장혜영, 정규진, 정다연, 정시형, 정유석, 정윤석, 정재훈, 정찬우, 정태웅, 정희만, 조민훈, 조성준, 조용한, 조진철, 조한준, 조형진, 지성인, 지옥형, 차승민, 최광윤, 최동화, 최우현, 최원빈, 최지운, 한학수, 한혜성, 허 환, 현덕진, 홍나혜, 홍치선, 황원상					
62	145	22	123						
63	155	155	0	'15년 3월 3만원 분납, '16년 6월 잔여금 완납					
64	160	50	110	1,000만원 부분 납부 (2년 내 완납 예정)					
합	현재인원 : 8,933			납부인원 : 3,559			미납인원 : 5,374		

※ 입금명 '공사총동창회비'('12.7.27) 로 납부하신 회원께서는 기수와 성명을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자 현황

(2015. 6. 30 이전)

기수	납부자명단
29	강동운, 강명흠, 구용우, 구자병, 권오봉, 김경호, 김광수, 김규진, 김덕중, 김석중, 김성진, 김순노, 김영권, 김명본, 김영철, 김원규, 김용환, 김윝희, 김정식, 김철생, 김희영, 김홍은, 나종렬, 남승우, 남웅우, 노종호, 문병규, 박상욱, 박성기, 박장경, 박재복, 박진화, 박준기, 박충민, 변우경, 백승욱, 송창석, 심동환, 심재광, 심평기, 안준기, 양철환, 오승균, 오영봉, 오한두, 위진호, 윤정용, 윤주혁, 윤한두, 윤항재, 이경달, 이규복, 이기영, 이남건, 이동우, 이두희, 이명길, 이병두, 이병일, 이상번, 이수억, 이승호, 이완식, 이유인, 이인섭, 이일수, 이장근, 임영선, 전동기, 정남범, 정대경, 정덕용, 정동원, 정재순, 조병호, 조평현, 진호영, 차영현, 최상철, 최성욱, 최승철, 최용준, 최정근, 차중환, 표상욱, 하광호, 한봉규, 한봉완, 한충수, 홍상기, 홍승조, 홍안표, 홍재욱, 홍창식
30	강구영, 강병희, 강성호, 강주윤, 강지순, 고영문, 구 정, 권규홍, 권혁승, 권혁천, 김광희, 김무겸, 김병기, 김상기, 김성용, 김세명, 김영산, 김오현, 김용환, 김용훈, 김원규, 김일형, 김정근, 김정수, 김종석, 김종선, 김주혁, 김지복, 김진완, 김찬수, 김철포, 김한수, 김 호, 김호식, 나시중, 박국서, 박상곤, 박성준, 박성희, 박재현, 박종완, 박호성, 백승욱, 서교선, 서희석, 손한섭, 신완희, 심인태, 신종철, 신호재, 안창경, 양승주, 양희성, 염동선, 우정규, 윤기성, 이경훈, 이광수, 이권우, 이성남, 이연수, 이옥규, 이용근, 이재현, 이종돈, 이종식, 이지영, 이치원, 이학주, 이환영, 장기석, 장덕진, 장석현, 장조원, 장현동, 정경두, 정규호, 정기영, 정명환, 정병수, 정 수, 정익길, 정재수, 정중근, 조대호, 조보근, 조영봉, 조홍대, 차주섭, 최영훈, 최종목, 채덕상, 채종목, 채지광, 최성규, 한상덕, 한진국, 홍언표, 황기영, 황성돈
31	강경한, 강윤성, 강호석, 고석목, 고영대, 고종봉, 고희규, 공기명, 권태호, 김기중, 김기현, 김길수, 김남호, 김동준, 김동철, 김명곤, 김수복, 김시완, 김용덕, 김용복, 김유인, 김윤수, 김인택, 김재환, 김정석, 김정철, 김종명, 김종출, 김진수, 김진호, 김철승, 김홍준, 김현주, 김홍천, 남보우, 노병균, 류전수, 마권용, 문경섭, 문승주, 박갑용, 박동진, 박병곤, 박병진, 박봉수, 박승필, 박양기, 박우일, 박우형, 박장순, 박정규, 박태훈, 박창일, 박항윤, 박해구, 박해문, 반석태, 방은상, 배상욱, 배순근, 서상원, 성덕용, 송병기, 손상호, 손영철, 손윤호, 신기균, 신재현, 오재현, 위종성, 유병길, 유보형, 유무술, 유용인, 윤희기, 이남형, 이덕수, 이기영, 이동규, 이동환, 이문호, 이병곤, 이병목, 이상호, 이선호, 이수완, 이승천, 이왕근, 이제환, 이종근, 이종영, 이종희, 이준희, 이찬경, 이창희, 이현주, 임동훈, 임봉수, 임완재, 임한구, 장기영, 장덕봉, 장동현, 장영관, 장영익, 장춘석, 전권천, 전병승, 정석환, 정승진, 정재형, 조병수, 조성욱, 조승균, 조철수, 조한구, 조현기, 조환기, 채관석, 천명상, 최대영, 최병섭, 최세진, 최승준, 최영준, 한동석, 한상훈, 허기주, 현용희, 황영균, 황중서
32	권혁철, 김석운, 김성수, 김성재, 김성환, 김연환, 김영권, 김영기, 김영수, 김우근, 김창욱, 김정룡, 김재구, 김진식, 김진호, 김창석, 김창훈, 김충원, 김태승, 김현곤, 김형식, 남동우, 문정주, 문채봉, 박대홍, 박동성, 박동창, 박세권, 박승룡, 박준수, 박지업, 박천신, 박정용, 부성철, 손형규, 송기표, 송인수, 송재윤, 신영호, 신익현, 심부수, 심청용, 안상훈, 양용규, 원인철, 윤석준, 윤영배, 이건섭, 이건완, 이광준, 이동호, 이문수, 이성우, 이성형, 이일하, 이재웅, 이재환, 이정대, 이종선, 이준행, 이창훈, 이창희, 이한균, 이형걸, 임상섭, 장화용, 전종일, 전진문, 정광선, 정만해, 정영식, 조용호, 조준로, 천상필, 최동호, 최원기, 최인영, 최재영, 최환중, 탄명훈, 하성룡, 허창희, 황영하, 황인우
33	김대기, 김동수, 김수태, 김순길, 김유정, 김유현, 김재권, 김정태, 김조진, 김종도, 노준갑, 박삼남, 박성용, 박수철, 박진용, 박찬혁, 백호달, 송택환, 신용인, 심동식, 오창규, 오희재, 유준중, 윤병훈, 윤왕준, 윤준로, 위강복, 이성우, 이경재, 이동교, 이재홍, 임경주, 장경식A, 장경식B, 장병노, 정남진, 정영철, 정화주, 조광제, 조성호, 최근영, 최병호, 최용섭, 최현국, 한상균, 황성진, 홍재기
34	감수봉, 강병철, 강우석, 고광준, 김대중, 김승수, 김신욱, 김영림, 김용복, 김일웅, 김정열, 김종모, 김종명, 김종범, 김진우, 김학근, 김학준, 김현수, 김형호, 김 훈, 노승환, 당병규, 박기근, 박상로, 박장수, 박종용, 박홍식, 백윤형, 서중대, 서희창, 손 경, 송광혁, 심재관, 안상철, 안선환, 양희중, 윤기철, 윤진철, 이권표, 이성렬, 이성용, 이성호, 이인영, 이재수, 이재환, 이해원, 이희찬, 임도한, 임삼규, 임상수, 임수훈, 임 원, 장기주, 장명수, 정병학, 정상길, 정한기, 정찬영, 조성인, 조현상, 차용재, 최상수, 최재훈, 최중문, 편완주, 한종호, 황치원, 허남희

35	강규식, 강성규, 강정은, 강효석, 강 훈, 권기환, 김부국, 김종은, 김준식, 류영관, 민태기, 서완석, 손환주, 송태섭, 신형철, 엄태화, 은용섭, 유진협, 윤재룡, 이강래, 이영배, 이치원, 임채현, 정수성, 조철희, 최병오
36	김남돈, 김보현, 김성균, 김원수, 김응문, 김진우, 김하성, 나문관, 박문덕, 박영준, 박종국, 박홍식, 오형식, 윤성모, 이수성, 이준모, 임이철, 최혁준
37	기노신, 김연규, 나은일, 박상균, 이동훈, 이준혁, 이재섭, 지용해, 진광호, 최기명, 최윤곤
38	강재성, 공도현, 구도윤, 김정태, 김성준, 김용운, 박종환, 방정열, 성규철, 신보현, 심재환, 우태하, 윤보정, 윤상보, 이동기, 이동민, 이수만, 이정호, 장창열, 차재훈, 최정현
39	강진규, 권성범, 김순태, 김용희, 김재권, 김정훈, 이재욱, 이창수, 임정규, 임종택, 최정모, 최진원, 최한규, 허윤규, 홍봉선
40	강정현, 김문일, 김재형, 김중기, 김진일, 김현수, 박기태, 박찬근, 서철모, 손정국, 손정환, 이길주, 이만우, 이봉세, 이선근, 이현희, 현준호, 황희철
41	김민호, 박종운, 송창희, 이진수, 임장석, 정진광, 주영진
42	강문중, 김기호, 김성덕, 김의택, 김창진, 김태우, 김현준, 민경옥, 박상진, 박세훈, 박윤철, 소상철, 신현규, 심대섭, 심대철, 온재섭, 윤성철, 이강녕, 이기영, 이범기, 이준재, 이지호, 이진수, 임유식, 장희준, 정우건, 천경덕, 최정욱, 한상형, 황수경
43	고경덕, 김상진, 김용재, 오동식, 이종원, 이종훈, 조진호, 주성규
44	고준기, 권기범, 김도현, 김상훈, 박세순, 박정수, 이강희, 이수훈, 이재욱, 이한기, 전용성
45	강영은, 박기훈, 금기호, 김범수, 김중수, 박도준, 안영록, 엄성범, 윤혁중, 이금규, 이길영, 이인규, 정지영, 정한영, 정희두, 조충석, 채 원, 하동열, 황성연
46	양술문, 장순천
47	신범수, 양경주, 이선복
48	강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본곤, 구필현, 금규태, 길태원, 김강주, 김경민, 김규일, 김년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범준, 김상준, 김선규, 김성진, 김승현, 김시문, 김인영, 김용숙, 김우현,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한, 김태호, 김홍석, 나정흠, 남택수, 문보연, 민병익, 박경준, 박정수, 박준영, 박찬역, 박한민, 박희수, 사재철, 소영섭, 손성진, 송영권, 송영민, 신 환, 신기영, 안상철, 안효훈, 양함주, 엄일용, 오상원, 원용창, 유 흥,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동수, 이동훈, 이명선, 이무강, 이상준, 이석현, 이순재, 이우열,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재영, 이종원, 이종훈, 이창용, 이창중, 이태승, 이형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임수홍, 임은수, 임창순, 장균홍, 장성진, 전대만, 전찬삼, 정기만, 정인식, 정재훈, 조정흠, 조혁준, 채 석, 천영호, 최원석, 최규완, 최균수, 최성호A, 최성호B, 최영기, 최재호, 추광호, 한영중, 허석희, 홍문기
49	이상현
50	안성민, 양정환, 이수리, 최성신
51	정진규
52	박인철
53	문영섭, 박주문, 최주영
56	이한준
60	이승우
62	435만원 부분 납부 ('14년 3월 1인 3만원)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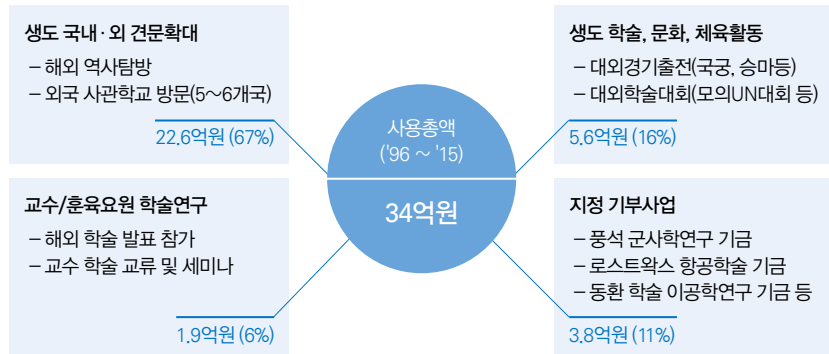
설립목적

생도 교육 및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예산확득이 불가능하거나 적기 확득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 지원

발전기금 모금 현황

구분	금 액	비고
기업 및 단체	43억원	(주)부영 등 80개 단체
동문	33억원	학교 동문 3,600여명
학부모/후원자	4억원	학부모/후원자 등 430여명
합계	80억원	총 4,030명 80개 단체

발전기금 집행 현황



※ 기금 원금은 영구 보존, 이자수입(1.99% ~ 4.00%)으로 사업 운영

기부자 예우

학교본부 기부자 명패(사진, 성함) 유지, 고액출연자 기금출연행사 등
연말소득공제 혜택 및 학교시설 우선 이용혜택(야외결혼식장 등)

참여안내

무통장입금 (예금주 : (재)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국민은행 401-01-0662-701 / 농협은행 303-01-345036 / 우체국 300038-01-003768

문의전화 : 043-290-5716~7

공군사관학교 발전에 도움을 주신 분들

[재]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총 자산 80억원 ['16.5.31]

1억원 이상 (12)

(주)삼성테크윈(10억1천)	(주)삼양화학공업(7억3천1백)	(주)대우중공업(5억)
(주)부영(5억)	이종학(공사3,2억6천2백)	최동환(공사27,1억6천)
보잉코리아(1억2천6백)	장지량(9대공참총장,1억5백)	(주)메타바이오메드(1억약정)
(주)한국로스트왁스(1억)	(주)한국항공우주산업(1억)	(주)한라이앤씨(1억)

5천만원 이상 (11)

(주)원일인터네셔널	(주)블루니어	공군사관학교학부모 모임	공사51기생회
공사52기생회	공사53기생회	공사55기생회	공사56기생회
공사57기생회	공사58기생회	공사발전후원회	

1천만원 이상 (116)

강민수(공사9)	공군2사관학교 총동문회	공군발전협회	공사총동창회	곽현성(공군가족)
국민은행분평지점	국민카드	기업은행	김광순(공사9)	김규림(공사12)
김남돈(공군가족)	김대중(역대대통령)	김도영(공사1)	김무신(공사13)	김상태(공사2)
김상태(공사9)	김선도 (광림교회목사)	김양수(공사13)	김영권(공사29)	김용찬(공사11)
김용철(공군가족)	김은기(공사22)	김재환(란스튜디오)	김진수(공사31)	김진호(공사27)
김 현(공사14)	(주)바이텍정보통신	류조형(공사14)	故박덕희(공사12)	박영민(사후53)
박영욱(공사22)	박원석(사후2)	박진숙(공사5)	박춘택(공사12)	배양일(공사12)
보라매법당	(주)서로윈	서정욱(사후37)	서진태(공사8)	승진기술(주)
신동열(공사14)	신동윤(공사12)	(주)실리콘화일	안병철(공사13)	안병하(공사13)
안택순(공사14)	故석영우(공사14)	故허규열(공사14)	양창근(공군가족)	온성철(공사4)
원불교충북교구	유상신(공사8)	육도석(공사14)	윤대봉(공사8)	이광학(공사11)
이기현(공사13)	이성재(공사25)	이억수(공사14)	이양호(공사8)	이영수(공사2)
이일남(공군가족)	이정호(공사13)	임길순(공사14)	임용환(공군가족)	장덕수(공사13)
최성열(공사15)	최용철(공군가족)	故최진형(공사56)	태종민(공사13)	하정효(전경련IMI GAMP회장)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현황

한광희(공사9)	(주)한국치공구공업	(주)한길씨앤씨	한정구(공사14)	해인사 (대한불교조계종)
허차동(공사11)	홍재학(공사4)	(주)효광	공사1기생회	공사2기생회
공사3기생회	공사4기생회	공사5기생회	공사6기생회	공사7기생회
공사8기생회	공사9기생회	공사10기생회	공사11기생회	공사12기생회
공사13기생회	공사14기생회	공사17기생회	공사18기생회	공사19기생회
공사20기생회	공사21기생회	공사22기생회	공사23기생회	공사26기생회
공사30기생회	공사31기생회	공사33기생회	공사34기생회	공사35기생회
공사36기생회	공사37기생회	공사40기생회	공사41기생회	공사43기생회
공사44기생회	공사54기생회	공사59기생회	공사60기생회	공사61기생회
공사62기생회				

5백만원 이상 (39)

경주전장	공영화(공사7)	국제라이온스협회 충북지구	김규태(공군가족)	김대욱(공사15)
김락은(공군가족)	김보현(공사36)	김선곤(공군가족)	김용주(공사4)	김인기(공사3)
김재식(공군가족)	박지훈(공군가족)	박찬욱(공군가족)	안창명(공군가족)	유영국(공군가족)
윤익수(사후37)	이봉운(공사24)	조광제(공사33)	초청노인병원	공사15기생회
공사16기생회	공사24기생회	공사25기생회	공사27기생회	공사29기생회
공사32기생회	공사39기생회	공사42기생회	공사45기생회	공사46기생회
공사47기생회	공사49기생회	공사50기생회		

3백만원 이상 (22)

강남서울안과, 평택서울안과	공사성무교회	국제로타리3740지구	권혁달(공사9)	김경복(공사3)
김광은(군교수)	김동수(공사32)	농협 (청주물류센터지점)	(주)루시컨설팅	서명교(공사46)
임상훈(공군가족)	전승혜(군교수)	(주)제니엘	조미행(공군가족)	조영식(공사35)
주창성(공사16)	주님의교회	한주석(공사7)	한주선(독지가)	212대대비행교수회
공사28기생회	공사38기생회			

1백만원 이상 (299)

강봉민(공군가족)	강석일(공군가족)	강성영(공사19)	강성철(공사23)	강수준(공사22)
강치행(공사23)	강태식(공군가족)	강호석(공사31)	강희간(공사17)	경운대학교
고영섭(공사17)	고종무(공사17)	고준기(공사44)	공군사랑회	공군전우회 청주지회
공사27기지용 3편대원	공사교수친목회	곽갑순(공사13)	곽영달(공사7)	구정회(공사18)
군과원항공과 01졸업생	금기연(공사21)	금학수(공군가족)	김경중(공사12)	김국환(공군가족)
김 규(육사27)	김기부(공군가족)	김기영(공사46)	故김낙규(공사1)	김덕실(공사19)
김도식(공사8)	김두만(사후5)	김만호(공사27)	김명립(공사19)	김상직(공사2)
김석우(공사17)	김성근(공사40)	김성수(공군가족)	김성일(공사20)	김성진(공사18)
김세현(공사50)	김연호(공사34)	김연환(공사32)	김영본(공사29)	김영식(공군가족)
김영주(공사20)	김영준(공사23)	김영철(공사19)	김영환(공사1)	김우태(공사19)
김원규(공사30)	김윤수(공사31)	김윤주(공사10)	김을식(공군가족)	김이곤(사후71)
김이곤(사후71)	김인택(공사31)	김일강(공군가족)	김일락(근무원)	김장호(공사22)
김재달(공사10)	김재문(공군가족)	김재운(공사18)	김정만(공군가족)	김정현(공군가족)
김종기(공군가족)	김종태(기무사령관)	김주식(공사15)	김준기(공사26)	김준수(공사7)
김진섭(공사3)	김창규(역대총장)	김창욱(공사21)	김태수(공사46)	김해인(공군가족)
김현수(공사40)	김현진(공사19)	김형철(공사28)	김호동(공사20)	김호배(공군가족)
김홍석(공사48)	김희복(공군가족)	남완수(공사39)	(주)다우산업	도성한정식
도재준(공사39)	라지균(공군가족)	류광선(공군가족)	문국진(공사2)	문기철(공사13)
문봉한(독지가)	민정배(공군가족)	박경웅(공사16)	박귀재(공군가족)	박규복(공사19)
박기현(공사40)	박도영(공사46)	박동춘(공군가족)	박명우(공군가족)	박성국(공사16)
박성윤(공사10)	박수용(공사46)	박영준(공사36)	박예재(공사4)	박용태(공사5)
박재성(공사2)	박종선(공사14)	박주경(공사53)	박준범(공사49)	박창권(공사27)
박홍식(공사34)	배기준(공사12)	배창식(공사21)	백낙승(공사3)	백동기(공사16)
(주)비씨카드	학사77기동기회	서동열(공사4)	(주)서울고속	(주)선우캠텍
설현주(공사41)	성동주(공군가족)	성보경(공사5)	성용경(공군가족)	성일환(공사26)
(주)세일하이텍	손일호(공사46)	손정환(공사19)	송대성(공사17)	송영섭(공사13)
송한복(공사24)	신균상(공군가족)	신문식(공사21)	신성환(공사26)	신영덕(공사28)
신표근(공사18)	심상철(공사26)	심성용(공사46)	심인태(공사30)	심장섭(공사3)
안병걸(공사20)	안병문(공사11)	안성덕(공군가족)	안영준(공군가족)	양경철(공사46)

양동현(공사46)	양철환(공사29)	엄상영(공사24)	연양희(공사21)	오윤희(공군가족)
오일근(공군가족)	오정진(공사46)	오정치(공군가족)	오준영(공사35)	오필환(공사23)
온용섭(공사35)	외환카드	위강복(공사33)	(주)원플로	유병구(공사19)
유병희(공군가족)	유재호(공사3)	유재홍(공사21)	유준종(공사33)	윤경식(공사48)
윤봉수(공사18)	윤상주(공사25)	윤용현(공사25)	윤 우(공사28)	윤자중(공사1)
윤재훈(공사18)	윤차영(공사23)	윤희준(공사46)	이강욱(공사19)	이강택(공사36)
이경란(공군가족)	이경훈(공사30)	이계오(공사19)	이규찬(공사19)	이기동(공사20)
이기택(공사18)	이기호(공사41)	이길우(공사37)	이길환(공사15)	이남진(공사24)
이달호(공사19)	이동식(공사46)	이만섭(공사3)	이명환(공사28)	이문식(공사43)
이문호(공사17)	이상기(공사2)	이상배(공사6)	이상오(공사53)	이상해(공군가족)
이석민(공사46)	이석원(공군가족)	이선미(공사53)	이선희(공사18)	이순웅(공사46)
이승수(독지가)	이승현(공사37)	이영준(공사18)	이영하(공사22)	이영희(공사20)
이윤우(공사6)	이장호(공사10)	이재선(공사46)	이정석(공사22)	이정욱(공사23)
이정윤(공사45)	이정은(공군가족)	이정일(공군가족)	이종록(공사20)	이종식(공사30)
이진숙(공군가족)	이진학(공사18)	이창일(공군가족)	이철우(공사26)	이태규(공사42)
이태식(공사11)	이태운(공군가족)	이태운(공사28)	이한호(공사17)	이호웅(공사45)
이화민(공사21)	이흥기(공군가족)	일진중전기(주)	임남기(공군가족)	임병숙(공군가족)
임정빈(공사16)	임호순(공사24)	장무익(공사4)	장부석(공군가족)	장성문(공사20)
장세현(공사33)	장영수(공사18)	장영익(공사31)	장진수(공사16)	장호근(공사17)
장희천(공사19)	전춘우(공사6)	전환혜(공군가족)	정경두(공사30)	정귀곤(공군가족)
정민우(공사47)	정석환(공사31)	정중구(공사30)	정철호(공사20)	정해일(공사7)
정현욱(공사46)	정희두(공사45)	조규식(공사17)	조영근(공사3)	조옥찬(공사4)
조재천(공사46)	조정숙(공군가족)	조태환(사후59)	조환기(공사31)	진광수(공사35)
차옥환(공사17)	차중권(공사20)	차홍준(공군가족)	참사랑병원	채관석(공사31)
천기광(공사18)	최만호(공군가족)	최미락(공사25)	최범식(공사21)	최병삼(공군가족)
최병운(공사22)	최병인(공군가족)	최부용(공사35)	최상근(공군가족)	최성현(공군가족)
최승식(공사46)	최시수(공군가족)	최용준(공사46)	최용환(공사15)	최현국(공사33) 가족
최호준(공사22)	하만윤(공사22)	하성룡(공사32)	하태용(공사21)	학부모친목회
한고희(공사33)	(주)한드	한봉철(공군가족)	한성주(공사24)	한영규(공사4)
함장환(공군가족)	허원욱(공사20)	홍강표(공사19)	홍성룡(공사27)	홍성민(공군가족)
홍영식(공군가족)	황성연(공사45)	황원동(공사24)	공사44기순직자 (5명)	공사48기생회

전역자 현황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15.7.1	중령	권태욱	군의	33	'15.10.31	중령	홍창훈	운항관제	43
	중령	장세현	보급수송	33		소령	최호규	조종	52
	중령	윤여복	조종	34	'15.11.30	준장	신익현		32
	중령	이상덕	보급수송	35		준장	이성우		32
	중령	장동웅	보급수송	35		대령	이형걸	정훈	32
	소령	박명기	정보통신	41		준장	하성룡		32
	중령	정광우	정보통신	41		대령	박원서	정보통신	34
	중령	이석진	항공무기정비	42		소령	천상현	보급수송	41
	소령	이상호	조종	51		대위	이정하	방공포병	58
	대위	임지훈	항공무기정비	52	'15.12.31	대령	고석목	조종	31
'15.8.31	대령	김시완	조종	31		대령	마권용	조종	31
	대령	조한구	조종	31		소장	신재현		31
	대령	탄명훈	조종	32		대령	김석운	헌병	32
	중령	김지원	인사교육	33		대령	김진식	인사교육	32
	중령	최병호	인사교육	33		대령	심재성	조종	32
	소령	최기현	방공포병	41		준장	안상훈		32
	소령	김태우	보급수송	42		준장	이문수		32
'15.9.15	중령	박정민	항공무기정비	39		준장	최환중		32
'15.9.16	대장	최차규		28		대령	황인우	방공포병	32
'15.9.30	중령	김이두	시설	33		준장	공평원		33
	중령	홍선기	시설	35		준장	장경식		33
	중령	성기모	조종	43		준장	장석철		33
	중령	신건수	조종	44		대령	김세겸	항공통제	35
	소령	유정호	조종	51		대령	이재욱	정보통신	35
	소령	조성욱	조종	52		중령	최석인	정훈	35
'15.10.31	대령	조병수	조종	31		대령	손경수	정훈	36
	중령	선문영	항공무기정비	34		대령	정두희	조종	36
	중령	이정호	항공무기정비	36		대령	조영준	인사교육	36
	대령	이재만	정보	37		중령	이동훈	조종	41
	소령	홍성은	인사교육	41		중령	정지택	인사교육	41
	소령	한상형	인사교육	42		중령	한일진	보급수송	41
	중령	김종훈	항공무기정비	43		중령	조관행	인사교육	42

전역자 현황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15.12.31	중령	김태훈	항공무기정비	43	'16.2.29	소령	안우진	조종	47
	소령	하임용	시설	43		소령	조정흠	조종	48
	소령	소영섭	조종	48		소령	최정모	조종	48
	소령	신승한	조종	50		소령	강명호	조종	49
	소령	남영욱	정보	51		소령	강배영	조종	49
	소령	박성준	보급수송	51		소령	고을표	조종	49
	대위	김범희	항공무기정비	53		소령	구동완	조종	49
	소령	박종근	조종	53		소령	권순현	조종	49
	대위	오선학	군의	55		소령	김갑주	조종	49
	대위	이우	인사교육	58		소령	김동영	조종	49
	대위	장진웅	정보	58		소령	김동주	조종	49
	대위	신현호	조종	59		소령	김범용	조종	49
'16.1.31	중장	김정식		29		소령	김범주	조종	49
	중장	박재복		29		소령	김선태	조종	49
	소장	우정규		30		소령	김영수	조종	49
	소장	황성돈		30		소령	김일훈	조종	49
	중령	이재현	인사교육	34		소령	류동현	조종	49
	소령	정봉철	시설	42		소령	민석환	조종	49
	소령	김도형	재정	51		소령	박민규	조종	49
	소령	윤정원	정보	51		소령	박원근	조종	49
	소령	이승호	정훈	52		소령	박윤식	조종	49
						소령	박종욱	조종	49
'16.2.29	대령	서흥모	항공무기정비	32		소령	박찬형	조종	49
	대령	최원기	조종	32		소령	백광현	조종	49
	중령	노명화	인사교육	35		소령	백남준	조종	49
	소령	류제현	정보	41		소령	변문철	조종	49
	중령	강종훈	항공무기정비	42		소령	서성원	조종	49
	소령	이명주	인사교육	44		소령	서영길	조종	49
	소령	강태현	조종	47		소령	손원경	조종	49
	소령	권윤	조종	47		소령	안선범	조종	49
	소령	김봉수	조종	47		소령	양동희	조종	49
	소령	김태진	조종	47		소령	양승민	조종	49
	소령	신범수	조종	47					

전역자 현황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16.2.29	소령	오상석	조종	49	'16.2.29	대위	유명호	조종	59
	소령	오종수	조종	49		대위	이규녕	항공무기정비	59
	소령	윤건형	조종	49		대위	이재민	정보	59
	소령	이규양	조종	49		대위	이정우	시설	59
	소령	이대진	조종	49		대위	이준	인사교육	59
	소령	이명환	조종	49		대위	이진호	항공무기정비	59
	소령	이성훈	조종	49		대위	장관	조종	59
	소령	이우범	조종	49		대위	최영욱	인사교육	59
	소령	이우중	조종	49		대위	최홍렬	방공포병	59
	소령	이종봉	조종	49	'16.3.31	대령	김남호	정보	31
	소령	이준홍	조종	49		대령	손영철	조종	31
	소령	이현우	조종	49		대령	김창석	항공통제	32
	소령	임성훈	조종	49		중령	김건식	조종	34
	소령	임승재	조종	49		중령	김귀병	항공무기정비	35
	소령	임정관	조종	49		대령	오세훈	인사교육	35
	소령	장순기	조종	49		중령	우문택	헌병	35
	소령	장원배	조종	49		대령	이충환	조종	35
	소령	장원욱	조종	49		대령	정영식	보급수송	35
	소령	정영일	조종	49		소령	김동수	항공무기정비	44
	소령	정인덕	조종	49		소령	전종혁	조종	52
	소령	정정진	조종	49		대위	박현주	정보	59
	소령	정준영	조종	49	'16.4.30	중령	강호균	인사교육	34
	소령	주종기	조종	49		중령	양재승	항공무기정비	34
	소령	최상복	조종	49		중령	김동호	보급수송	35
	소령	현원준	조종	49		대령	김춘식	기상	35
	소령	홍정진	조종	49		대령	차호선	인사교육	35
	소령	홍진호	조종	49		중령	최연화	조종	41
	대위	남연진	재정	59		소령	송헌	항공무기정비	43
	대위	사근종	인사교육	59		중령	이창희	보급수송	44
	대위	송태종	조종	59	'16.5.31	대령	정재형	재정	31
	대위	신기호	정보통신	59		대령	김태승	재정	32
	대위	오병준	조종	59		중령	박장수	조종	34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16.5.31	중령	조현출	인사교육	34	'16.5.31	소령	최담	항공무기정비	53
	소령	김주식	항공무기정비	43	'16.6.30	대령	임상섭	보급수송	32
	소령	임민호	정보통신	43		대령	김병삼	조종	33
	소령	서준경	조종	48		중령	조희대	조종	34
	소령	박기백	조종	49		소령	김희석	정보	42
	대위	안성환	정보	53		소령	모상민	방공포병	43

각 기생회
임원 현황

('16년 6월 현재)

기수	회장	총무	기수	회장	총무	기수	회장	총무
1기	김순경		23기	윤재원	박성순	45기	박종서	이길영
2기	명의창	이종선	24기	이윤상	표상수	46기	서정민	
3기	정규혁		25기	고경윤	문성균	47기	염인순	송태복
4기	조봉구	김재두	26기	배충영	전영구	48기	박준영	구본곤
5기	정재식	정봉수	27기	허광서	최정근	49기	이정영	
6기	이윤우	손중서	28기	정동학	천홍우	50기	정병식	손다혜
7기	허두기	최화섭	29기	김규진	김경환	51기	김시호	최호성
8기	윤대봉	최흥범	30기	정경두	권영창	52기	박준규	추맹철
9기	천왕봉		31기	김동철	이남형	53기	차승주	최영천
10기	김재달	이헌재	32기	원인철	안상훈	54기	이창오	
11기	이규형	이관영	33기	최현국	정영철	55기	염지운	강수정
12기	이종양	박창길	34기	노승환	이재소	56기	권혁준	정신기
13기	강신해	유병각	35기	변철구	이봉우	57기	정인식	김혜미
14기	정재성	김광산	36기	김진우	김재영	58기	이종복	조희상
15기	최광섭	차정열	37기	김경의	지용해	59기	김성석	노제경
16기	김희동	양길수	38기	박창규	최정현	60기	이상우	구상협
17기	강희간	서정윤	39기	김재규	이상규	61기	이건혁	남용운
18기	손인익	정윤태	40기	김영채	신정치	62기	유은상	황인선
19기	손정환	이성율	41기	김종수	이충재	63기	한준우	허지민
20기	김호동	김택기	42기	정현기	김은희	64기	김상래	전재영
21기	유근국	이호일	43기	이성진	김현구			
22기	부중배	김중세	44기	김근원	고준기			

편집후기

어느 기수이든 ‘성무’지를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한결 같을 것 같다. 성무지 편집위원들이 결성되고 나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접근해야하고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읽혀지는 회지가 될까? 고민을 거듭하였지만 특별한 내용도 없이 시간에 쫓기면서 몇 차례의 편집회의와 가 편집 그리고 최종 검토를 마치자마자 어느덧 출판에 이르게 되어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제한된 지면구성으로 참여하신 많은 회원 분들의 주옥같은 글들을 모두 실지 못한 죄스러움과 년 1회 발간은 동문간의 빠른 소식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한계로 매우 안타깝기도 하였다.

이번 45호 성무지가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기고 청탁에 적극 응해주신 모든 분들과 지난 한 해 동안 공사총동회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편집진 여러분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친절과 성의를 다하여 ‘성무’지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씨옌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편집인〉

기고안내

공사총동창회 회지인 ‘성무’지는 년 1회(매년 7월) 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회원들의 수필, 여행기, 사관학교 시절의 에피소드 및 취미활동 등을 주제로 한 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46호 성무지 원고는 2017. 3. 20에 마감합니다.

많은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기고 시 사진 이미지는 원본 파일을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 2016. 7. 1

발행인 : 이계훈

편집인 : 이정욱

발행처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주소 : (우 0705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우체국 사서함 5-1호

전화 : 02-823-1091

팩스 : 02-823-1092

Home Page : <http://www.kafaaa.or.kr>

E-mail : 04airfa@hanmail.net

ISSN 2508-3139 (비매품)

고금리 대출을 ⇨ 저금리로 전환하세요!

군인연금 수령자를 위한 신용대출 M+해피론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한국캐피탈이
군인연금 수령자에게 드리는 혜택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캐피탈**을 검색해 보세요!!



NAVER

한국캐피탈 ▾

검색

아직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시나요?

(타 금융기관 대출 관계없이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

저신용자 또는 고금리 대출(고액채무) 이용자를 위한 구제금융 상품입니다

조 건

- 대 상 : 군인연금 수령중인 자 중 저신용자
(전역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 대출한도 : 5,000만원(연령에 따른 차등 적용)
- 금 리 : 최저 연8.5%(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 신용 등급에 따른 차등 적용(8.5%~13.5%)
 - * 연금 중앙공제시 2% 할인(법령 개정 시)
- 상환기간 : 60개월 이내
 - ※당사 대출 심사에 따라 대출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 징

- 군인연금 수령자만 대상으로 특별한 혜택 부여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대상자는 불가)
- 개인신상 미 공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없는 간편한 인터넷 신청
-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 제출 서류 : 홈페이지 참조

국군장병 및 예비역
고객님을 위한 상담

TEL 02)6206-0153~5
FAX 02)6007-7552



군인공제회
한국캐피탈(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대치동889-13) 금강타워 18,19층



사랑으로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사랑으로」부영 -

부영은 더 큰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에도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동남아 유학생 장학금 지원



고교·대학교 교육시설 건립 기증



아·태지역 초등학교 교육기자재 기증

공공

서로 공생하며 살아가는 할미새와 코뿔소처럼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함께 키워줄 든든한 친구가 있습니다.
군인공제회에서 전액 출자한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까지
대한토지신탁은 믿음을 바탕으로 당신과 함께 성장하는 부동산투자 파트너입니다.

Win!

Win!

www.reitpia.com

-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토지신탁(주)
DAEHAN REAL ESTATE TRUST INC.

속쓰림엔 겔포스엠

과도한 업무, 잦은 회식으로 인한 속쓰림!
겔포스엠의 흘러내리지 않는 겔 성분이 빠르고 빈틈없이 속을 감싸줍니다.



특허받은 위장약 : 복합제산제조성물특허 제130427호



www.seouladex.com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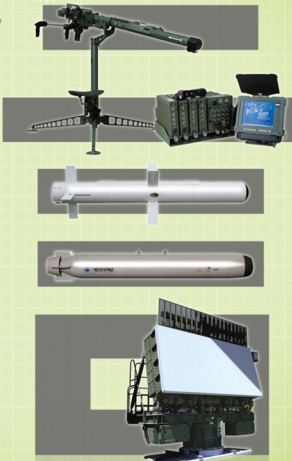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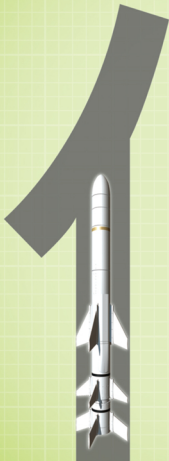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17

2017년 10월 17일(화)~22일(일) / 서울공항



믿음으로 앞서갑니다!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책임져 온 믿음의 이름, LIG넥스원!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더 믿음직한 내일을 만듭니다.



◀ LIG Nex1 R&D Center

LIG넥스원은 정밀타격체계, 지휘통제통신체계, 감시정찰체계, 전자전체계, 항공전자, 무인시스템 등 첨단무기체계의 개발 및 국산화로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희망을 열어가는 종합방위산업체**입니다.





하늘을 장악하다 최강의 전투기 F-15

최첨단 시스템과 기술을 탑재한 다목적 전투기인 F-15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상된 행동반경과 탑재량을 기반으로 최신 F-15는 차원이 다른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공합니다. 최고의 공중 우세 역량을 보장합니다.

 **BOEING**